

# 중국을 주께로

## 98/9 · 10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 발행처: 시닝(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주소: 서우 서우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우137-069  
전화: 021533-5497, 592-0132 발행인: 이동화/ 발행일: 1998. 8. 20/ 등록일: 1994. 2. 14일자 (등록번호/ 바 - 2078)  
통권53호



### 특집/ 중국 교회의 이단과 극단

- 기획/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 중국 교회 현주소/ 변화하고 있는 가정교회
- 중국은 지금/ 대홍수를 막아라
- 현지에서 온 소식/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중국을 생각하는 이들의 모임

중국을 주께로

98/7·8



# 중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선교의 동역자를 찾으십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읽히기 원합니다.

희어진 밤,

중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서 우리를 도와라’

중국교회의 외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눈과 귀요,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는 선교의 불꽃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를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기도의 보고요,

국내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크리스천 모두에게는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손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6권) 구독료 30,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TEL:02)592-0132, 533-5497, 594-8038, 535-4255, FAX: 599-2786

『중국을 주께로』 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 국민은행 008-01-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회지구독요금이라 적어주십시오.)

#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

이동화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현대선교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것 중에 '창의적 접근지역'(Creative Access Nations) 개념이 있다. 이것은 공산권과 모슬렘 등 선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로 중국대륙이 그 대표적 지역 중 하나이다. 1989년 로잔 제2차 대회의 통계에 의하면 119개국 38억 인구가 이 창의적 접근지역에 속하며, 이 지역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교적 접근 방법과는 다른 창의적이고 새로운 접근 전략이 요청되기 때문에 창의적 접근지역 이라고 이름붙여졌다.

첫째, 선교사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이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를 해야 할 한국 교회로서는 우선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선교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은 후 파송되어 선교사 비자를 받고 선교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로잔 세계대회의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전통적 선교사의 사역 기회는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최근의 미국 초교파 해외선교협의회(IFMA) 소속 선교사 모집 요강을 보면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직책은 20%가 채 안 되며, 나머지 80% 이상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이었다. 그러므로 중국과 같은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사에 대한 의식전환이 요청된다. 특히 한국 목회자들의 선교사 개념의 변화는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교회 개혁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교는 곧 교회개혁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세계 선교사 93%가 형식상 교회개혁에 제약이 없는 전도지역(reached people)에 모여 있는 이유도 상당부분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교회의 경우 '교회개혁=교회건축'이라는 등식이 목회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어서 지금까지도 선교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여타 창의적 접근지역과는 달리 이미 강력한 중국 교회가 존재하여 있으므로 중국인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그들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셋째, 평신도 선교사를 위한 신학교육 제도의 정립이 요청된다. 지금까지 한국 선교계 일각에서는 평신도 선교를 말할 때 선교훈련만 강조하고 신학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온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일부 창의적 접근지역에서는 평신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현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상당한 신학교육적 소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교사 개인의 사역적 장래를 위해서나 현지 교회를 위해서 신학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학교에서는 일반 직업을 가진 평신도 선교 헌신자 및 현역 평신도 선교사들을 위하여 양질의 다양한 신학 연장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학교육적 뒷받침이 있을 때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창의적 접근지역은 지금도 확대되고 있으며 2천년 이후에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지역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당겨질 수도 늦추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선교사와 선교단체의 창의적 접근 노력뿐 아니라 그들을 파송하고 지원할 한국 교회의 창의적 발상전환이 요망된다. 선교사, 선교단체 그리고 교회가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선교의 주체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 특집 / 중국 교회의 이단과 극단

- 8 극단에서 이단까지를 말한다 허러싱(何樂生)  
 12 이단도 가지가지, 이것이 이단이다 메이쥙즈(梅增知)  
 16 중국의 이단과 극단에 대한 분석표 황언취(黃恩炬)  
 22 교회의 사각지대에서 날뛰는 우는 사자들 황언취(黃恩炬)  
 26 이단을 대적하자 황러링(黃樂靈)

## 선교니침반

- 4 선교일언 우리의 선배 바울을 바라보며 전준식  
 32 중국 교회 현주소 변화하고 있는 가정교회 천더위(陳得魚)  
 36 디아스포라 한국인 동북삼성의 최대 길목인 선양(瀋陽) 이요한  
 42 선교전망대 중국 공단지역 단기 의료선교 최해룡  
 46 중국의 관문도시(4)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연구부  
 50 궁금합니다 중국에서는 거주지를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석은혜

## 현신의 삶

- 52 현지에서 온 소식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김한길  
 54 중국성도 간증 할머니가 심은 복음의 열매 양성(揚聲)  
 58 중국 교회 체험기(16) 복음의 체계적 교육에 목마른 농촌 교회 무명

## 인물·역사

- 61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사(5) 교동 및 레양구 회장  
 - 이대영 목사(3) 김교철  
 66 중국선교의 발자취 그리운 제자들 방지일  
 68 중국 교회 순례(12) 험산준령에 마련한 복음의 요람 리야딩(李亞丁)  
 72 중국선교사 행전(7)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서 중국 선교사로  
 - 에릭 헨리 리들 임선미

## 중국은 지금

- 76 중국은 지금 대홍수를 막아라 장선(江迅)  
 80 중국동향 초점 중국-더이상 공짜 집은 없다 연구부

## 기획 /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 84 신장성의 소수민족 - 위구르족 편집부



# 1998년 9,10월 통권 제53호

## 중국을 알자

- 31 중국·중국인 황제의 후손들
- 93 중국 체험 두 얼굴의 중국인 석은혜
- 100 중국단기선교 여행코스(9) 초원의 꿈, 네이멍구(內蒙古) 유재승
- 104 중국 문화 중국인의 소리, 중국인의 음악 이민선
- 108 천안문 에세이 중국 대학생 학비 국비에서 자비로 김동하
- 112 변화하는 중국 中·美 정상회담의 성과 양청취(楊成緒)

## 자료실

### 120 김림성 종교사무 조례

발행인 칼럼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	이동화	1
목상의 샘	절망을 이기는 기상		6
선교 다이제스트	『세계관을 분별하라』 외 1권		110
시사만평	깨어진 철 밥그릇	리스민(李時民)	45
중국인의 유모어	태양, 달 그리고 쌀이 없을 뿐		99
선교 중국어	奉獻禱告 (봉헌 기도문)		96
중국어 복음성가	我活著基督 (내 안에 사는 이)		97
중국어 산책	샤상(下鄉), 사하이(下海), 샤강(下崗)		98
신간도서	『코카콜라 병에 빠진 중국』 외 2권		111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113
선교단신			118
선교복덕방	새 일꾼을 찾습니다		119

## 별책부록 중국기도 (98년 9.10월)

### 표지 설명

추수의 계절 가을이다.  
 을 한해도 중국에서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혔다는 소식을 기대해 본다.  
 (사진은 중국의 고도 시안을 지키고 있는 병마용)



내가 섬기는 교회는 지난주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다. 예전에도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수련회였지만, 올해는 특히 힘든 훈련의 과정이었다. 갈라디아서를 깊이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세미나를 한 후에 시험까지 치루는, 그야말로 갈구는(?) 갈라디아서였다. 그 훈련 과정에서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다시 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첫째로 바울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유대교 선교사였다(갈5:11). 그는 유대교의 선교사로서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서 바울을 위하여 또 다른 준비를 시키셨다. 그것은 이방

을 받거나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만 준비된 선교사라고 말하기 보다는,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자신이 묵상한 사소한 그 어떤 것도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모난 부분은 모난 부분대로 쓰시고 아니면 다듬어 쓰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소리에 그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만다. 그렇다. 우리는 선교라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는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사울아!' 라고 부른 것은 구원의 부르심이며 두 번째 '사울아!' 라는 부르심은 사역에로의 부르심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과도 동일하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타오르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두 번 부르셨다. 첫 번째 모세를 부르심은 과거 40년 전에 애굽에서 노동 감시관을 죽이고 도망나온 모세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구원의 약속이며, 두 번째 부르심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는 사역에로의 부르심이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체험이야말로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로의 부르심을 입고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셋째로 선교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그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뜻이 계셔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있었고(롬 1:1), 자기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일을 위하여 택정

# 우리의 선배 바울을 바라보며

전준식 목사

인의 문화를 체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렇다. 희랍 문화가 지배하던 당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쓰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대교에서 배운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열심만으로는 부족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하나로 사울을 준비시키셨고, 그 당시의 정치적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게 하신 것이다. 또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성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나누게 되었다.

이런 바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신학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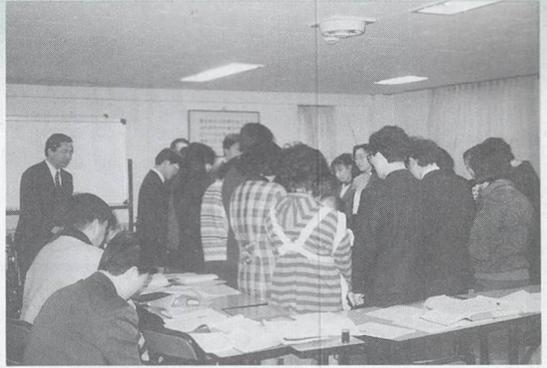
함을 입었노라(갈1:15)고 고백하였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혈육과 의논하거나 먼저 된 사도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갈라디아서 1:16~17에서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전략을 누구와 의논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과 의논했다고 볼 수 있다.

목회에 절대적인 방법이 없듯이 선교에도 절대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늘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전략을 살펴보면, 그가 개인적인 목상을 통하여 선교 전략을 정립하고 사역을 감당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복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의 나라의 문화를 그 문화에 그대로 이식시켜 놓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그 곳 문화에 함몰되어 나중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변질될 수도 있다. 결국 바울이 그토록 분개했던 갈라디아교회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된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다.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었으나(롬

바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3:2), 복음에 대한 열정은 민족에 대한 열정보다 훨씬 앞섰다. 바울이 감옥에 가셔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 때문이었으리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비전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방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바울의 비전을 성령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오히려 성령님은 바울에게 유럽을 보게 하시고 밝게 하셨다. 그로 인하여 복음은 유럽을 거쳐 서진하면서 우리 나라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무엇인가? 나의 비전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특히 이슬람권은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와 정반대 방향으로 동진하며 중앙아시아를 점령했다. 그렇다. 우리는 바울의 후배들이다. 우리도 바울처럼 서울에서 다시 서진을 하자.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나가자. 그래서 중국을 주께로 돌리고 중앙아시아를 주께로 돌리고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성령집회를 여는 그날을 위하여 헌신하자.

전준식 / 신림교회 목사

# 절망을 이기는 기상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 26: 46)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에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절망해 버렸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한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 애써봐야 헛일이야' 라고 푸념한다. 만약 이런 류의 절망이 예외적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펍 자주 대하는 인간의 평소 경험이다. 우리들이 황금같은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할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아 절망의 심연으로 침잠되고 만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은 자라.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다. 네가 다시 붙잡을 수 없으니 일어나서 다음 일을 하라"고 하신다. 과거는 잠들게 하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자게 하라. 그 다음 주님과 함께 필연코 닥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

절망의 경험은 누구든지 지나가게 된다. 우리들은 스스로 자신을 일으키지 못한다. 주님의 제자들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오류를 범하였다. 예수님과 함께 밤을 지켜야 할 때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절망을 극복해 주기 위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 오셔서 "일어나서 다음 일을 하라"고 하셨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다음 일은 무엇이겠는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구속을 반석으로 삼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실패감이 당신의 다음 일을 막지 않게 하라.

이 글은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출판한 오스왈드 챔버스 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 특집 중국교회의 이단과 극단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단은 교회에 큰 해를 끼쳤다. 사도들은 이단에 대해 전력을 다해 꾸짖었으며, 결코 그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단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오늘날의 중국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니며, 이단들의 수도 많고 발전 속도가 빠르며, 교회와 신도, 심지어는 비신도들에게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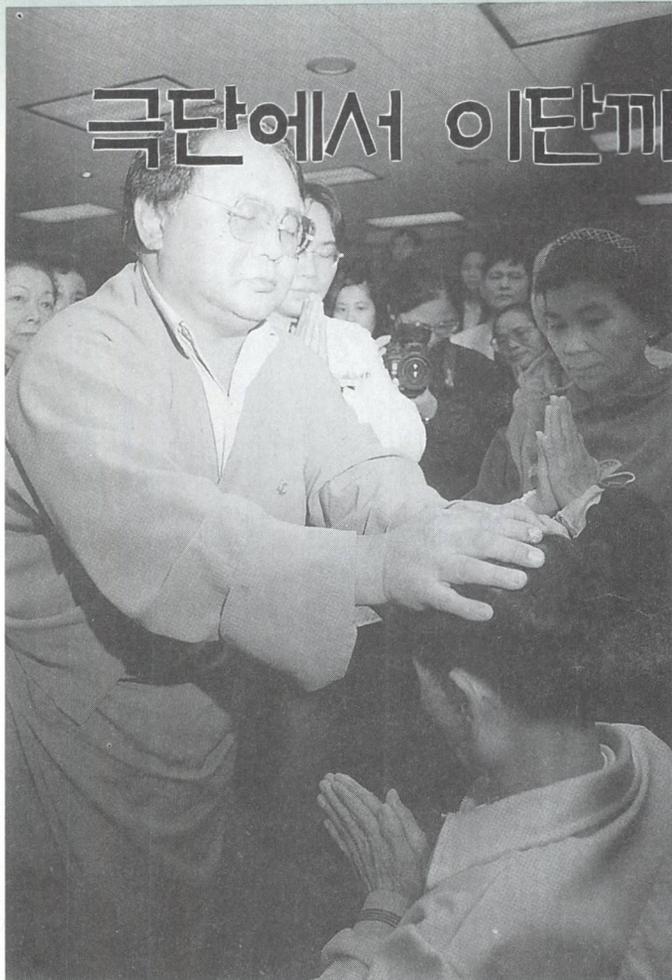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이단과 극단을 나누어 보는 한편, 이단의 형성원인 피해상황, 이단의 활동에 따른 각종 반응들, 그리고 이단에 맞설 전략을 분석하며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 ◎ 편집자 주

1. 인명, 지명, 이단의 명칭 등 고유명사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원음에 충실하게 표기하되,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고, 파이(派)나 후이(會) 등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파' '회'라고 하였다.
2. 고유명사라 해도 지나치게 장황하여 독자가 읽고 기억하기에 번거롭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중국어 표기를 자제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되 한자를 병기하였다.

# 극단에서 이단까지를 말한다

허러성(何樂生)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성경 이외의 권위

이단의 특징은 성경 이외에 다른 서적을 더하여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에 대한 해석을 교회의 권위로 내세우기도 한다. 또 성경의 구절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자기의 의로 삼으며, 심지어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 2. 행위를 강조

사람의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그 교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구원이 있음을 선포한다.

## 3. 유아독존

대부분의 이단은 모두 자기 교파를 강조한다. 그 교파에서 내세운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교회의 교리는 모두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특수한

중국 교회에서 이단들의 부흥과 발전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이러한 이단들의 횡횡은 중국 교회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국 교회는 사역자와 경건서적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사역자의 부족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소홀하게 하며,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만으로는 신도를 잘못 인도하기 쉽다. 그리고 경건 서적이나 훈련 교

재의 부족은 설령 지도자라 해도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어려움을 준다. 게다가 어떤 지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압박이 심해서 신앙활동은 종종 제한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신도들은 기본적인 양육도 못 받게 되어 이것 또한 이단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다.

## 이단과 극단의 특징

대륙에 유행하고 있는 주요 이단과 극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단들은 도리어 종말의 때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 4. 개인 숭배

지도자 개인의 이론, 지위를 높이 받들며 심지어 그리스도를 대신하기도 한다.

#### 5. 종말론을 왜곡

과거 수많은 이단은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이나 세기말적 종말론을 강조하여 왔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단들은 도리어 종말의 때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신도들이 소유를 완전히 팔아 바칠 것을 요구하며, 심지어 '어떤 지방에 가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자'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2차 재림' 등 말세론에 대해 성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단과 극단의 내용 및 발전

1992년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9

종의 이단교파가 여전히 현재도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 교회에 영향을 주는 이단(異端)과 사교(邪教)중 비교적 큰 것이 십여 개가 있다. 지면 관계상 최근 중국 교회에 비교적 심각한 영향을 주는 '후한파(呼喊派)'와 '빼이리왕(被立王)', '토론토의 복(多倫多之福)' 및 '동방에서 나온 번개(東方發出的閃電)'의 내용과 발전 상황을 소개하겠다.

'토론토의 복(多倫多之福)' 외에 3개 과는 모두 중국 본토에서 생겨난 이단이지만, '후한파(呼喊派)'와 '토론토의 복(多倫多之福)'은 해외에서도 오랫동안 교세를 확장시켜 왔다. 그런데 '후한파'와 '토론토의 복', 이 두 교파가 해외에서 교세를 확장할 때 교리의 특성을 평가해 본다면 중국 대륙에서 교세를 확장시킬 때의 교리상의 특성과 완전히 다르다.

#### 1. 후한파(呼喊派)

후한파는 80년대 발전하기 시작한

교파이다. 그들은 집회 때 항상 큰 소리를 외쳐서 '후한파'라고 불리게 되었다. 후한파는 96년 중국 당국의 '연타(嚴打)'에서 주로 단속 대상이 되었던 이단이다.

'후한파'는 먼저 삼위일체(三位一體)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서 출발한다. 리창서우(李常受-후한파의 창립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변형된 한 형상이며, 성령 또한 예수님이 변화된 것으로 여겨 하나님은 결코 셋이 아니라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골로새서 1장15절에 의거하여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의 하나이며, 일찍이 사단에 의해 그의 육신이 점령당했다고 본다. 또한 그는 천당(天堂)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반드시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자는 오직 영(靈) 안에서 생활하면 된다고 가르쳤다. 일찍이 전도지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리창서우(李常受)이다'라고 써서 배

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분명히 기독교의 교리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도가 뒤따르고 있으며, 관련 당국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며, 화둥(華東)지역 일대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 2. 빼이리왕(被立王)

80년대에 후한과의 집회에 참여하여 체포된 적이 있는 우양밍(吳揚明)에 의해서 창립되었다. 그는 1988년 스스로 당파를 세워 누가복음 2장 34~35절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빼이리왕(被立王; 세워진 왕)’이라고 칭하였다. 그는 예수는 이미 죽었으므로 하나님은 이미 다른 한 왕을 세워 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는데,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선포했다.

이 ‘빼이리왕’과는 안후이성(安徽省)이 주 활동 무대였으나 지금은 이미 29개 성시, 자치구, 232개 현에 세운 500여 개의 활동처가 있을 만큼 널리 퍼져 있다. 그는 예수는 이미 죽었고 단지 ‘빼이리왕’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고 선포할 뿐 아니라 신도는 반드시 교회에 갈 필요는 없고 단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빼이리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세계 종말에 이르러 ‘빼이리왕’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다. 이러한 진실에서 벗어난 교리 외에도 그는 종교라는 허울을 핑계로 부녀자를 간음하고 아울러 신도들이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헌납할 것을 요구했다. 우양밍 본인은 이미 1995년 체포되었고 같은해 12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 3. 토론토의 복(多倫多之福), 거룩한 웃음(聖笑)



베이리왕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베이리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원래 캐나다 토론토의 기독교 선교 단체 중의 하나인 ‘포도원의 성령추구파’였으나 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토론토의 복’은 70년대 말에 생겨나서 지난 2, 3년 동안 크게 성장하였다. 그들은 직접 ‘성령 받은 자는 웃는다(聖笑)’라는 가르침과 행위를 중국대륙에 가져왔다. 동부와 해남도는 모두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깨어지거나 죽는다’고 주장하며, 성령이 임재할 때 사람이 깨어지게 되므로 미친듯이 웃고, 울고, 방언을 말하고 몸을 떨거나 인사불성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안수기도를 통해 ‘은혜의 기름부음(恩膏)’을 남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으로, 집회 중 하나님과의 접촉과 성령에 의한 깨어짐을 강조하지만 회개에 대한 가르침은 중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때에는 단지 미친듯한 웃음 소리와 혼란한 몸의 떨림만이 있을

뿐이다.

## 4. 동방에서 나온 번개(東方發出的閃電)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성장이 비교적 빠르고 영향력이 비교적 큰 이단 교파로 알려진 이 교파의 신도는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광둥(廣東), 푸젠(福建)에 널리 퍼져있다. 최근 홍콩에도 이 교파의 신도와 접촉한 사람이 있다. 그들은 비록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자신들만의 경전(經典)인 ‘동방에서 나온 번개(東方發出的閃電)’와, ‘육체로 나타난 삶(活在肉身顯現)’이 있고, 자신들의 찬송가인 ‘하나님 나라의 찬미(國度的讚美)’도 있으며, 또한 전도용 소책자인 ‘새로운 소리(新的發聲)’도 있다.

‘동방에서 나온 번개’는 특히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또 다른 한 분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포교하고 있다. 그들은 이전의



이단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도록 잘 양육해야 한다(사진은 내용과 무관).

그리스도는 남성 형태의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하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며 부활이 없다고 선포했다. 또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인용하여, 인자가 강림할 때 번개와 같은 것이 동방에 강림한다고 말했다. 또 이사야서 41장 2~4절에서 4절을 인용한 ‘동방의 한 사람(東方一人)’이라고 표현된 것은 중국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서 31장 22절 중의 ‘자녀(女子)’는 두 번째 육신으로 오신 ‘여자 그리스도(女基督)’이며 현재 허난지역에 살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도는 이미 강림했고 이로써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은 이미 실현되었으며 은혜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현대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대(國度時代)’라고 믿는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그리스도는 이미 두 차례 인간에게 강림하셨고 성경의 말씀은 이미 시대와 맞지 않고 성경 저자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어서 신도들은 다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외쳤다. 그들이

기독교에 반대하는 것 즉 성경은 믿는다면서 예수가 이미 세상에 재림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 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회개하라고 외친다.

이 밖에 그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개체 곧 영이라고 여긴다. 또 이 신은 감정이 없고,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여긴다. 그들은 기적과 기사가 신도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동방에서 나온 번개’는 교리상 비교적 전면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성경과 기독교서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의 선전은 진실한 기독교인을 손쉽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것 역시 ‘동방에서 나온 번개’가 발전이 비교적 빠

르게 그 영향력을 떨칠 수 있게 하는 원인이다.

## 결론

이상 4개 과의 이단과 극단의 분석은 대륙 본토의 특수한 종교 상황과 중국 교회에 대한 잘못된 문제를 규정하여 만들어낸 보도이다. 오늘날 대륙은 여전히 이단이 많이 떠돌고 있다. 최근 이단의 신도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 사역자들이 부족하기에 빚어진 부정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교리가 비교적 강한 신도 단체에서는 이단의 출현과 공격할 틈이 자연적으로 줄어들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있을 뿐 그들을 잘 양육할 사람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이단들로 하여금 그 활동영역을 넓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이단에 대한 방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守望中華 第138期  
허러성(何樂生)/ 중국 사역자  
번역/ 전은정 · 중국어문선교회 간사

# 이단도 가지가지, 이것이 이단이다

메이펑즈(梅增知)



지 구별이 안 가는 논리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교회마다 이단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리어 이단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게 되었다.

1. 각 교파들마다 신앙의 기준과 요구상황이 조금씩 다르며,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도 조금씩 다르다. 기본신앙에 충실한 교파일수록 신앙 판단 기준이 엄격하고 세밀한데, 여기에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각 목회자마다 사람들에게 대한 포용력이 다르고, 성도들에게 이단 식별방법과 거짓 선지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대륙과 해외의 성도들 간에 이단을 식별하는 것도 큰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대륙** 교회가 많은 환경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 때, 이와 동시에 이단들의 활동 또한 기생충같이 오랫동안 교회를 어지럽혔다. 우리는 일찍부터 성경의 경고하심대로 먼저 성도의 진실한 말씀(道)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왔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께서 교회 일꾼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륙에서 영향력이 비교적 큰 이단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존

재했던 것도 있고, 근래에 와서(70년대 이후)야 생성된 것도 있다. 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수법들은 성도들의 심리적 연약함을 공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미혹으로 인한 혼란은 심각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후자의 이단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았다.

## 이단의 정의

몇몇 매우 황당무계한 주장을 일삼는 사교집단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이단들의 이론은 진실인지 거짓인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데, 동베이, 화동의 농촌지역에서 '참서우'를 '주(主)'라고 부른다.

모두가 쉽게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에 대한 평가는 해외성도들과 중국 대륙성도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해외의 성도들은 이러한 이단들의 도전에 직접적으로 마주칠 필요가 없고, 피해를 입지 않는 데 반해, 대륙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울어야 구원의 받는다고 주장하는 '쿠중성(哭重生)파'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다. 유사한 상황을 바꾸어 설명하자면, 대만의 신약교회(新約教會)가 대만의 각 교회로부터 받는 평가와 중국대륙의 성도들이 그들과 접촉한 후에 받는 인상은 큰 차이가 있다.

4. 같은 이단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그 추종자 간에도 서로 다른 주장과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후한파(呼喊派)' 중 몇몇 큰 도시 내에 있는 추종자들은 이 교파의 잘못된 교육만을 받아 들이고 있다. 동베이(東北), 화동(華東)

지역의 빈곤한 여러 농촌에서는 '참서우(常受)를 주(主)님으로 부르면서, 그가 바로 살아 있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단계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

5.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다양한 것처럼, 이단 추종자들이 이단을 추종하게 된 계기 또한 다양하다. 그들 가운데 열정적으로 따르는 자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들 추종자들을 대해야 할까? 그들이 이단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우리들은 쉽게 추종자들과 이단을 구별하여 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단 교리를 숭배하고 그 교리를 대표하는 사람과 맞부딪혔을 때는 그야말로 무장된 적군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단을 식별하는 기준

우리가 이단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 말할 때, 종종 몇몇의 점쟁이식

의 종교 사기꾼을 포함시키지 않지만, 그들은 그 영향력이 광대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교리상 스스로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비교적 완전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단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는데, 치우친 진리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특수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특정한 것을 강조한 후에 그것을 그들 특유의 요구와 엉뚱한 논리의 중심으로 삼는다.

2. 조직적으로 동조자들을 끌어들여 파벌을 형성한다.

한 교파가 갖고 있는 특징을 다른 교파와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이 파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자를 무정하게 공격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고립시킨다.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파에 가입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3. 이단은 모두 한 명의 교주를 가지고 있다.

교주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것이 이단의 핵심이고, 이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 다른 형식의 이단 표현

1. 완전히 성경을 배제하고 단지 “하나님” “예수” 등의 몇 가지 성경 내의 명사와 문장만을 빌려쓴다. 이런 종류의 이단은 비교적 식별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무리를 짓고, 동맹을 조직하는 원시집회 형식은 오히려 농촌의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 매우 큰 흡인력을 가진다.

2. 그들은 성경의 한 부분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도를 대신한다.

실제 나타나는 효과를 중시하고, 빨리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시대에, 이와 같은 그릇된 논리는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공격할 수 있다. ‘후한파(呼喊派)’, ‘쿠충성과(哭重生派)’ 등은 모두 이런 특징이 있다.

3. 교주의 지위와 영향력을 높여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 놓고, 교를 가리켜 하나님(神)이라고 한다.

이런 종류의 이단은 성경은 잘못된 것이며, 성경을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인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좋아한다. 교주들은 대체로 이러한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몇몇 신도들이 그도를 따르게 된다. 거의 모든 이단 집단들은 모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4. 극단적인 영적인 은사는 극도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행위를 자주 행하며 그것을 주 활동으로 삼는다. ‘전예수자오후이(真耶穌教會), ‘링링교(靈靈教)’ 등이 이에 속한다.

5. 돈을 갈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이들은 항상 예수의 재림이나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신자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이단으로는 ‘산반푸런(三班僕人)’, ‘먼투회(門徒會)’ 등이 있다.

6. 점쟁이식 종교 사기꾼들은 재물을 갈취하고 음행을 일삼는다. 그들에게는 완전하게 정리된 계율체계가 없고, 다만 그때 그때 상황의 변화를 살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황당한 내용을 말하며 사기를 친다. 그들의 수법은 쉽게 드러나고 그 피해의 범위는 넓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신자들이 마음이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기 싫어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비슷한 수법을 반복해서 사용하여 무지한 사람을 속이고 있다.

### 이단이 자주 이용하는 수법

1. 먼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그들의 지지를 얻는다.

2. 진리 인식의 새로운 발견, 새로운 광명, 시대적인 이슈 등을 구호로 내세워 사람을 미혹한 후 추종자로 만든다.

3. 인간관계를 굳히고, “너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급히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을 받아들여도록 하라”고 자주 말한다.

4. 공허한 영적 어휘들을 사용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음으로써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오류에 빠지도록 만든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라”(딤후 2:15)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한다. 그들은 “말씀을 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만이 말씀을 해석 할 수 있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다.

5. 사람의 호기심과 누군가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먼저 작은 은혜를 베풀 후 압제를 시도한다. 예를 들면, ‘먼투회(門徒會)’ 혹은 ‘멍푸량(蒙福糧)’은 식사때마다 약 100g의 양식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한다(이 말은 곧 신이 축복해서 양식이 많아지게 한다는 것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 입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발을 빼기엔 이미 늦어버렸으므로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 그 모임에 끌어들임으로써 결국 그 이단의 성장을 돕게 되고마는 것이다.

6.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다. 그들은 주로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들은 또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경험을 걸어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며, 내적으로 경건



종교활동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제한적 환경이 이단들의 활동 온상이 되게 해 주었다.

한 것은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그것은 이미 거듭난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며, 소리를 지르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며, 단체로 춤을 추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7.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에게 는 구원이 없다며 영적인 것을 이용하여 위협 하거나, 무리를 지어 파를 분열시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인신공격을 한다.

## 이단이 성행하는 원인

1. 종교 활동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제한적 환경에서 교회는 단지 은폐 혹은 비공개적인 활동만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단들의 활동의 온상이 되었다.

2. 일부 공개된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단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공개적인 교회와는 구별됨을 자칭하고 나섰다. 그들은 또한 공개된 교회의 오류를 비판하면서 기본 진리를 부정하고, 이단사설로 미혹하여 신도를 증가시켰다.

3. 사회의 부패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현실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게 했고, 그들은 사회에 반역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했다. 따라서 그들은 과벌을 지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심리와 봉건식 기밀조직에 참여하려는 경향을 강화시켰다.

4. 이단의 거짓 선지자 대부분은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 그 활동을 벌인다. 특히 성도들 중에서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낮아 신앙심은 있으나 분별능력이 결핍된 자들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이단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심리에 알맞는 요구 조건들을 내걸었다. 그들은 신비하고 사이비적인 이론으로 사람들 가운데 쉽게 뿌리내려 발전하게 했다.

5. 중국 대륙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과거 일종의 "성경연대 분기법"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서기 2000년경에 재림하신다고 생각하였다. 최근 들어 적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가 모일(某日)에 재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세력을 쉽게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돈 또한 쉽게 갈취한다.

사회적 부패는 빈곤한 백성들이 변화를 원하는 마음을 더욱 흥분시키고 있다. 말세의 대재난과 주의 재림시 들려 올라간다는 소식은 바로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였다. 그래서 설령 예수재림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것이 여러 번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제목이고, 추종자들도 이를 좋아하고 있다.

출처/『守望中華』138期  
메이징즈(梅增知)/중국지역자  
번역/석은혜·본지 편집장

# 중국의 이단과 극단에 대한 분석표

## 1. 후한파

명 칭	후한파(呼喊派)
교리내용	예수는 피조물이며, 따라서 예수는 재림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도 사탄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神)은 세 분이 변해 한 분이 되셨지만, 삼위일체는 아니다. 천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 오직 리창서우(李常受)만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므로 그에게만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한다. 성경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다.
대 표	리창서우(李常受; 그는 원래 기독교 집회소 사역자였으나 현재는 그 모임을 떠났다)
전도활동	『주와 함께 살며』, 『신약의 봉사』,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와 같은 출판물과 영상, 음악 제품들을 다량 제작하고 있음.
시 작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분포지역	전국 각지에 분포. 주로 푸젠(福建), 난징(南京), 산둥(山東),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베이징(北京),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저장(浙江) 등지이다.
중요영향	96년에 정부에서 진행한 '엔다'(嚴打-집중단속기간)로 후한파를 단속했는데, 이 과정에서 순수한 많은 교회들이 연루되어 죄를 덮어 썼다.

## 2. 충성파

명 칭	충성파(衆生派), 쿠중성(哭重生), 아오후이파(懊悔派), 취엔관웨이(全範圍) 교회.
조 직	광야신학원, 생명회, 사역자회, 진리회
교리내용	집회시 이상을 볼 때까지 격렬하게 울어야만 한다. 그러면 흰 옷 입은 사람이 신자들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써 준다. 또 "소자야! 네 죄가 사하여졌다."는 소리를 들은 신자만이 진정한 죄사함과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3일 밤낮을 울면서 죄를 깊이 인식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생명회에서만 구원과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
대 표	쉬용지(徐永澤), 쉬용링(徐永玲) (오누이 관계)
전도활동	『십자가 구원의 은혜』, 『진리의 빛』, 『생명의 말씀』
시 작	70년대부터
분포지역	전국 각지 주로 허난(河南), 하이난(海南), 광둥(廣東) 등지이다.
중요영향	어떤 신자는 격렬하게 울어 눈이 붓고 목이 쉬며, 심지어 자기 몸을 학대한다. 금식하고 무릎에서 피가 날 때까지 꿇어앉아 있기도 한다. 대부분 신자들이 집회 및 전도 활동을 위해 기출하기도 한다.

### 3. 링링교(靈靈敎)

명 칭	링링교(靈靈敎)
교리내용	화(華)씨 라는 사람이 자신이 바로 구세주이며, 예수는 두 번째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화(華)씨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고 성령충만함을 구하며, 영가를 부르고 영무를 주며 방언을 말하고 영적 세례를 받아야 한다. 1월 17일을 성탄절로 바꾸어 지내며 물세례와 성찬식을 폐지한다. 오로지 계시록과 종말론, 대제년에 관해서만 설교한다. 그리고 생산활동은 하지 않는다.
대 표	화취상(華雪尙; 원래 장쑤(江蘇)성의 초등학교 교사)
시 작	1989년부터 지금까지
분포지역	전국각지. 주로 장쑤(江蘇)성, 허난(河南)성 등지이다.
중요영향	영적 세례식 때, 영가를 부를 때, 영무를 출 때 사악한 영의 침입을 자주 당하고 있다. 많은 신자들이 귀신을 보며, 괴이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귀신들림을 당한다. 신자들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을 남김없이 헌납한다.

### 4. 산반푸런파(三班僕人派) 또는 따샤오푸런파(大小僕人派).

명 칭	산반푸런파(三班僕人派) 또는 따샤오푸런파(大小僕人派).
교리내용	'산반푸런파'가 모든 진리를 갖추고 있다. 지도자는 '따푸런(大僕人-큰 종이란 뜻)'으로서 그만이 유일한 선지자다. 자신을 모세나 다윗으로 비유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믿지 않는다. 만약 '산반푸런파'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신자들의 헌금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다. 신자들은 '큰 종'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성찬식과 경배와 찬양을 반대한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 좁은 문은 가정교회이며, 삼자교회는 큰 문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혼인을 금지하고 부부는 별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 작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분포지역	전국 각지
중요영향	신자에게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다. 심지어 금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다.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를 파괴한다.

### 5. 먼투회(門徒會) 또는 멩푸파(蒙福派), 일량량(二兩糧).

명 칭	먼투회(門徒會) 또는 멩푸파(蒙福派), 일량량(二兩糧).
조 직	대회, 분회, 소회 등이 만들어져 10~2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리내용	'산수(三贖)'는 예수님, '쉬수(許贖)'는 성령이라고 자칭한다. 이들은 주 안에서 부부이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며, 성경 속에 나오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이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며, 구약의 사랍다 과부가 가진 약간의 밀가루와 소량의 기름을 강조한다. 오병이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오병이어가 복받는 기준이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신자는 매끼 소량의 밥을 먹어야 한다. 발효 음식을 먹을 것을 강조하고, 만약 쌀밥을 먹기 원한다면 더 많은 복을 받도록 구해야 한다. 재림의 날을 함부로 추측하고, 물세례는 반대하고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신자들은 불 속을 걸어야 하며, 어린아이도 타오르는 불 속에 던진다. 신자들의 범죄행위는 기록으로 남겼다가 '산수(三贖)'에게 건네주고, 이것을 언약체에 보관해야 그들 이름이 생명책 속에 기록된다고 한다. 신자들의 성경읽기를 반대하며 '산수'가 쓴 원고의 복사물만 읽도록 한다. 신자들이 주님을 믿은 후 1개월 내에 최소한 10명을 인도해 그를 믿도록 해야 한다. 또 '산수(三贖)'가 준비한 훈련을 받도록 한다. 그는 또한 공안국을 성경에 나오는 황충(메뚜기)이라고 비유하며 정권과 사회에 대해 투쟁할 것을 주장한다. 병이 있어도 약을 먹지 못하도록 한다.

대 표	산수(三贖), 쉬수(許贖) (두 사람은 부부관계)
전도활동	『불타는 가시나무』, 『동양의 풍습을 배격한다』, 『자상한 어머니의 사랑』, 『빛나는 영적 투쟁의 길』 등
시 작	1982년부터 지금까지
분포지역	전국 각지.
중요영향	신앙과 농업생산은 관계가 있으므로 많은 농민들이 그의 영향을 입어 교회가 분열되었다. 나중에 ‘산수(三贖)’가 체포되어 옥에 갇히자 그는 자기를 믿는 사람의 수가 다 차야 자신이 석방될 수 있다면서 그 때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관련된 집회활동은 여전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

## 6. 스투신신회(使徒信心會) 또는 완전한 복음(全備的 福音)

명 칭	스투신신회(使徒信心會) 또는 완전한 복음(全備的 福音).
조 직	피, 물, 성령, 전도단
교리내용	성찬식이 거행되기 전에 여러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신자가 죽은 후에 눈이 또렷하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 교파의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오직 피, 물, 성령만이 바로 완전한 복음이다. 사도들은 반드시 권력과 사람, 땅 등의 기본적인 것들을 소유해야 한다. 기도할 때는 ‘사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주장한다.
대 표	1. 상하이(上海) 청푸현(青浦縣) 스투신신회(使徒信心會) 모(某) 장로 2. 쭈오쿤(左坤: 원래 장루이이(江瑞儀) 신약교회 제자, 후에 스스로 사도라 칭함. 대만에서 대륙으로 왔다.)
시 작	1995년부터 지금까지
분포지역	전국 각지, 주로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이다.
중요영향	쭈오쿤(左坤)은 반동분자로 낙인찍혔다. 그는 신자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면서 신문사나 식당, 도자 기업 등 자신의 개인 사업을 위해 신도들을 억압해 왔다.

## 7. 동방의 번개(東方閃電派)

명 칭	동방의 번개(東方閃電派)
교리내용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가 변하여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 변하여 성령이 되었으며, 이 셋이 변하여 하나의 신이 되었다. 예수가 처음에는 남성의 몸으로 성육신하였다가, 두 번째는 중국에서 여성의 몸으로 성육신하였다.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로 오직 계명을 잘 지키고 여성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를 잘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전도활동	『육신으로서 나타나심』, 『동방에서 나온 번개』, 『나라에 대한 찬미』, 『새로운 목소리』
시 작	1994년부터 지금까지
분포지역	전국각지, 주로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안후이(安徽), 산둥(山東), 광둥(廣東), 푸젠(福建) 등지이다.
중요영향	‘동방의 번개’에서 출판된 책은 인쇄술이 세련되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대형 서적으로 그들은 이 책들이 성경보다 더 완벽하다고 하면서 초신자 지식인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또 정통 교회에서 많은 신자들을 끌어가고 있는데, 믿음이 어린 신도, 초신자,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 나이든 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자 끌어오기에 성공하고 있는 교파로 근래에 크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이다.

### 8. 토론토의 복(多倫多之福) 또는 거룩한 웃음(聖笑).

명 칭	토론토의 복(多倫多之福) 또는 거룩한 웃음(聖笑).
교리내용	성령충만을 구할 때 거꾸러짐, 거꾸러져 죽음, 미친 듯이 웃기, 울기, 방언, 몸 흔들기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으며, 안수기도를 하면 은혜의 기쁨이 신자에게 전해진다. 록큰롤 음악으로 경배찬양을 드리며 성경에 나와 있는 완전한 복음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대 표	원래는 '토론토 포도원 선교회'에 소속이었으나 지금은 그 선교회에서 배척당해 그 곳을 나왔다.
전도활동	많은 영화, 음악, 출판물 제작
시 작	90년대부터 지금까지(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로부터 전파됨)
분포지역	전국 각지. 주로 하이난(海南), 광둥(廣東), 푸젠(福建) 등지이다.
중요영향	교회분열을 조장하며 신자들은 록큰롤 음악에 맞추어 경배하고 성령 충만을 추구한다.

### 9. 빼이리왕(被立王)

명 칭	빼이리왕(被立王)
조 직	훈련반, 교제회. 또는 설낭낭(設娘娘; 어마마마), 대신(大臣), 황고(皇姑; 시어머니) 등의 직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교리내용	우(吳)씨는 자칭 '빼이리왕(被立王; 세움받은 왕)'으로 행세하며, 자신은 참 하나님이며 예수는 이미 지나간 구시대의 인물이다. 세계의 종말은 서기 2000년대에 오는데 그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그는 정권 장악을 원하며,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했다. 신자들은 수입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바침으로써 재산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육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여신도는 자신과 결합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왕에게는 황후가 60명, 비빈이 80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조직에 가입한 부부들은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아직 미혼인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 자신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대 표	우양밍(吳揚明; 자칭 빼이리왕(被立王), 원래 안후이(安徽)성의 농민) 수(舒)○○ (상하이 우두머리, 원래 송장(松江)현의 삼자교회 교인, 화동신학원 훈련반 졸업생)
전도활동	'교회가 새 이름을 가짐' 등 소책자 383권과 공개서신
시 작	1988~1995년
분포지역	전국 29개 성시, 232개 현, 500개 장소. 주로 상하이(上海), 안후이(安徽), 광둥(廣東) 등
중요영향	모두 30여만 원의 인민폐를 사기치고, 100여 명이 넘는 여성을 강간했으며, 263명의 취학아동이 학업을 포기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전재산을 탕진하고 그를 따라 산과 들을 떠돌며 승천하기를 기다린다. 적지 않는 가정들이 파괴되었다. 상하이시에서만 10여 개소, 3백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는데, 그중 60여 명은 '영적인 이름'(靈名)이라 하여 새 이름을 받기도 했다. 그는 또 마음대로 신자를 구타, 체벌, 감금한다.

### 10. 판우공용파(凡物公用派)

명 칭	판우공용파(凡物公用派)
조 직	관리인, 천부장, 백부장의 직책을 세워놓고 또한 50만 명의 정예병을 세우려고 한다.

교리내용	양(梁)씨는 자신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신이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한다. 또 스스로가 구세주이며 인간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독사, 맹수를 이용해서 인간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어떤 지정된 곳으로 가서(즉 광저우(廣州)를 말함) 재난을 피해 방주로 들어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방주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신자는 결혼(즉 제비를 뽑아 결혼하는 것)을 해야만 방주로 들어갈 수 있다. 1994년 8월 28일이 세상 종말의 날인데 그 때에 화성이 지구와 충돌할 것이며, 이 때가 되면 구세주(양씨를 말함)는 승천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만약 신자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멸망하게 되므로 신자들은 재산을 팔아 양씨에게 바치고 방주로 들어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대 표	양자예(梁家業; 원래 강제 노동에 의한 사상범)
시 작	1992~1994년
분포지역	광시(廣西), 산둥(山東) 등지
중요영향	양(梁)씨는 신자들을 어린이, 청년, 노인 등으로 연령층을 나누고 다시 그들을 한 무리씩 나누어 광저우(廣州)시 교외와 판어우(番禺)시 교외에 있는 산꼭대기에 장막을 배치했다. 1995년 4월에서 7월에 걸쳐 광시(廣西)지구에서 약 237가구 750명이 그를 따라 나갔고, 이로 인해 미취학 아동 263명의 어린이가 배움의 기회를 잃었다. 또한 적지 않은 청년들은 “우리는 일 해야 한다”는 핏말을 듣고 일하러 나가 일해서 번 돈은 전부 양(梁)씨에게 바쳤다. 이렇게 하여 양씨는 인민폐 30여만 원을 갈취했다. 또한 그가 주장한 ‘제비를 뽑아 배우자를 정하기’는 근친상간 등의 부작용을 만들어냈다. 1994년 8월 2일 그는 사형언도를 받았고, 그를 따르던 한 사람은 10년을 선고 받았다.

## 11. 링수이교(冷水教)

명 칭	링수이교(冷水教)
교리내용	병이 나도 약을 먹지 말고 기도하고 냉수를 마셔 병을 치료하도록 한다. 농약 사용을 금지한다. 성경을 읽다가 ‘수이(水; 물)자가 나오면 멈추고 성령의 특별계시를 받도록 한다.
대 표	우환신(吳煥新; 원래 안식일 모임의 러수이(熱水; 뜨거운 물) 장소의 책임자)
시 작	1988~1991년
분포지역	광둥(廣東)성
중요영향	31개 교회당, 10여 개의 집회소를 세우고, 1천여 명의 신자들이 있다. 신자 중 4명이 병이 났으나 치료를 못 받고 사망했으며, 많은 토지가 병충해로 인해 훼손되었다. 우환신은 1991년에 체포되었고 집회 장소도 폐쇄되었다.

## 12. 허난(河南)성의 집단 승천사건(昇天事件)

명 칭	허난(河南)성의 집단 승천사건(昇天事件)
조 직	대신(大臣), 국왕 등의 직분을 두고 있음.
교리내용	닝(能)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며, 신자들을 데리고 허난성 통보산(桐柏山)으로 들어가 승천하기를 기다린다.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길 기다려야 한다.
대 표	닝춘화(能春華)
시 작	1989년
분포지역	허난(河南)성
중요영향	1989년 허난성 통보산에서 집단 자살극을 벌였다. 신자들은 단체로 독주와 농약을 마시고 승천을 기도했는데, 그 중 몇 십 명은 즉시 제지당해 무사했다.



'링수이교'는 병이 나도 약을 먹지 말고 기도하고 냉수를 마셔 병을 치료하도록 한다.  
또한 농사를 지을 때 농약 사용을 금한다.

### 13. 광시(廣西)성 루씨이(鹿寨) 방주 사건

명 칭	광시(廣西)성 루씨이(鹿寨) 방주 사건
교리내용	루(陸)씨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으며 예수님이 자기에게 방주를 만들어 세계 종말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가 재난을 피하도록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천당에 가서 커다란 금불상 하나를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신자들이 그녀의 몸을 만지게 되면 병고침의 능력이 자신의 몸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대 표	루원즈(陸運芝) (여성)
전도활동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책(蓋能書)』, 『복숭아꽃 책(桃花書)』
시 작	1989년
분포지역	광시(廣西)성

출처 『守望中華』 제138期

황언취(黃恩炬) 중국사역자

번역 손바울 · 중국어문선교회 간사

# 교회의 사각지대에서 날뛰는 우는 사자들

황언취(黃恩炬)



## 이단의 파벌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비교적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단은 약 10개 정도인데, 광저우(廣州)의 따마잔 교회의 린셴가오(林獻羔)가 집필한 『중국의 이단』(靈音小叢書56)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단의 파벌은 11개이다. 앞 문장의 표 「대륙의 이단과 극단 분석」에서는 매우 영향력있는 교파가 13개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 중 1~8항의 교파는 영향력이 전국적·장기적이며, 9~13개의 교파는 비교적 단기적이어서 어떤 것은 1년 정도만 되면 곧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파벌의 대표 인물들이 이미 체포 혹은 판결을 받고 그 집회활동도 단속을 받았지만, 관련된 종파활동은 아직도 중단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빼이리 왕(被立王)’과 ‘령수이교(冷水教)’ 등은 여전히 소수의 신도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이단과 극단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같은 파벌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명칭을 갖고 있으므로, 밝혀지지 않고 잠재

## 발전조건

중국의 이단전파는 그 뿌리가 깊은 데다 매우 광범위하며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이단을 제압하여 그 위험과 폐단을 방지하는 것이 오늘날 중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이단의 성립요인과 그 영향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역사적 요소와 발전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 유입된 것과 본토에서 파생된 것,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본토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있고, 또 오직 본토에서만 이단으로 판정되고 해외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해외에서는 이미 오랜 발전을 거듭했는데 중국에 유입된 이후 오히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또는 개인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편향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면 단지 점쟁이들이 돈으로 속임수를 마구 쓰는 것 등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허난성은 기독교인의 수가 가장 많은 성이면서 또한 이단들의 영향력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기도 하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되어 있는 이단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극동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96년 3월~8월까지 중국에서 보내 온 편지 127통 중에 30개의 이단과 별이 언급 되어있다. 어떤 성(省)은 다섯 개가 넘는 서로 다른 파벌의 이단이 출현하기도 한다고 한다. 허난(河南)성은 기독교인의 수가 가장 많은 성이면서, 또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이단들의 영향력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기도 하다.

## 이단의 폐해

### I. 사회적 측면

#### 1. 사회 및 생산의 파괴

많은 이단들이 노동 생산을 반대한다. '링링교(靈靈教)'는 생산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농약을 쓰지 않아도 천부께서 돌보신다'고 주장한다. 윈난(雲南)의 '헝니파(恒尼派)' '령수이파(冷水派)' 등도 역시 농약 사용을 금하여 대량으로 농토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먼투회(門徒會)'는 신도들에게

단지 그 해의 수확량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만 하고, 생산 활동을 일절 금하고 있다.

'삐이리왕(被立王)'은 신도들이 밭을 경작하지 못하게 하고, 일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자녀들을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여, 263명의 아동들이 퇴학을 당했으며, 20여 명의 다른 성에서 온 추종자들은 머물 곳이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윈난의 '헝니파(恒尼派)'에는 다섯 가지의 금지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는 사람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돈을 사용하지 못하며,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고 가족계획을 금지하는 규정이 들어 있다.

#### 2. 정부에 반대하는 선전

'스투신신회(使徒信心會)'의 '쭈어쿤(左坤)'은 사도의 직분자는 반드시 정권·인민·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후한파(呼喊派)'는 '중국인민의 정권은 리창서우(李常受)에게 주어야 한다'고 선포했다. 그런가 하면 '삐이리왕(被立王)'은 공공장소에 보낸 공개

편지에서 '각 사람들의 진짜 적은 공산당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정부에 반대하는 행위는 이 교파와 그 대표가 반동조직 혹은 반동분자로 보이게 함으로써 심한 타격을 받게 한다. 또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정부요원들은 모든 종교의 활동이 모두 반정부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심한 통제를 하는데, 이는 결국 기독교의 발전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1996년엔 '엔다(嚴打:중국 정부의 집중단속-역자 주) 기간에 '후한파(呼喊派)'가 타파의 초점이 되었고, 동시에 많은 정통 가정교회들이 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 II. 교회적 영역

#### 1. 신도를 끌어들이고 교회 분열을 야기시킨다.

요즘 교회에 가장 강하게 '신도 끌어들이기'를 전개하고 있는 이단이 바로 '동방번개파(東方閃電派)'이다. 허난(河南)의 지체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들은 먼저 어떤 사람의 친척에

게 손을 뺐어 그의 친척, 친구들을 그 교파에 끌어들이고 있다. 그 다음 그 사람을 고립시켜 믿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다. 그래서 많은 신실한 사역자들이 그 책략을 당해내지 못하고 이 종파로 개종한다고 한다. 이들이 최근 광주우의 한 교회에서 '신도 끌어들이기'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

95년에는 두 명의 이 종파 신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사역자에게 '동방에서 나오는 번개(東方發出閃電)' 등의 책을 추천했으나 사역자들에게 거절당했다. 96년에 다시 이 교회에 와서 사역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교회 문밖에 대량으로 이 종파의 서적을 배포했다. 신도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서적들을 다 읽은 후에 좋다고 생각하였고, 교회로 돌아와서 사역자들과 이것을 나누었다. 사역자들은 비로소 이 사실을 폭로하여 즉시 강단에서 이것이 이단이라고 선포하고는, 신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이 서적들을 태워버릴 것을 호소하였고, 심방을 통해 신도들을 돌이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시내의 신도들은 모두 이단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교외 및 다른 성에서 온 신도들은 미처 권고를 받지 못하여 성 외곽에 이미 '동파(東派)'라는 집회장을 설립하기도 했다.

허난의 동역자들이 말하기를, Y 교회의 어떤 신도들은 그들이 주최하는 세례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중성파'의 신도들이 그들을 위해 세례를 주러 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Z 교회는 본래 수십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는데, '링랑교(靈靈教)'에 의해 흡수된 후에는 단지 두 명의 성도만이 모인다고 한다. 그 외에도



이단은 교회 질서 및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사진은 내용과 무관)

M교회 사역자들은 한 달에 두 번은 정통 교회의 집회에 가며 다른 두 번은 중성파 집회에 가는 등, 그 폐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까지 미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 교회 질서 및 이미지가 훼손된다. 허난 교회는 '링랑교(靈靈教)'를 포함한 모든 '링언(靈恩; 영적인 은혜)'이 나타내는 종파를 '링언파(靈恩派)'라 칭하고, 또 '링언파(靈恩派)'는 '타오우파(跳舞派)'라고도 칭한다. 지방의 '타오우파'는 '이신칭의(以信稱義; 믿음으로 의롭게 됨)'를 믿지 않으며, 방언을 말하고 영세(靈洗; 영적인 세례), 영무(靈舞; 영적인 춤)를 추고 영가(靈歌; 영적인 노래)를 부를 것을 주장한다. 그들이 집회할 때의 태도는 매우 난잡스러워 신장(新疆)에서는 일찍이 128명의 이 종파신도들이 길가의 큰 다리 위에서 공개적으로 영무를 추는 사건이 있었으며, 불신자들은 이를

보면서 '큰 공연을 한다'고 비꼬았다.

'중성파(重生派)'의 '성명회(生命會)'는 매번 집회기간이 3~7일이고 참석자는 중도에 자리를 떠날 수 없으며, 위생상태도 매우 형편없다. 신도들은 집회 때 큰소리로 울며 환상을 따르고, 눈이 붓고 목이 쉴 때까지 울기도 하고, 꿀은 무릎이 다 벗겨져서 피가 나기도 했다. 심지어는 자신의 얼굴을 때려가며 기도를 하였고 가슴을 치며 자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였다. 또 '추이성포(催生婆; 출산시 아이의 순산을 위해 굶을 하는 노파, 일종의 무당-역자 주)'의 역할은 옆에서 모든 죄상을 마구 지적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와 근친상간의 관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부인을 때리지는 않았는가 등, 억지로 신도들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함으로써 모임 장소의 질서를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

‘렁수이교(冷水教)’는 신도들에게 끓이지 않은 냉수만을 마시도록 가르치고, 신도들에게 밭에 물을 대되 농약은 뿌리지 못하게 하며 잔물로만 병을 치료한다. 이러한 이단들의 태도는 비신자들의 눈에, 모든 기독교는 점괘를 따르는 미신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국 이단교회를 통해 교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 III. 가정

‘빼이리왕(被立王)’은 여신도를 속여 그녀가 그와 결혼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1백 명이 넘는 여신도들이 강간을 당했다. 또 미혼자는 결혼하지 말고 부부는 성생활을 하지 말라고 주장해, 서로 다른 연령대의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집을 나가기도 했다.

‘산반푸런파(三班僕人派)’ 또한 결혼을 금지하며 부부가 별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판우공용파(凡物公川派)’는 제비뽑기를 통해 배우자를 정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단은 정상적인 가정 윤리를 파괴한다.

### IV. 개인

‘빼이리왕’은 마음대로 신도들을 때리고 가두고 또 여신도들을 강간한다. ‘충성파’는 환상을 볼 때까지 울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데, 환상이 보이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자살하는 신도들도 많다.

예를 들면 후난(湖南)의 린현(隣縣)에 사는 한 자매는 물에 빠져 자살을 했고, 후난 양뤄(陽羅)진(鎭)의 한 남자 신도는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 이것은 단순히 인명에 피해가 될 뿐 아니라, 신도들의 기독교에 대한 처음 신앙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또한 ‘후한파’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로지 기도만을 하도록 하고, 약의 사용을 일절 금한다. 그래서 이 교파에 이끌린 신도 가운데, 후난성에 사는 한 자매는 식도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여 회당에서 죽었다.

이렇듯 신유의 은사만을 주장하여 신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이단은 부지기수이다. ‘빼이리왕’ ‘판우공용파’

‘따샤오푸런파(大小僕人派)’ 등은 신도들의 전 재산을 헌금하도록 강요하는데, ‘빼이리왕’은 모두 인민폐 30만 원(한화 4천5백만 정도)을 속여 가로챘다. 또한 개인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재산을 빼앗는 것 외에도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빼이리왕’을 신봉하는 아이가 집에 돌아간 후 정신이상의 증세가 나타났다.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단의 ‘신자 끌어들이기’ 사건은, 오래도록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양들을 양육했던 사역자들에게 계속해서 사역하겠다는 의지를 잃어버리게 하였다.

많은 이단들이 신비주의적 경향을 드러내며,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듣기를 추구하여 쉽게 사악한 영이 침투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렁렁교(靈靈教)’의 많은 신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귀신을 봤으며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守望中華』 제138기  
황언궈(黃恩炬) 중국시역자  
번역 김요섭·자원봉사자

‘충성파’는 환상을 볼 때까지 울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데, 환상을 보지 못한 성도 중 자살하는 신도들도 많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 이단을 대적하자

황러링(黃樂靈)



발행'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고 또한 작자, 출판일자 등의 출처도 적혀있지 않지만, 편집과 인쇄가 뛰어나다. 예를 들면 『육체 가운데 살아서 나타남(活在肉身顯現)』은 모두 3권인데, 제1권이 121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동방에서 나온 번개(東方發出之閃電)』는 1책 473페이지인데, 책 속에는 25 구절의 성경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신앙서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책들을 신앙서적으로 여기고서 마치 보배를 얻은 것처럼 느끼며 기뻐했다. 중국 교회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단을 분별하고, 유행하는 이단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적 및 소책자를 출판했지만, 보급 실태는 아직 미흡한 형편이다.

**1. 중국 내에서의 공개적인 출판**  
중국 교회를 대표하는 월간지 <톈펑(天風)>은 근년에 다수의 글들을 발표했는데, 이단들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다. 후한(呼喊)파, 링링(靈靈)교, 범물공용(凡物公用)파, 령수

대륙에서 유행하는 이단은 매우 많은데 그 전파방법, 대상, 발전조건 또한 모두 다르다. 효과적으로 이단의 발생과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알고 남을 알아야 한다. 즉 이단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조건 및 현실적으로 지상 교회에서 부족한 점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측면에서부터 손을 써야 효과있게 제어하며 맞설 수 있다. 아래에는 여러 측면의 이단을 배척하는 전략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 I. 문화적 대응

보도에 따르면 대륙의 후한파는 취엔저우(泉州), 푸저우(福州)에만 있다고 한다. 96년에 잇따라 공안에 의해 30여 개 집회장소가 단속되었고 당국이 재산을 몰수할 때 다량의 서적과 녹음테이프를 수색해 냈다. 96년에 가장 왕성하게 전파된 이단인 '동방번개파(東方閃電派)'의 가장 상습적인 방법은, 정통기독교회에 이 종파가 출판한 서적을 배포하는 것이다. 이 서적들은 모두 '내부

이(冷水)교, 충생(重生)파, 먼투(門徒)회, 성명(生命)회, 빼이리왕(被立王)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비교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교파도 있다. 한 사역자는 전국의 양회(兩會: 삼자에국운동위원회와 기독교협회를 양회라 부른다-역자주)교회와 각지의 교회가 출판한 서적과 음향자료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신도들의 소양을 향상시켜 주는 것도 이단을 제어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하였다

## 2. 중국 내에서의 비공개적인 출판

따마잔교회는 연이어 “국내의 이단”(96년 2월), “중국의 이단”(96년 4월) 등의 책을 출판했는데, 11개에 달하는 이단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책임자 린센가오(林獻羔)는 특별히 ‘동방번개파(東方閃電派)’를 견지하기 위해, 96년에 ‘동방에서 나온 번개(東方發出的閃電)’를 반박하며’라는 글을 썼다. 그 의도는 『동방에서 나온 번개』의 오류에 대해 성경의 입장에서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이 서적의 대부분이 다른 성의 사역자들이 경험한 내용이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쓴 것이다.

또한 따마잔(大馬站)교회가 발행한 『중생과를 말한다』라는 책은 우루무치의 한 형제가 쓴 것이다. 이러한 이단에 대응하는 서적은, 다른 성의 사역자들이 말한 자료를 종합해서 쓴 것을 따마잔교회에서 인쇄한 후, 전국각지에 배포되었다. 따마잔교회는 최근 링언파, 후한파, 충성파, 빼이리왕, 동방번개파 등의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사역자들로 하여금 설교시에도 이 점을 유의하게 하고 서적을 통해 신도들을 준비시켜 이단을 분별하도록 하였다. 린센가오는 일찍이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한 그릇의 계란국에 단지 한 방울의 독약이 있어도 마실 수 없고, 한 장의 100원(元)짜리 지폐에 물이 번져 얼룩지면, 아무리 진짜 같아도 그것은 가짜이다. 이렇듯 이단 서적에 아무리 좋은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에 황당무계한 논리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이단이 확실하다”

그는 강단에서 이런 가르침을 강하게 설교할 뿐 아니라, 신도들로 하여금 이단이 전파한 서적을 모두 불살라버리도록 했다. 다른 성에는 이단을 방어할 수 있는 서적과 소책자를 받아 볼 수 있는 집회처가 많이 있는데, 현지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 그 현지의 방언으로 테이프를 제작하여 문화수준이 낮은 농촌신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해외문서출판

해외의 중국사역 기관은 대륙 이단의 폐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 교회의 요구에 상응하여 이단에 관련된 소책자와 테이프를 출판하였다. 홍콩의 모 기관이 출판한 『이단을 알자』라는 소책자는 대륙 신도가 쓴 글을 편집한 것으로서, 모든 책이 ‘산반푸런파(三班僕人派)’ 및 ‘먼투회(門徒會)- 혹은 ‘산수(三贖)라 함-의 신앙의 오류에 대해 깊은 분석과 함께 질책이 수록되어 있다.

극동방송 및 복음증주협회(CCL)가 합작하여 출간한 『이단과 극단』이라는 소책자는 극동방송의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쓴 것이다. 복음증주협회는 많은 이단과 관련된 소책자와 테이프를 출판했는데, 『이단에 대응하는 자원』이라는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4. 복음 방송

극동방송은 96년 11월에 이단에 대항하여 ‘진리의 가르침과 사역자 양육 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널리 알려서 중국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여전히 이단과 이교의 유혹 아래 있는 동포들도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다.

## 5. 성경 보급의 확대

중국 기독교 兩會는 비록 교회에서 1996년 말까지 17,980,920여 권에 달하는 각종 성경을 출판했지만, 성경은 여전히 부족하다. 많은 신도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몇 십원의 교통비가 없어 양회 판매점에 가지 못하고, 설혹 간다고 해도 매번 한 두 권밖에 사지 못하며, 또 어떤 이들은 공급이 부족하여 빈손으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한다. 때때로 어떤 신도는 성경을 사서 돌아온 후 당국에 의해 발각되어, ‘성을 넘어가서 사왔다’는 이유로 성경을 압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많은 신도들이 성경을 분책하여 전파시키거나, 성경 전체를 배껴 써서 읽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자매는 머리카락을 팔아 성경을 사기도 하였다.

이단의 생생 원인 중의 하나는 대륙에 성경이 부족하여 신도들은 이단 교주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쉽게 믿어버리는 것과, 소수민족에게 적합한 성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광서장족자치구 변경의 모 이단은 총의 2/3 신도를 미혹시켜 신봉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묘족어로 된 성경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1/3의 신도들에게는 그 성경마저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매우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헐뜯고 무시한다. 예를 들면 ‘후한파’에서는 ‘리창서우(李常受, 창시자의 이름)를 주(主)로 받들면서, ‘주는 이미 세상에 오셨고 그를 직접 대면할 수 있으니 더이상 성경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동방번개파(東方閃電派)’는 성경이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파 책략은 성경이 없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호소력이 매우 강하다. 양회가 앞으로 성경을 더욱더 많이 찍어내고, 소수민족에게 적합한 성경을 더 편찬하여 각종 이단에 맞설 수 있길 바란다.



성도들의 신앙 기초가 약한 데다가 목자들도 부족하여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가 이단의 미혹을 받는 주된 원인이 된다.(사진은 내용과 무관)

## II. 진리로 무장

신도들 자체는 기독교의 교리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형편이다. 신앙의 기초가 약한 데다가 목자들도 매우 부족하여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가 이단의 미혹을 받는 주된 원인이 된다.

### 1. 사역자의 훈련

양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1천여 명의 목사가 있으며 현재 교회에서 목회하는 신학대 졸업생이 2천7백 명이 있다. 상대적으로 양회 소속의 신도가 1천2백6십만에 달하고, 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신도가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 훈련 양식은 일대일 제자훈련, 개별 전통식 공동체훈련, 비공개적 신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임 사역자 훈련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은 비공개적인 경로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갖가지

제한을 받고 또 당국에 의해 저지당한다. 이단이 성행하는 주된 원인은 사이비 기독교와 사이비 목사들의 성행 때문인 것이다.

광저우시 삼자회는 링언과가 중산(中山), 쑹화(松花)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모든 광저우 지역 동역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적 이 있다. 그리고 허난성에서는 ‘36론’이라는 비공개적인 조직신학 훈련과정이 유행이며 매주 월요일에는 사역자회가 진행되고, 허난 각지에서 1천 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특별히 이러한 조직신학의 훈련과 이단대응의 연구, 토론, 훈련으로 새로운 세대의 목회자가 잘 훈련되고 또 각종 이단을 막아낼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 2. 완전한 전도

광저우 따마산교회의 사역자들이 나는 것에 따르면, 매우 많은 이단이 전파한 잘못된 교리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한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구원의 교리를 다시 일깨워 주고 기존의 신자들을 점검해 보고, 비신도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

또한 린셴가오(林獻羔)가 쓴 『영음소총서(靈音小叢書)』를 전도의 도구로 채택했다. 실제로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단이 발전하게 된다. 예를 들어 허난에서는 해외에서 유행한 어떤 전도방식을 도입했는데 그중에 ‘구원의 서약’ 부분이 왜곡되어 반드시 술을 마시며 서약해야 하는 의식이 되었고, 또 서약한 후에는 영원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의식은 강패 조직의 입회 서약과 비슷하여 이단교파의 하나처럼 보여진다.

### 3. 신도의 훈련

신앙기초가 있는 신도들을 잘 훈련시킨다면, 그들은 효과적으로 이단의 미혹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장쑤성 쑤이닝(睢寧)현의 교회는 현재 80여 개의 예배처로 발전했는데, 그들은 이단에 대항하는 대책으

로서, 조직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 다른 대상의 부흥회, 성경공부를 시행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형제, 자매의 마음에 새기게 해서 이단에 저항하는 의식을 강화한다. 산둥성 지링(濟寧)시의 사역자들이 밝힌 이단에 대응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모든 훈련에 참여한 사역자가 있는 곳에는 어떤 문제(이단)도 발생하지 않는다... 훈련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교회가 이러한 사업에 장기적으로 지원을 보내야 한다.”

또 교회는 전도 단체를 세워, 마을마다 하루나 이틀정도 머무르면서 인근의 신자들에게 설교를 해 줌으로써 이단을 제지하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III. 교회 사역

중국의 교회는 교회의 양육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단에 대항하는 좋은 대책이라고 본다.

#### 1. 서로 연합하여 이단의 침투를 방지하자.

장쑤성의 쑤이닝현 기독교회는 ‘연락원’ 제도를 세워 이단이 설 수 없게 했다. 그들은 일 주일에 한 번 각 교회의 연락원 모임을 가져 영성을 배양하며 주님이 각 마을 주변의 작은 모임을 인도하시도록 하고, 또 이단에 대항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실제로 교회간에는 긴밀한 연락, 협조가 있고 상설 사역자회, 연락원 집회 등이 있어서 그 지역 이단의 상황들을 토론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허난성에 ‘이단대 연합회(異端大合一)’라는 이단들의 연합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 충

성과(重生派), 후한파(呼喊派), 링링교(靈靈教), 산수(三贖) 등은 96년에 일찍이 연합집회를 주관했고, 정통교회 신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추겼다. 그런데 만일 정통기독교회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되지 못할 것이며, 어떻게 이단의 큰 연합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밖에도 보도에 따르면 ‘동방번개파’는 분열하려는 경향이 있는 교회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다고 하며, 먼저 분열하게 하고 난 후에 성도들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하나로 연합한 교회는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손도 내밀지 못한다고 한다.

#### 2. 경각심을 높이고, 사이비 가르침을 조심하라.

장쑤성 쑤이닝현 기독교회는 규칙을 세워, 외부에서 온 신원 불명의 전도자들이 함부로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찍이 어떤 전도인이 와서 ‘교회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 그 곳의 사역자들은 즉시 반박을 가했고 그가 설교하는 것을 정지시킨 후, 그를 즉시 떠나도록 하였다. 하이난(海南)섬의 어떤 교회는 매년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비공개적인 설교 훈련을 하게 하는데, 그 곳의 주요 사역자(한 연로하신 목사님)가 먼 곳에서 오셔서 우선 외부강사의 믿음과 덕을 자세히 확인하고 나서야 강의 및 설교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이단과 사이비 목사의 설교를 제지하자는 것이다. 허난성의 많은 교회는 모든 신도들이 이단 신도와 교류하지 말 것과, 이단을 단호히 배척할 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사실 교회내부에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면, 튼튼한 성벽이 세워져 이단이 흘러 들

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3. 심방으로 돌보며, 길 잃은 양을 되찾다.

‘동방번개파’는 오직 정통교회 종파에 서적을 배포하거나 성도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써서 정통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단이 유입된 이후, 즉시 적절한 수습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둥성의 어떤 교회는 동파(東派)가 유입된 이후, 곧 강단 설교를 통해 동파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에 현혹된 신도들을 질책하며 신도들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 책을 불살라버릴 것을 호소하였다.

신도를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방 사역이다. 심방팀이 자주 각처의 성도들을 심방할 때, 그 교회의 주요 사역자들은 “동파는 이단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여, 신도로 하여금 즉시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 양떼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의 심방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야 많은 이단에 의해 빼앗긴 신도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된다.

허난성에, 심방은 이단을 배척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예가 있다. 광둥성의 A형제는 B형제에 의해 양육되었다. 그런데 A형제가 허난으로 돌아온 후에, ‘링링교’ 집회에 참석하다가 다시 ‘충성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는 그 충성파에 자기 아들을 전임 사역자로 바쳤을 뿐 아니라, 자기의 10여 개의 방과 재산도 모두 바쳤으며 매월의 수입도 바쳤다.

B형제의 심방으로 A형제는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다. 처음에 A는 B의 방문을 거절했으나, 후에 B의 끈질긴 노력하에서 A는 B와 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시 만날 수 있었으며, 그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B는 그와 만난 후 몇 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곧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다. B가 A를 위해 기도할 때 A는 B에게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기도 한 마디 한 마디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B형제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A는 마침내 눈물을 흘렸고 A는 결국 감동되어 돌아왔다. 그리하여 모든 현금을 되찾고 아들도 되돌아왔다.

#### 4. 교회는 증거하며 무너진 곳을 막아야 한다.

많은 이단 교파들은 정통 교회에 반대하는데, 이것은 모두 교회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보여 주지 못하

기 때문이라고 한다. 허난성 구스(固始)현 일대에 약 3천 명의 신도가 단지 주일에만 모일 뿐이며 생활 모습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해, 그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Sunday Christian'으로 비유되었다. 또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의 모 교회 책임자는 교회를 '메시야센터'로 바꾸고 나이트클럽과 연회장소를 만들어 버려 많은 신도들이 실망하고 떠나갔다.

이 밖에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고 신도는 모두 떠나가 버린다. 매우 많은 신도들이 정통 교회를 떠난 이후 믿음을 버리는데, 심지어 성경을 불살라버리거나, 십자가도 내던져

버리고 성서를 찢는 등의 행위를 하며, 이단으로 개종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회와 신도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신도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을 수 있다.

지방에서 실행하는 종교 정책에는 수준 차이가 있어서 이단이 유행하는 지역의 당국자는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까지도 제한을 하게 된다. 교회는 주일이 아니면 집회를 가질 수가 없고, 전도자는 제한된 장소(교회당)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회를 잃게 되고, 곳곳의 예배처는 마치 이단들에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길을 터 놓은 것 같이 보인다.

#### IV. 결론

중국교회가 어떻게 이단 및 극단주의자들과 맞서 싸워나갈 것인가는 오랜 과제가 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지도자들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또 서로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이단 세력들을 분별하는가를 관찰하고 살펴볼 수 있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이단들과 맞서는 방법, 어떻게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해야 하는가 등의 세 가지 측면을 기초로 살펴 보았다.

우리는 이 일에 해외 신자들의 기도와 지원과 더불어 중국 성도들이 연합해 이단에 맞섬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이단들이 중국 땅에서 횡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다.

출처/『守望中華』 제138期  
황러링(黃樂靈)/ 중국사역자  
번역/ 장마리·자원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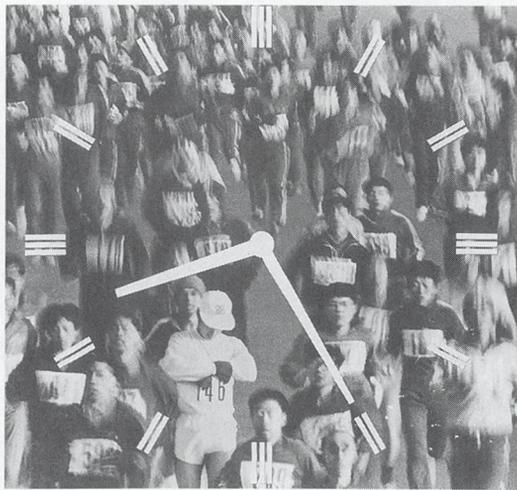
# 황제의 후손들

한국인이 단군을 섬기듯, 중국 사람들은 자신을 염제(炎帝)와 황제(皇帝)의 후손이란 뜻에서 염황자손(炎黃子孫)이라 하든지, 간단히 황제자손(皇帝子孫)이라 한다. 모택동이 살아 있을 때만 해도 대륙에서는 황제 운운하는 일이 적었는데, 덩소평(鄧少平)이 개방 정책을 펴면서부터 한편으로는 민족자부심을 고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각지의 화교와 대만, 홍콩, 마카오의 중국사람들에게 귀속감(歸屬感)을 주기 위해 중국 정부의 중용하에 이른바 뿌리찾기 사조가 파급되고 있다.

지금 중국 본토에는 12억의 중국인이 살고 있고 해외에는 약 3천만의 중국인이 살고 있는데, 이른바 황제 혈통(皇帝血統)이 있다는 사람으로 화교(華僑: 중국 국적 소유자), 화인(華人: 외국국적 소유자), 화예(華裔: 화인의 2,3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북경에서 출판된 《해외에 있는 우리 염황(炎皇)자손》이란 책을 보면 중국인들 중에서 가장 일찍이 외국으로 가서 화교가 된 사람은 바로 3천 년 전 상주(商周)시대 은주왕(殷紂王)의 삼촌 기자(箕子)가 왕의 박해에 못 이겨 조선으로 피신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다는 기사가 염황 자손 화교이니 해외로 간 중국인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뜻이었다. 현대에 와서 전 싱가포르 대통령 이광요(李光耀)가 화교이고, 필리핀 대통령 아키노의 부인이 외할아버지



가 화교라는 것은 세인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황제(皇帝)니 염제(炎帝)니 하는 씨족(皇帝는 姓이 姬씨고 炎帝는 姜氏다)은 어디까지나 한족의 조상이므로 중국에 사는 기타 55종의 소수민족(인구 7% 내외)이나 거주 면적은 중국 영토의 60%나 된다)은 염황자손 운운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나온 슬로건이 ‘중화민족대단결(中華民族大團結)’이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소수민족도 포함되고 조선족도 그 속에 속한다.

중국에는 ‘황’자(黃字)가 달린 지명이나 어휘가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황해(黃海), 황하(黃河), 황산(黃山), 황제릉(皇帝陵) 등이라든지 죽은 람의 영혼이 간다는 황천(黃泉), 천자(天子; 임금)가 입는 옷을 황포(黃袍), 태양이 운행하는 궤도를 황도(黃道)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쓰는 ‘황’자는 흔히들 생각하는 ‘누를 황(黃)’이 아니라 너무 찬란하여 눈이 부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중국의 역사 책에 보면 황제는 호가 현원이며 아내가 넷이고 아들이 25명이며 그들의 소생이 다름에 따라 성(性)이 열두 가지였다고 한다. 또 요순(堯舜)임금과 하·상·주(夏·商·周) 3대의 황족들이 모두 그들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쫄귀렌과 한귀렌 -마중가 지음, 삼성출판사』 중에서

# 변화하고 있는 가정교회

천더위(陳得魚)

## 대륙에

사역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더불어 팀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끼게 된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여러 형제자매들과 이것에 대해 내가 체험한 바를 나누고, 중국에서 일고 있는 양육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 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가정교회를 돕기를 원한다.

## 하나님의 보호

이번 대륙 사역은 시작하기 전부터 성령의 비상한 간섭이 있었다. 이 사역을 위해 한 형제와 연락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굳게 믿고 내가 직접 나서서 연락방법과 시간을 변경하였다. 당시 그 형제는 신앙서적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공안이 수시로 그의 집에 드나들고 있었으며, 전화 역시 도청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일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를 주신 것이며, 결국 그 형제와 우리 모두를 공안의 감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이었다. 성령은 친히 우리를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하셨으며, 위험한 고비를 넘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계획대로 사역을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번에 양육을 받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의 기

준들로 볼 때 내세울 만한 학력이나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영광과 존귀를 소유한 이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십,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집회장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들의 학습능력과 적응능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내가 강의를 할 때, 가르치는 내용과 평소 그들이 알고 있던 것과 종종 충돌이 일어나곤 했다. 그때마다 그들의 갈등은 얼굴에 나타났으며, 그들은 진지하게 그 문제를 숙고하였다.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나면 나는, 두 내용 사이에서 진정한 진리를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진실하게 진리를 구하는 것과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진리를 얻는 기쁨은 내가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에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힘써서 나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5년도 안되어 더 이상 그들을 돕지 못하게 될 정도로 그들은 빠르게 성장했다. 따라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은 선의의 경쟁의 시간이자 큰 도전의 시간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최근 몇 년 간 시행했던 장기 협력사역이 그들에게 유익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최소한 다음 세 가지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첫째, 우리의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인근지역에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동역자들

간에 서로 돕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둘째, 그들의 생각과 관념을 제고시켰다. 셋째, 성령께서 가정교회의 미래의 사역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일이 이루어지도록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 일에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 넓은 길과 좁은 길

한 가정교회의 전도사는 자신이 가정교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얼마 안 있어 아주 인상적인 꿈을 꾸 이야기와 최근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확실히 알게 된 것을 내게 들려주었다.

꿈 속에서 그는, 많은 젊은 농부들과 함께 교실 밖에서 줄 서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때 수많은 대학생들은 한가롭게 교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교실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당신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소?”라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분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소”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교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할 것이다. 교실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할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분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 선택받아 평생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눈앞에 펼쳐진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길은 넓고, 또다른 한 길은 좁다. 넓은 길은 삼자교회로서 사람이 많아 가기 쉽고, 좁은 길은 가정교회로서 어렵지만 성령님의 동행과 보호가 있다. 그래서 그는 힘들지만 가정교회 사역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다음은 현지의 한 사역자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대만의 어느 목사가 북방 지역의 어느 성(省)에 신학교



대륙에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더불어 팀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된다.

를 설립하려고 현지의 정부 요원과 몇 차례 교섭을 한 후, 삼자 교회와 합작하여 거금을 들여 신학원을 건축하였다. 첫해에 그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커리큘럼을 정하고 학생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에는 모든 수업 과정과 교사, 그리고 투자 등 모든 문제를 정부에서 지정해준 신학원의 지도를 따라야 했다. 3년째, 이제 그들은 삼자의 심사를 거쳐야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도 그들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다.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그 신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4년째, 이 학교는 중국의 정책위원회에 접수되어 신입생을 받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설립자는 쫓겨났고, 몇 년에 걸친 투자와 노력은 물거품처럼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중 절반은 모두 삼자와 교섭하는 일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학원을 운영하여 사역자를 배출하려고 했던 일은 실패로 끝나버렸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도들을 훈련시키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 사건은 당 관계자들과 교섭을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한 좋은 본보기다. 현재 중국 내의 이런 사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종교, 신앙의 자유’ 정책의 기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적극적으로 삼자와 합작하여 신학원을 짓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취엔저우(泉州)에서 온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부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부인은 작년 성탄절 야에 상하이(上海)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차를 탔는데, 거기서 한 아가씨가 매우 경건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성탄절에 교회에 한 번 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성탄절 저녁, 그녀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옷을 차려입고 고향의 삼자교회에 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입구에 서있던 한 할머니가 예배당에 들어가려는 그녀를 막았다. 그 할머니 설명인즉 교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일로 그녀는 교회에 대해 무척 실망했노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진정한 교회는 가정교회이며, 기독교 복음은 어린아이라도 거절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다. 이



가정교회가 공안의 공격을 한 차례씩 받을 때마다 그것은 오히려 교회성장의 좋은 계기가 되었다.

렇게 해서 우리 일행 세 사람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게 되었다. 7,8시간 동안의 긴 여정 속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으며 주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기를 소망했다. 중국은 이렇게 곳곳마다, 언제나 예비된 심령이 있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두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 새로운 정세에 대한 대응책

현재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가정교회에 대응하고 있다.

1. 장기적으로 가정교회에게 삼자교회에 등록할 것을 강요한다. 등록을 거부한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습격한다든가, 조직을 붙잡는다든가, 지도자를 잡아들이는 방법을 쓴다.
2. 법률적으로 사악한 종교로 규정하고 주동자는 즉시 형사범죄자로 정한다. 긴 줄을 풀어 대어(大魚)를 낚듯이 지도자를 잡아 목적을 달성한다. 붙잡힌 지도자는 일률적으로 문서로 정리하여 각지에 통보하여 그가 각지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3. 삼자교회의 신도들을 동원하여 가정교회의 내막을 알아내는 한편, 그들과 관련을 맺게 하여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집회장소 그리고 책임자를 찾아낸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정교회는 수백, 수십 인들의 모임을 분산시켜 20인 이내의 작은 모임으로 만드는, 이른바 바울의 전도여행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그들의 가장 절실하고도 시급한 필요는 소그룹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소그룹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전도자가 책임을 지고 사역하던 한 집회에 백 명이 모이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 일을 위해 5명의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기본진리를 가르치는 동역자를 양육해 내기는 비교적 쉽다. 그러나 성령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사역자를 양육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하며,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아성찰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기초 위에 다시 체계적인 진리를

재정립하며 성경에 부합되는 가치관을 세워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핍박이나 이단이 공격해 올 때, 영적인 지혜로 믿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요즘 해외에서 들어온 교재를 보면 이 부분을 훈련시키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교재를 만든 나라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적 상황에 맞는 기독교 가치관을 세우는 데에 부합되는 교재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기독교를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현재 중국복음회신학연구소(中福神學研究所)에서는 중국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그들에게 익숙한 예를 가지고 '신학교육의 양육체계'를 만들어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 광야의 시련

가정교회는 생존을 위협하는 험난한 시험을 자주 접했다. 이것은 사실 가정 교회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광야의 시련'이라 말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안주하는 데 길들여져 있어서 유랑하는 생활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또 시험을 얼마나 잘 참고 견디는가를 보시는 것이다. 가정교회가 공안의 공격을 한 차례씩 받을 때마다 그것은 오히려 성장의 좋은 계기가 되어 주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고난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교회의 궁극적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사명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지고 만다.

광야에서의 훈련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첫째,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둘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넷째, 불신앙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라.

이번에 양육한 교회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시작된 가정교회들이었다. 그들은 5년 동안 희망성쇠를 반복하며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들 중 가장 먼저

부흥한 가정교회는 그 지역 가정교회들 사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그 교회는 해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여러모로 공급되는 자원이 많았다. 따라서 몇 해 동안은 특별한 양육을 받지 않고서도 유지되었으므로 지도자들을 세우고 신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따라서 이 교회에는 직업을 가지고 섬기는 동역자는 많았지만, 조직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5년 후 이 가정교회는 수십명의 전임사역자와 수백명의 신도가 있는 다른 가정교회들에게 지도력과 핵심적인 위치를 넘겨주어야만 했다. 새로이 중심이 된 가정교회들은 끊임없이 동역자를 양육하며, 십자가의 길을 강조하고 신도들이 섬김의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을 위한 양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각자의 사상을 갱신하며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요즘 가정교회들 간에 선의의 경쟁이 있어서, 모교회 및 근처의 가정교회를 도우며 형제자매들을 서로 붙들어 주며 격려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한 가정교회에서는 이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 새롭게 바뀐 내용을 첨가한 교재로 신도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그 교재의 내용들이 신도들 사이에 생명력 있게 전달되는 것을 보며 나는 무척 기뻐다.

이외에도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가정교회 사람들이 집회를 습격당하고, 지도자를 붙잡아가는 등,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 중국의 운명을 바꿀 인제가 바로 가정교회 안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였다.

우리는 중국에서 가정교회가 부흥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과거와 현재 어떻게 우리들을 보호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을 만들고자 광야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분임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헌신하여 봉사하기를 원하신다.

출처/ <中國興福音>, 23期  
번역/박사라·자원봉사자



디아스포라 한국인

# 동북삼성의 최대 길목인 선양(沈陽)

이 요 한

## 김포공항

에서 이륙하여 1시간 30분이면 동북 최대의 도시인 선양.타오셴(桃仙)공항에 도착한다. 비행기가 없을 때는 집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면, 오전 11시부터 수속을 하고, 오후 1시에 인천을 출발하여 배에서 하룻밤을 자고, 26시간 정도 항해하면 다음날 오후 6시 전후 텐진(天津)의 탕구(塘沽) 항구에 도착한

다. 거기서 택시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려 텐진역 부근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열차로 텐진을 출발하여 10시간 정도 걸려 선양에 도착하였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3일에 거쳐 선양에 도착하였는데, 이젠 비행기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 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뿐이다.



선양의 베이스(北市)교회와 성도들.  
(현재는 크게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 1.역사와 지명의 변천

선양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고성(古城)으로서 7,200년 전 이미 신석문화를 이루었으며,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는 동호(東胡), 화하(華夏) 등 여러 민족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청동기 문화를 꽃 피웠다.

지금의 선양은 기원전 삼백 년 경, 연국(燕國)을 거쳐 한때는 고구려 영토가 되기도 하였다. 선양 신청즈(新城子)구에 있는 스타이즈(石臺子) 부근에 가면, 지금도 가오리청(高麗城)이 있기도 하며 선양시 주변에 고구려 성이 지금도 더러 남아 있다.

요(遼)나라 신책6년(神冊六年)에는 선양에 6주(州) 6현(縣)을 설치하고 선저우(瀋州)라고 칭하였으며, 원(元)나라 성종(成宗)년(1296년)에는 선저우(瀋州)를 선양로(瀋陽路)라고 개칭하여 선양(瀋陽)이라는 지명이 역사적으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명나라 홍무(洪武) 19년(1386년)에는 선양로를 선양중위(瀋陽中衛:瀋陽衛)라고 다시 개칭하였으며, 후금국(後金國) 천총5년(天聰五年)에는 성경(盛京)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청나라 승덕5년(崇德五年)(1636)에는 국호를 대청(大清)이라 하여 정식으로 청왕조(淸王朝)를 선양에 건립하였다. 순치5년(順治五年)(1636년)에는 국호를 선양에서 베이징(北京)으로 옮겨 선양을 제2의 수도로 삼아 명대(明代)의 '양경지제(兩京之制)'를 모방하였으며, 순치(順治) 14년(1657년)에는 '봉천승운(奉天承運)'의 뜻으로 선양에 봉천부(奉天府)를 설치하였다. 이것이 선양의 또 다른 이름인 봉천(奉天)이 생겨난 유래이다.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 이후, 장쥘린(張作霖)이 철도, 광산 및 기타 공업기반을 정비하여 선양을 근대 공업기지로 발전시켰으며, 1923년 8월에는 정식으로 봉천시라고 명명하였다.

1928년 6월 장쥘린이 일본군에 의해 황고둔(皇故屯)에서 폭사당한 후, 1929년에 그의 아들 장쉐량(張學良-현재 미국에 거주)이 봉천시를 선양시로 개명하였으나, 1931년 9·18사변으로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선양이 강점되면서 선양시는 다시 봉천시로 불려졌다. 그 후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비로소 다시 선양시는 봉천시에서 선양시로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선양은 그 이름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의 변천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 2. 선양시의 지리적 위치

중국에서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톈진 다음으로 큰 도시인 선양은 랴오닝(遼寧省)성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랴오닝(遼寧省)성의 성도(우리 나라의 도청소재지)로서 랴오닝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아울러 동북삼성의 최대 경제 중심지이며 중공업 도시이다.

동경 122° 25' 9" ~123° 48' 2", 북위 41° 11' 51" ~42° 17' 30" 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로 105km, 남북으로 85km 뿐아 있다. 해발평균은 50m로 총 면적의 76.2%가 평지라서, 자전거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데 용이하며 구릉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주요 하천으로는 라오강(遼河), 훈강(渾河), 라오양강(瀋陽河), 리우강(柳河) 등 15개 하류가 있으며, 이중 라오강과 훈강이 비교적 큰 맥을 이루고 있다. 선양시 반경 100km 이내에 있는 도시중 철강의 도시로 천개의 봉우리가 있는 아름다운 천산(千山)이 있는 안산시(鞍山市), 석탄도시이며 아름다운 댐이 있는 푸순시(撫順市), 석탄과 철강의 도시이며 아름다운 수동(水洞)-동굴 속을 배를 타고 관람)과 고구려성이 있는 번시시(本溪市), 화섬공업도시 선양시 등이 있으며, 항구도시 잉커우시(營口市)와 따렌시(大連市)와는 각각 200km, 400km의 거리에 있어 대외 경제발전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 3. 선양의 유적지

#### (1) 선양 고궁

시내 중심부에 있으며 현존하는 것으로는 북경의 고궁 다음으로 큰 궁전 건물이다.

청조의 초대 황제인 누루하치와 2대 황제인 태종이 왕조의 기초를 다지면서 건축한 황성으로 1625년에서 1636년에 걸쳐서 완공되었다. 시내 동부의 선양로에 접한 곳에 입구가 있는데, 면적은 약 6만m로 베이징의 고궁과 비교했을 때, 실망할 정도로 규모는 1/12정도다. 제3대 황제가 베이징으로 천도한 후에는 동베이(東北) 지방을 순회할 때 황제가 머무는 곳이 되었다.

내부는 동(東), 중(中), 서(西)로 크게 나뉘고, 출구는 남쪽에 있다. 동로(東路)에는 고궁을 대표하는 대정전(大政殿)이 있는데, 황제와 신하들이 정무를 보던 곳이다. 중로에는 숭정전(崇政殿), 봉황루(鳳凰樓), 청령궁(淸寧宮)등의 주요 궁전이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숭정전은 2층 팔각형이 특징이며 특별한 의식이 있거나 알현할 때, 봉황루는 연회가 있을 때에 사용되었다. 서로에는 황제의 도서관이나 무대가 있고, 후세에 건륭제가 증축한 문소각(文溯閣)도 있다. 이 곳에는 사고전서(四庫全書)가 수장되어 있었다. 베이징의 자금성보다는 훨씬 아늑하며 특히 70여 채의 건물은 한쪽에 동화되기 전 청조의 굳건함과 토착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건축물이다.

#### (2) 북릉공원(北陵公園)

선양시의 북쪽 숲의 위치한 청조 2대 황제인 태종(太宗)과 그의 황후가 잠들어 있는 능묘이다. 언덕과 그

산기슭 전체가 공원으로 되어 있어 한여름에는 녹음이 아름답다. 봄, 가을에 걸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끊이지 않는 공원이다. 이른 아침에는 태극권이 나 기공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들도 보인다.

묘릉인 소릉(昭陵)을 중심으로 약 450만m<sup>2</sup>의 넓이를 가진 이 공원은 1643년부터 약 8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정문을 들어서면 소릉까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참도(參道)가 이어진다. 성벽 위를 걸어서 돌아볼 수도 있는 이 공원에는 북쪽에는 대삼림이, 남쪽에는 넓은 호수가 자리잡고 있다.

#### (3) 동릉공원(東陵公園)

청조 초대 황제 누루하치가 잠들어 있는 능묘이다. 시내에서는 동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다. 162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명칭은 북릉(福陵)이다. 붉은 벽돌담이 능을 둘러싸고, 하마비(下馬碑), 석비루(石碑樓) 등이 서 있다. 참도에는 양쪽으로 동물석상이 있다. 능묘까지는 108개의 계단이 이어지며, 뒤로는 텐주산(天柱山)이 있고, 앞쪽으로는 운하에 면하고 있다. 이곳 역시 베이링(北陵)처럼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 4. 한국인 단체 현황

#### (1) 한국인 상공협회

선양에 투자한 한국기업인들의 모임으로서,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가 중국의 투자정보와 기타 현안을 의논하며 친목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

상공협회의 주최로 98년 5월 30일에 제1회 '한국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끝났는데, 주최측은 참가 예상인원을 800명 정도로 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나 실제로 참가인원은 약 1,400명 정도로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선양시내 한국인을 약 4,000명 정도(유학생 500명 정도와 유동 인구 포함)로 본다면, IMF를 맞아 어려운 가운데서 보여준 한국인의 단결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2) 선양 한글학교

'97년도에 세워진 한국인 자녀들의 주말 학교로서 중국에 있는 한국인 자녀들이 한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어 인격도야와 아울러 신앙심도 배양하는 배움의 터전이다. 교사들은 모두가 믿음의 형제자매들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조선족어머니 교회라고 자부하는 서탑교회. 현재 오애은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다.

기독교 실업인들의 믿음과 친목도모,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으로서 매달 1회 모임을 갖고 있다.

## 5. 선양의 유서 깊은 기독교 기관들

### (1) 조선족 어머니 교회인 서탑교회

조선족의 어머니 교회라고 자부하는 서탑교회는 1913년 당시 선양이 봉천시로 불리던 때, 봉천시 대화거 15-3번지에서 20여 명의 신도가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평북 의주군교회 여전도회에서 김덕선 목사를 파송함을 시작으로 김병용 목사, 조영승 목사, 양준식 목사, 이철락 목사 등이 부임하여 시무하였고, 1917년에 예배당을 건립할 때는 신자수가 약 200여 명이 되었고 백영엽 목사가 시무하였다.

1931년 정상인 목사께서 부임하여 봉천노회를 설립하고 만주신학원, 성경학원, 보육학원, 영광잡지사, 유치원 등을 교회 내에서 운영하였다.

1945년 백리언 목사께서 부임하여 시무하였으나, 1948년 5월에 중국 국내 사정으로 12명의 장로들과 함께 한국으로 철수하였다. 1948년 11월에 김석윤 장로의 인도로 2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고, 1957년 현재의 서탑교회의 담임이신 오애은 전도사께서 서탑교회로 부임해 오셨다. 1966년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예배는 중단되고 오애은 전도사는 공장으로 내려가 노동을 하게 되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으로 인해 1979년 12월, 13년 간 중단되었던 예배를 재개하였고, 1980년 9월에 서탑교회 구 예배당으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다가 1981년 오애은 전도사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1983년 7월 3일 새 예배당을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는 목사 1명과 전도사 6명, 신자는 약 1,500명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동안 서탑교회는 동북삼성의 처소지도자들을 보통 1년 내지 2년 과정으로 성경공부를 시켜 각 처소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지도자로 양육하였고, 또 동북신학원 조선족 반을 운영하면서 동북삼성 목회자들을 양육하여 명실공히 동북삼성의 어머니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오애은 목사님의 탁월한 영적 지도력으로 인해, 동북삼성의 조선족 교회는 영적으로 많은 안정과 성숙을 가져왔다.

얼마 전에 서탑교회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조선족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조국

### (3) 한인구역회(교회)

선양 서탑교회 내에 한인구역회로서 한인 교회가 설립하여 많은 선양의 한국인들에게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동안 조선족 서탑교회 또는 명료교회에 참석하여 중국인(조선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나,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예배의 정서가 맞지 않아 한국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재 약 150명 정도 출석하고 있다. 한인교회 규약도 마련되어 있고, 매년 9월 1년에 한 번씩 담임목사(현재 임시목사) 재신임을 공동의회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예배시간은 오후 1시에 드리도록 서탑교회 측과 합의가 되어 있고 중국인(조선족 포함)은 참석할 수 없다.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국의 제재로 현재 서탑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예배가 끝나면 미국인을 포함한 영어권의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린다.

현재 선양에는 외국인들의 예배를 모두 종교장소 활동허가증이 나있는 서탑교회에서 드리고 있다.

### (4) 선양 기독교실업인회

한국이 IMF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하루 빨리 IMF에서 벗어나서 세계 속의 발전하는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믿음의 형제자매이기에 앞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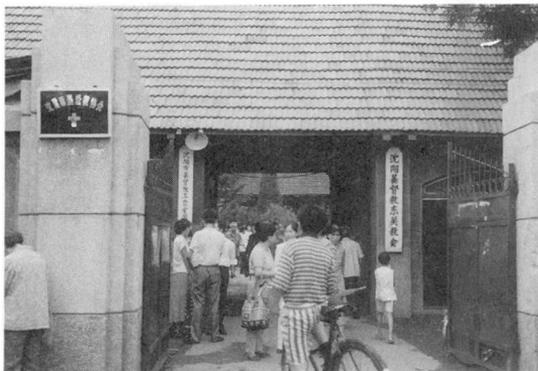
(2) 동북삼성의 목회자 산실인 동북 기독교신학원 조선족 목회자와 한족 목회자 배출기관인 동북 기독교신학원은, 1894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두 선교회의 후원으로 나요한(Dr. Rev. John Ross) 목사께서 봉천신학원을 4년제 학제로 설립함으로 개원하였다. 1922년 예비과를 증설하였고, 1927년에는 여학생을 모집하였으며 예비과 2년, 본과 3년으로 하였다.

일본군 만주침략 이후 1941년 12월에는, 일본인 목사 석천사랑(石川四郎)이 원장으로 부임하였다가 1945년 일본군이 패망하고 난 후 영국인 팡더리(方德立) 목사가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1953년에는 신학원이 북경으로 옮겨가 연경신학원과 연합하였다가, 1982년 동북기독교신학원 원래 신학원 자리에서 다시 개원하여 신학생 54명을 모집하였고 학제는 4년으로 하였다. 1996년 신학원 교사를 새로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신학부, 조선족 신학반, 성악부를 설치하고, 학제는 3년으로 하되 성악부는 2년으로 하고 학생모집은 동북삼성에서 하며, 현재 재학생 수는 2백여 명으로 명실공히 동북삼성의 목회자 산실이다.

(3)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한 동관교회

동관교회는 중국인 한족교회로서, 1872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 파송선교사 나요한(Dr. Rev. John Ross) 목사에 의해 설립된 유서 깊은 교회로 여기에서

한글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된 동관교회의 현재 모습



처음으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였는데, 지금도 당시 번역하던 사무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그 곳을 찾는 한국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이 동관교회는 1889년 10월 22일에 약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립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1900년 6월 30일 의화단에 의해 예배당이 소실되었고 예배도 정지되었다. 그러다가 1907년 나요한 목사가 경자(庚子) 배상금으로 다시 예배당을 건축하였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동관교회의 예배당으로 현존하고 있다.

1941년 서쪽 예배당을 증축할 당시, 신자수는 약 1,300명으로 동북최대의 교회로 성장하였고, 이 교회에서 1896년 첫 중국인 목사 리우첸웨이(劉全岳)를 안수하기도 하였다. 1958년에는 선양시 모든 교회가 동관교회로 연합하여 예배를 드렸으나, 이 교회도 ‘문화혁명’으로 인해 1966년 8월 23일 교회 문은 닫히고 30여 명의 목회자들은 공장으로 내려가 노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 12월 23일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 문이 다시 열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현재는 원로목사 1명, 목사 3명, 협동목사 1명, 장로 3인으로 등록 교인은 2만 명이 넘는다.

6. 조선족과의 시각차이

선양은 적어도 한국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중국의 다른 지방보다는 유리하다. 조선족이 많이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한국적인 문화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많은 한국인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왔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또한 일부 성공하기도 하는, 애환이 깃들은 도시이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 곳에서 활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몇 년 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총명하여 한국에서 어떤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곧 따라서 모방하거나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국인들이 애로점이 많다고 한다.

한중수교 이후 초창기에 한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너무 과장 내지는 허풍을 떠는 바람에, 조선족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물주(?)’ 내지 ‘봉’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물가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경우도 많았다.

몇 년 전에 3일 간 ‘훈허’라는 곳의 조선족 가정집에서, 부산에서 오신 나이 드신 사업가(박 집사님)와 하루에 중국돈 100원(元)씩 주기로 하고 신세를 진 일이 있

었다. 아파트에는 방이 세 칸이었는데 우리가 한 칸을 쓰고, 한 칸은 주인 가족이 쓰고 또 한 칸은 한국인 현지 처(나중에 알았지만)가 쓰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난 후 우리에게 많은 관심과 친절을 베풀어준 그 한국인 현지 처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선양 시내에 나오는 길에 한번 연락하면 차라도 한잔 대접하겠다고 하였다. 며칠 후 그 여자 분이 나왔기에 서탑 고려 호텔 커피숍에서 차를 한잔 대접하면서 감사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 그 집주인에게서 ‘사람을 시내까지 나오게 했으면 택시비와 반나절 일당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였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 감사해서, 혹시 시내에 나올 일이 있으면 차라도 한잔 대접하겠다는 것이었고, 며칠 후 시내에 불일 보러 왔다가 전화했다고 하기에 차를 대접했는데, 왜 내가 택시비와 반나절 일당을 줘야 하는가? 너무나도 어이없고 불쾌했다.

또한 조선족이 모여 사는 서탑거리엔 자연히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자연히 서탑거리로 나가곤 한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기에 다방에서 만나 차를 한잔 나누었다. 이분이 중국인과 무역관계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기에, 당시 내가 중국말을 잘 못하던 때라, 평소에 환전을 하면서 안면 있는 조선족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드려 잠깐 통역을 도와줄 분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다. 무역을 하려고 오신 한국분이 중국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통역하던 아주머니가 10분 정도 통역을 하다가 자기는 지금 하는 한국말의 반도 못 알아들어 통역을 못하겠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컨테이너가 어떻게 하면서 무역용어를 쓰니 어찌면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만두었는데, 그 아주머니에게서 저녁에 전화가 왔다. 그녀가 말하기를, 사람을 불렀으면 1시간당 통역비로 100元은 쥐야지, 왜 50元밖에 주지 않았느냐는 항의성 전화였다. 50元을 준 것도 그 통역하던 아주머니가 참 안됐다며 한국에서 오신 분이 차비와 애들 과자값이라도 하라고 드린 것인데,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100元을 주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는 것이다. ‘하루에 5시간만 통역하면 중국 노동자 한 달 월급이 나오네, 날도둑놈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욕을 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만든 것이 한국인이었으므로 당하는 것도 한국인이라는 생각에 도리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기

에 이런 오해는 거의 사라졌다.

## 7. 변화하는 선양

1994년 여름 선교 여행차, 선양에 처음으로 왔을 때와 지금의 선양은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다. 95년 3월에 타오셴(桃仙) 공항에 도착하기 위해 비행기가 고도를 낮게 낮추었을 때, 당시 하늘은 잔뜩 찌푸리고 있었고 푸르름이 하나 없이 잿빛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땅을 보니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였다. 시내의 모습도 너무나 초라하게만 느껴졌고, 중국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믿음이 없었으면 실망하기에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었다. 일본에서 3년 간 선교사업을 한 본인으로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지의 환경이 - 물론 각오는 하고 왔지만 - 약간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불과 몇 년이 지난 지금의 선양은 너무나 많이 변했고 변해가고 있다. 현대식 고층 빌딩이 하늘을 향해 마냥 치솟아 스카이라인을 수시로 변하게 한다. 처음에 선양시의 거리에 자동차도 별로 없었지만 요즘 러시아 위에 시간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를 지경이다. 거리의 모습도 너무 많이 변했다. 중제(中街)나 타이위엔제(太原街)는 너무나 발전했고 아름답게 변했다. 중제(中街)의 한 백화점으로 서탑교회 양로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물건을 사러 갔던 한국 목사님께서 그 백화점 규모를 보며, IMF로 한국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젠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며 놀라던 모습이 결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곳이 바로 현재의 선양이다.

조선족이 모여 사는 서탑의 거리도 택시 기사가 “이 곳은 한국의 거리입니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많이 와서 식당, 다방, 옷가게 등을 하며 거리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발전의 속도가 빠른 중국과 5천 년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근면성실함을 가지고 변화발전하고 있는 선양시를 바라보면서, 21세기 경제대국 중국을 보는 것 같아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 사람으로서 흐뭇하다.

이요한/ 중국 선교사.



# 중국 공단지역 단기 의료선교

최 해 룡



사춘기의 꿈과 희망을 접어둔 채로, 재봉틀 앞에만 앉아서 고단한 삶을 이겨내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복음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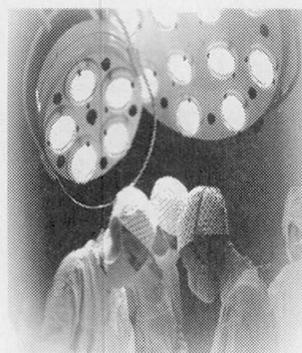
잠재력이 무한한 청년사역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과, 급속도로 도시화 산업화되고 있는 중국의 산업근로자들에 대한 복음사역이 부딪치는 장애는 큰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향을 떠난 외로움 또 고향에 매달 많은 액수의 금액을 송금해야 하는 경제적인 압박감, 사춘기의 중요한 나이에 야근에 지쳐버린 육신, 모든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차단된 건조한 생활 등으로, 정말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위로와 복음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들이 예수님의 위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금도 '와서 우리를 도와 달라'는 영혼의 부르짖음에 모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너무나도 광활한 중국, 그 중에서도 작은 한 도시, 또 그 속에 있는 한 공장을 다녀와서 중국에 대해 얘기하고 중국 선교 비전과 전망을 말한다는 것이, 마치 코끼리 발가락을 만지고 나서 코끼리를 얘기하는 것 같이 우매한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작은 경험과 작은 생각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감동과 지

혜가 모이면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한 성일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이 단기 의료선교 보고를 드릴까 한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의 눈물어린 기도와 선교사님들의 값진 희생으로 엄청나게 빠른 교회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약과 한계로 인해서 성장

우리 팀이 사역한 곳은 중국 남부의 조그만 공업도시인 D시였다. 한국인 K 집사님이 홍콩인과 합작으로 가방공장을 경영하고 계셨는데, 집사님이 이미 헌신되어 복음전파에 소명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통해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천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의료진료와 더불어 공장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팀은 흥분하였다.

우리 의료 선교팀은 오랜 경험적 기술로 찬양, 율동, 무언극, 워십, 부채춤을 준비했고, 태권선교회에서 훈련받은 한 자매님의 제안으로 태권 시범단도 구성하였다. S대학에서 언어 공부 중이신 J 선교사님과 H 선교사님께서 홍콩에서부터 모든 일정을 안내 해주셔서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다. 특히 진료 대기 중인 근로자들에게 일대일 전도를 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또한 홍콩의 현지 교회의 배려와 K 목사님의 지도 등과 같은 아름다운 협력도 있었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중국 내지로부터 돈벌이를 위해 기차를 타고 며칠씩 걸려 이곳까지 왔다. 그 중에는 사춘기 어린 학생들을 비롯하여 어린아이들을 때놓고 홀로 나와 있는 젊은 주부 등, 비교적 젊은층이 대부분이었다. 하루 15시간 근무로 인해 밤 12시가 되어야 일이 끝나게 되니, 모두 만성적 피로에 지쳐 있었다. 게다가 얼마 되지 않은 임금에서 4,5만 원 정도를 고향에 송금해야 하는 처지라 간혹 몸이 아프더라도 병원 진료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다. 기숙사 한 방에는 보통

네다섯 명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 내부는 마치 닭장을 연상시킬 정도였다. 그래도 이 곳은 다른 곳에 비하면 비교적 나은 편이라고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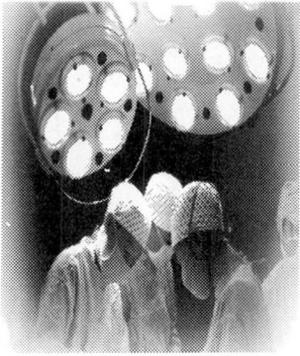
구내 식당에서 진료를 시작했는데, 이 공단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다른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만성 질환보다 위염, 위궤양, 근골격계 질환 같은 급성 질환과, 무겁고 다습한 기후로 인한 습진과 무좀, 가죽제품 취급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과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신경성 질환, 두통, 영양결핍으로 인한 빈혈 및 어지럼증 환자 등이 많았다. 또한 고열에 시달리던 탈진환자와 사소한 부상으로 인한 환자들도 많았다. 급성 질환 환자에게는 단기적인 투약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다른 지역 의료사역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많고 의료를 통한 창의적 접근이 용이한 곳이라 공단 지역인 것 같다.

진료 때마다 간단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기도했으나,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그러나 투약을 기다리는 근로자들을 선교사님들이 유창한 중국어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접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사람 등 매우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혹시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신경이 쓰이기도 하였지만, 다행히 아무 말쟁도 없이 전도할 수 있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중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예수님을 소개 할수 있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는다. 또한 그 곳에서 이미 기독교인 몇몇의 자매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소그룹 성경공부 등을 인도할 중요한 지도자가 되리라 확신한다.

진료를 마치고 근로자들의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해 공연 및 전도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K 집사님의 배려로 훌륭한 가설무대를 꾸밀 수 있었다. 이삼백 명의 호기심 어린 노동자들은 서툴고 허술한 우리들의 몸짓에 웃음과 박수로 화답해 주었고, 우리 의료 선교팀원들도 흥분되고 열띤 분위기에 자극 받아 더욱 열심히 공연을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할렐루야!

매일 하루하루를 오락이나 휴식 없이 사춘기의 꿈과 희망을 접어둔 채로, 재봉틀 앞에만 앉아서 고단한



삶을 이겨내야 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집회 시작 전에 그들이 참여해서 상품도 탈 수 있는 게임을 여러 가지 했는데, 너무도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K 집사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다. 무언극을 보면서 같이 웃고 자기들끼리 소근대며 서로 설명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뜻이 전달되는 것 같았으며, 집회 후 남아서 이것저것 물어오는 자매들도 있었다. 진료와 집회를 통해 중국의 젊은 근로자들 역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강한 호기심과 순수함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심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개인으로 혹은 그룹으로 전도하신 선교사님들 역시, 많은 가능성을 그들에게서 발견하였다고 했다. 그들 모두가 복음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알기 원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훈련된 현지인들을 그들 속에 투입하여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면 많은 열매가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이 곳이야말로 황금밭이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추수밭임을 확인하게 되었다.(사진은 중국인 근로자들이 기거하는 기숙사 전경)

돈벌이를 위해서 고향을 떠나 열악한 환경에서 젊은 꿈을 펴 보지도 못한 채 일에만 매달려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들에게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곳이야말로 황금밭이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추수밭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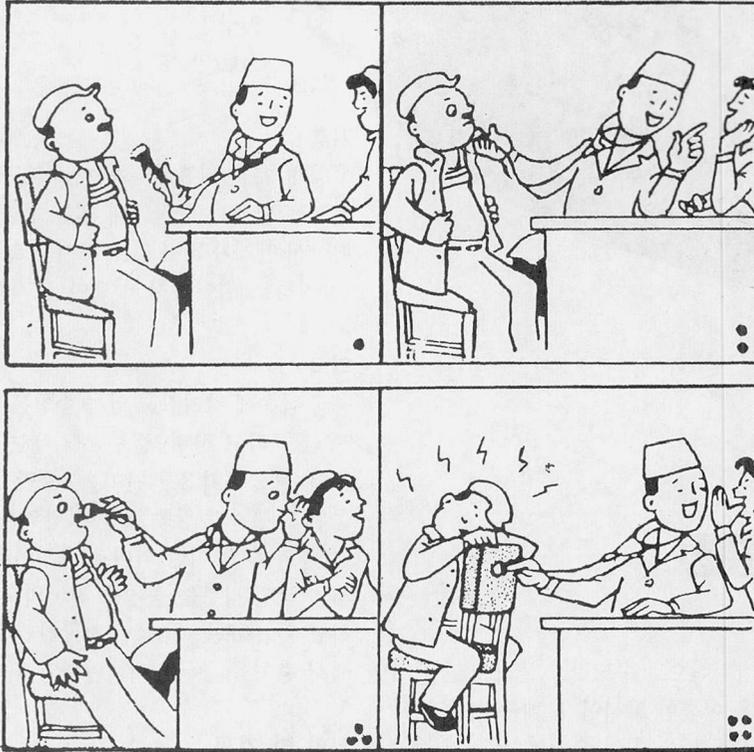
삼일 간의 진료를 마치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안내로 소수민족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또한 정부로부터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에까지 알려진 가정교회의 예배에도 참석

하게 되었는데, 그 좁은 곳에 밭도 틈도 없이 서서, 과거 수년간 투옥되었던 목사님의 설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우리의 단일한 신앙을 다시 검증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일년에 한 번이 아니라 더 자주 와 달라는 집사님과 현지인 공장장님의 아쉬운 배웅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내 귀에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는 듯하다.

**최해룡** / 갈릴리 세계선교회 의사회장, 현재 희명병원 신경외과 과장

# 깨어진 철 밥그릇

리 스 민(李時民)



처음으로 중국을 접한 외국인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인들의 근무태만과 긴 점심시간일 것이다. 그들은 근무시간만을 채우려고 할 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 사회주의의 직장 보장 정책인 "테판완(鐵飯碗: 철 밥그릇: 국가에서 제공하는 평생직장을 가리키는 말)" 때문이었다.

그러나 덩샤오핑(鄧少平)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인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에서 안배해 주던 직장, 무슨일을 하든 동일한 임금"이라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 이제는 직장을 스스로 찾아야 하며 임금도 능력에 따라 지급받는다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이제 그들은 최근의 급격한 사회구조 조정과 경제변화로 인해 그 '사회주의적 근무 자세'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北京  
TO BEIJINGRAILW

## 행정구역

쓰촨(四川)성 동남부에 위치한 직할시

## 총면적

8.2만km<sup>2</sup>

## 인구

3,002만 명

## 기후

아열대 계절 기후에 속하며, 여름에 보통 35~40℃를 웃도는 날씨는 중국 4대 썸통 중에 하나로 유명하다. 평상시 안개가 많아 안개 도시라고도 불리우고,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며 습기가 많다.

## 역사

중국 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충칭은 간단하게 말할 때는 “우(憂)”라고 하며, 춘추 시기에는 파국(巴國)의 수도였다. 오늘까지 3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공원 1189년 송광종 조준이 왕위를 계승하여 “쌍중희경(雙重喜慶)”이란 의미로 충칭이라 칭하였으며, 항전 시기 국민 정부는 충칭을 전국의 정치 중심 수도로 정하였다. 1997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대회에서 충칭을 중국에서 4번째의 직할시로 승격하였다.

## 사회 및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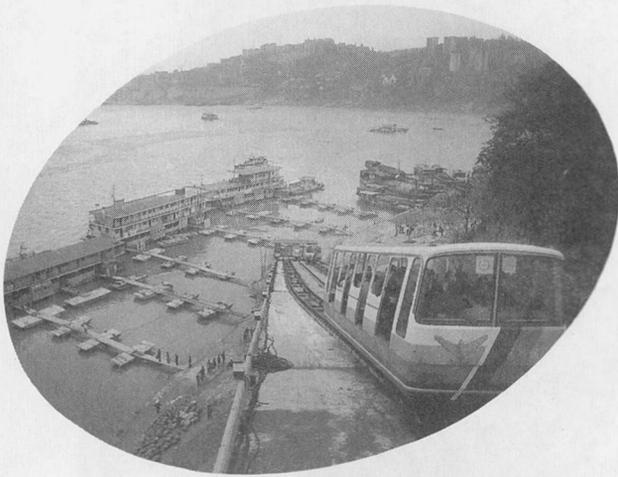
빈부의 격차가 심한 도시 중 하나로 높은 건물이 많고, 잘 발달된 육해상 교통과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물가가 내륙에서는 조금 비싼 편에 속하며, 의복에 있어서 소수민족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음식은 주로 채소와 쌀을 많이 먹는데, 특히 맵고 짜며 여러 가지의 채소와 고기 그리고 생선을 한꺼번에 먹는 “훘궈(火鍋)”가 유명하다.

공업이 발달하였으므로 강철, 화고, 기계 에너지, 정밀기계 등은 전국에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급, 경제 개발구급, 최고 과학기술 개발구였으며, 고등학부의 실력이 높고 농업, 경제, 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장강 삼협댐을 통한 새로운 발전을 모색 추진 중

## 중 칭(重慶)

충칭은 일찍부터 정치적으로 수도라고 불리울 만큼 역사와 경제의 발전을 이룩한 도시이다.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톈진(天津)에 이어 중국의 네 번째 직할시가 된 충칭시는 인구와 면적으로 보아도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인 쓰촨(四川)성의 물류중심지로서 서남지역의 경제적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국제도시이다.

또한 충칭시는 지리적인 입지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장강을 이용하여 수로를 열어, 서남지역과 우한(武漢), 난징(南京), 상하이(上海)를 잇는 내륙 수로 교통의 중심지로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한국의 임시 정부가 마지막 거점 지역으로 머물며 국민당 정부와 협력하였던 한국과 인연이 많은 도시이다.



에 있다. 그러나 물과 공기의 오염이 심각하며 교통시설의 열악성과 공원 및 공공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거친편이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소란한 편이다.

### 종교 및 기독교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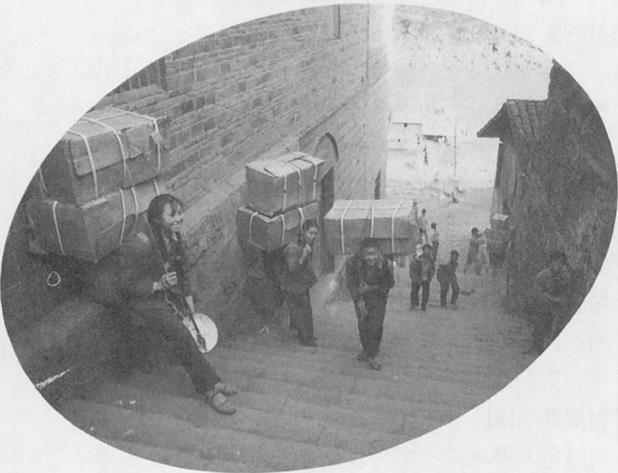
내륙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충칭의 기독교 역사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화려하다. 삼자교회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1887년에 기독교가 전래되었다고 하는데, 역사책에 1866년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백 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1998년 1월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충칭 직할시 신도수를 20만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공개적인 예배 장소는 48 곳, 그리고 가정교회는 3백 곳, 삼자애국운동회에 정식 등록된 교회는 9 교회, 전임 사역자는 46 명으로 목사 14인, 강도사는 11인, 전도사 21인 등이다.

최근에는 삼자교회가 목양 중심의 제자 양육 사역에 힘을 기울이면서 지하교회의 많은 사역자들과 신도들이 삼자교회 내로 흡수되어 들어오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 기도제목

1. 지하교회와 삼자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위에 정직하고 균형있게 설 수 있도록.
2. 이 지역 성도들을 위한 헌신된 젊은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3. 이단화가 되고 있는 농촌의 가정교회에 올바른 복음이 심겨지며, 이들을 진리로 양육해줄 지도자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도록.
4. 이 지역 선교를 위한 선교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5. 선교사들이 이 지역을 위해 지혜롭게 선교전략을 세우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도록.



## 시안(西安)

침입자를 호령하며, 노려보듯 서 있는 진시황 병마용의 진흙 병사들, 당 현종과 며느리 양귀비와의 로맨스가 어린 화청지, 머나먼 인도를 다녀온 후 삼장법사가 불경 번역을 위해 지었다는 파엔타(大雁塔:큰기러기탑) 등 몇몇 단편적인 역사 이야기로도 서안은 우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기점도시로 3천 년의 기나긴 역사를 간직한 시안은 20여 개가 넘는 대학과 연구소를 갖춘 교육도시로 또 서북지구 최대의 중심도시이자, 중국의 군수공장, 우주 센터 등 중국의 핵심 산업체들이 운집해 있는 공업 과학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 행정구역

산시(陝西)성의 성도(중국에서는 省會라고 부른다)

### 총면적

200,000km<sup>2</sup>(산시성 전체)

### 인구

약 300만

### 기후

연평균 기온은 13.2℃로 가장 더운 7월 평균기온이 25.7℃, 가장 추운 1월 평균기온은 영하 1.6℃이다.

### 역사

시안의 역사는 3천년을 헤아린다. BC 11세기 주(周)나라로부터 8세기의 당나라까지 시안은 12개나 되는 왕조의 수도였으며, 73명에 이르는 왕들이 이 곳을 중심으로 중원을 통치해왔다. 고대에는 장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중국의 최전성기인 당나라 때는, 아라비아 등 각국으로부터 무역상과 승려, 과학자 등 수천의 외국인이 상주했던 국제도시였다. 고대 도시에 걸맞게 시안은 많은 역사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다.



침입자를 호령하며, 노려보듯 서 있는 진시황 병마용의 진흙 병사들

11세기 호경(鎬京)이라는 이름으로 도읍을 정한 주나라 무왕(武王), 웃지 않는 애첩 포사를 웃기려다 적에게 망한 주나라 유왕(幽王), 춘추전국시대의 5패(覇: 우두머리), 7웅(雄:영웅호걸), 초 나라와 한 나라의 항우와 유방, 만행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당 태종, 중국 최초의 여황제인 무측천, 양귀비와 당 현종의 로맨스 등이 시안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근세에는 또 공산당 토벌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던 장개석을 붙잡아 공산당과 연합 공동으로 항일전에 나서게 했던 장학량의 장개석 체포사건도 바로 시안에 있는 화청지에서 일어났다. 장학량은 장개석을 사로잡아 연안의 공산당 정권과 화해토록 주선하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공산당과 국민당은 내전을 중지하고 연합해 항일투쟁 전개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제2차 국공합작(국민당과 공산당의 협력)이다.

### 경제와 사회

시안은 서북지역에 있는 5개 성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산시성이 서북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개발



시안의 난신제(南新街) 교회

되었고 중부지역과 동부 연해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산시성에서 재배되는 주요 작물로는 보리, 옥수수, 조, 쌀 등이 있고, 면화나 콩 종류, 유채 그리고 차와 담배도 재배되고 있으며, 석탄 생산량은 전국 2위이다. 그 외에도 철, 망간, 동, 알루미늄등이 산시성 전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시안은 내륙지방의 전력, 석유, 철강 등 중공업 부문에서 앞서가는 내륙의 대표적 공업도시 중의 하나이다.

또한 시안은 교육도시에 걸맞게 국가 중점대학을 포함 많은 대학이 밀집해 있다. 그런데 내륙 깊숙이 위치한 연고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 비해 한국학생 들

이 적은 편이다.

### 종교 및 기독교현황

산시성 성도인 시안이 실크로드의 동쪽기점으로서 번영하던 당시, 시안에는 세계 제일의 국제 도시로 각국 으로부터 상인과 수학자, 승려 등 수천명의 외국인이 살았다.

지금도 관광객들의 주요 볼거리로 병마총과 화청지 외에 따안타(大雁塔), 샤오안타(小雁塔), 파원쓰(法門寺), 썩자오쓰(興教寺) 등 절이 많은 것으로 보아 불교가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장법사(玄奘法師)가 인도에서 불경을 구해와 번역을 했던 곳이 바로 시안이었기 때문인 듯 하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절을 찾아 불공을 드리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불교도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시안에는 베이따제(北大街)교회, 동관(東關)교회, 난신제(南新街)교회 등 3개의 삼자교회가 있다. 이 외에도 숫자를 알 수 없는 많은 가정교회와 처소가 있다. 대체로 가정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있다.

시안에는 안식교도 번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토요일 난신제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중국 삼자 교회는 안식교에게 예배장소를 거리낌없이 제공하는데, 중국교회는 교파와 교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교단이나 교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안식교나 기독교는 같은 종교라고 보고 있다.

### 기도제목

1. 고대 무역로였던 실크로드를 따라 복음의 길이 닦이고, 미래의 교회개척을 위한 일꾼들이 서로 연결되어 화합될 수 있도록.
2. 여러 모양의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이단의 유혹과 물질을 앞세운 접근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3. 이 지역에 신도들을 목양할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성경과 양육서적 등이 전달될 수 있도록.
4. 이 지역 선교를 위한 선교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 중국에서는 거주지를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공무원이며, 공무원로 베이징(北京)에 파견되어 언어연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2명의 자녀가 함께 갈 계획인데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떤 잡지에서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

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열려가 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장기 거주를 할 때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거주지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로 파견되어 언어연수 할 기회를 얻게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하이톈(海澱)구(區)의 얼리쑹(二里庄)과 동왕쑹(東王庄)에 살고 있었습니

다. 이 지역은 원래 외국인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우선 학교가 가깝고,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집세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이 살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점, 식당, 찻집, 노래방, 하숙집 등이 들어서면서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묵인한 채로 지내오다가, 최근 들어 갑자기 해당 행정 당국에서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외국인이 거주할 수 없는 '비거주지역'이라 하여 이들을 추방하고, 상가는 철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던 한국 학생들과 한국 상인들은 베이징 곳곳으로 흩어지거나 타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먼저 외국인이 중국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할 때 알아두어야 할 원래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 ‘도시부동산 관리조례’ 그리고 ‘베이징시 거주 외지인 가옥임대 관리규정’ 등이 이들 법령에 따르면,

“첫째, 외국인은 중국 영내에 임시 거주할 때 반드시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상가가 철거 당하고 있는 모습.



외국인이 중국에서 거류 장소를 변경할 때는 공안국에 가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투숙 등록을 해야 하고,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중국에서 거류 장소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주 수속을 밟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이 거주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공안국에 거주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또 거주지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원래 거주지와 새로운 입주지의 공안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둘째, 국가 안전, 사회질서 및 기타 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공안기관은 외국인이나 외국기구에 대해 주소나 영업소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주거 제한지구에 설립된 외국인의 주거나 영업소는 공안기관의 이주 통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정한 기한 안에 허가지구로 이전해야 한다.

셋째, 불법 건축된 가옥이나 내국인이 임대한 공유 가옥은 임대할 수 없다. 국가나 근무 단위가 무상으로 분배하

고 일정한 임대료를 받는 공유 주택을 임대한 한국인들이 이번에 겪은 고초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넷째, 가옥을 임대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房地產) 관리기관에登記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이징 저널』 제50호 ‘법창(法窓)’에 쓰여진 바에 따르면, 이번 한국인들에게 가해진 조치는 아래의 몇 가지 문제 때문이며, 특히 베이징시 사회안전 및 질서, 외국인의 생명 안전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결과 취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치가 취해진 지역에 거주한 한국인들은 중국의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등록 수속을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둘째, 입주 후 공안기관이 요구하는 신고제도를 지키지 않았다.

셋째, 그 지역 일대에서 살인·상해·마약 등의 사건이 많이 발생되었고, 한국인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넷째, 일부 유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데도 기숙사가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고 또 시간상으로나 식사 해결 등의 불편함 때문에 학교 밖에서 집을 얻어 살고 있다.”

중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임대하고자 한다면, 위의 규정을 참조하여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며, 제때에 공안기관에 거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Z비자(직업)나 X비자(학생)를 받아야 하며,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중국에 입국한 후 30일 안에 공안국에 가서 신고를 하고 거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하루 500원(元: 환화 8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베이징의 몇몇 대학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약간 비싼 편이긴 하지만 거주하는 데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위의 사건(?)과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베이징에는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기에 베이징에 가면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언어연수 잘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석은혜/ 본지 편집장



현지에서 온 소식

#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김 한 길

중국에서의 사역이란 것이 늘 조금은 긴장되고 그 긴장 때문에 오히려 사역의 추진력도 생기고 사역의 성취감 또한 색다른 맛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떠나기 직전 겪었던 일련의 사건은 긴장을 넘어서 사람을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중국 특유의 진짜기 작전을 맞볼 수 있는 것이었다.

1년에 한 번 이상 으레 그렇듯이 올해도 예외없이 '대청소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강도가 이전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대청소운동'이란 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외지인(外地人)이나 외국인(外國人) 중에 불법거주자를 색출하여 벌금을 물리고 거주지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필자가 임의로 붙인 명칭이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란, 임대료를 한 달에 몇 천 불씩 내야 하는 고급 아파트를 말하는데, 회사에서 집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곳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중국인 아파트를 임대하여 살게 된다. 이것을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임대료가 싼 아파트를 지정해서 그 곳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등,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어떤 실제적인 대안은 마련해주지 않은 채, 비싼 아파트나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라고만 압력을 넣고 있다. 보통 일 주일 정도의 색출기간만 잘 피하면 1년 정도는 다리 뻗고 편안히 살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강도 높은 개혁정책과 클린턴의 방중 때문인지 이전과는 그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랐다.

이전에는 공안의 검사가 있어도 집주인이 우리들에게 먼저 와서 걱정 말고 며칠 조용히 넘기면 된다며 안심시키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공안이 집주인들을 불러놓고 만약 외국인에게 집을 임대한 것이 걸리면 막대한 액수의 벌금은 물론, 집을 몰수당하게 될 거라는 협박을 했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동요가 심했던 것이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학교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몰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 공격의 대상이었다.

드디어 5월 8일, 사흘 안에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과 공안의 양면 공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판단을 할 시간도 없이 바빠 시 외곽 쪽의 집을 구하고 대충 짐을 꾸려 이사를 하는 대이동이 시작되었고, 다른 때와 같이 며칠 버티면 무사히 지나가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은 채 불안한 잠자리에서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정을 가진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급히 대책회의가 열리고 영사관 직원이 참석하여 거의 황포에 가까운 중국 측의 이같은 행동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여 중국 정부에 항의했지만, 이사 기간을 사흘에서 일 주일로 연장시켜 준다는 그리 반갑지 않은 통고만을 받았을 뿐이다.

매일 수십 집이 이사를 나가고, 집주인들이 종일 길거리에 모여 수군대는 상황 속에서는 제자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막상 이사를 가려고 해도 안식년이 6월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살집을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데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며칠 간의 고심 끝에 일단은 집을 비우기로 결정했다.



### 현지에서 온 소식



장승원 그림

5월 12일, 밤새 짐을 싸느라 아린 눈을 간신히 뜨고 겨우 이사를 마쳤다. 이사라고 해도 가구류는 중국인에게 팔고, 옷과 책만 싸서 창고 같은 곳에 옮겨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달랑 네 식구에게 당장 필요한 짐만 챙겨서 오늘은 어느 집에서 잘까 고민하는 유랑생활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여러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 한 달여 동안 편안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을 여호와이레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때로 학교와 유치원에서 비교적 거리가 먼 곳에서 잔 날은, 꼭두새벽부터 자는 아이를 들쳐업고 빵차를 타고 덜컥거리는 차 안

에서 모자란 잠을 자야했다.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이곳 저곳 집을 옮겨 다니며 잠을 자다보니 학교를 마치고 난 아이는 오늘은 어디가서 자냐고 묻는 버릇이 생겨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상하게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항상 허기진 느낌이 들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던 예수님의 심정을 배만 분의 일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았다.

4년 전 처음 중국에 발을 디뎠을 때도 집을 구하지 못해, 두 달 동안 다섯 번이나 이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만식의 몸을 한 처와, 세 살 된 아이를 데리고 호텔과 피아노 학원의 시멘트 바닥을 왔다갔다 하며 살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키시는 데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감사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

한 동네에서 살던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특히 가까이 지내던 사역자들이 사망으로 흩어지는 것이, 처음엔 무척 아쉬웠다. 주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동안 한 곳에 안주하며 있고 지내던 긴장감을 되찾게 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으며, 안일해진 개혁정신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와서도 편히 누울 자리 없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그러한 연단이 있었기에 어느 곳에서도 감사찬송을 드리게 된다.

김한길 / 중국 선교사

# 할머니가 심은 복음의 열매

-양 성(揚聲)-

**우리의** 가정교회는 할머니가 예수를 믿은 후, 가족들을 전도하여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었다. 1930년대 일본이 동북을 점거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1937년 할머니는 서른 여섯 살이었다. 당시 할머니는 8년 동안 아편중독으로 고통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는데, 병세가 워낙 깊어 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 병든 몸에서 갈 곳조차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한 할머니가 당신을 교회로 데려갔다고 한다. 할머니가 태어나 교회 문턱을 밟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교회 관리인은 할머니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누가 이런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 교회에서 죽으면 누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려 하겠어.”

**아편쟁이 할머니가 교회로 가다**  
그때 당시 나의 할머니는 아편중독자였을 뿐만 아니라, 심장병과 류마티스, 신경쇠약까지 걸려 있었다.

검푸른 얼굴에다 장작같이 마른 몸이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날려 갈 것만 같았다고 한다. 당신을 인도한 할머니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당신의 손을 꼭 잡고 교회 맨 뒷줄 의자에 함께 앉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할머니에게 있어서 한 마디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두 시간이나 되는 집회 시간 동안 아편을 하지 않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무척 신기해 하셨다.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편에 손을 댔다. 할머니는 교회에 사람이 없을 때 은밀히 하나님께 아편중독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기다렸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십 일, 십오 일이 지나 이십 일째 되는 날 오전,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닥에 쓰러져 큰소리로 울부짖었다.

“하나님, 당신은 참 신이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빛으로 입한 구원의 큰 능력**



그 순간 갑자기 할머니는 크고도 강렬한 빛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을 보았다. 커다란 숯불 같은 것이 그녀에게 쏟아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므로 그 빛을 따라 방에서 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 곳에 놓인 의자에 머리가 부딪치면서 그녀와 의자가 동시에 큰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이것을 발견한 교회관리인은 급히 목사님을 모셔 왔다. 목사님은 2시간 반동안 그녀에게 안수기도를 하였는데, 속옷까지 흠뻑 젖을 만큼 많은 땀을 흘렸다. 안수기도를 시작한 순간부터 할머니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더니, 그 이후로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 매일 성경을 읽었고, 종일토록 찬송을 부르며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유, 방언, 전도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듯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던, 마약 중독자였던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다.

###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오 자매는 나이가 많은 여자로 혈루병으로 걷지 못해 온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녀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셨으므로 그녀는 곧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교회 집회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다.

이 외에도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

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병은 나아갔다. 또한 할머니는 3년, 12년 된 아편중독자에게도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다. 그들은 이전에 할머니를 통해 일어나는 여러 이적을 보았으므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곧바로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이며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간증들이 가까이 있는 모든 마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할머니를 ‘나사로’라 부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일평생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할머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을 떠나 멀리 가야할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어린 두 아들과 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한 번은 한 농부가 귀신 들린 부인에게서 귀신을 쫓아 달라고 간청하러 왔다. 할머니는 두말 않고 그를 따라 가서 3일 동안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그녀로부터 귀신을 쫓아 내주셨고, 이로 인해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집에 돌아가려 할 때에야 비로소 할머니는, 집안에 쌓이 한 공기밖에 없다는 것이 생각났다. 삼 일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걱정스런 마음으로 부랴부랴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교인들이 아이들에게 식사를 계속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다.

### 일가친지를 복음화하라

그 당시 중국 동북(만주)은 일본군

에 의해 점령되어 일본인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할머니의 복음 전파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으며, 교회는 그녀로 인해 큰 부흥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구원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으므로 그녀의 집은 집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가정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인기척이 없는 겨울밤, 방안에 가득히 모인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 거리를 순찰하던 일본 군병이 집안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이상히 여겨, 칼을 차고 들어와 심문할 때, 할머니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중이요”라고 말하였다. 그때 한 군병은 매우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 할머니를 향해 경례를 하고는 곧바로 나갔다고 한다. 가정교회에서 시작된 집회는 이후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고-문화혁명 기간 중에도 중단된 적이 없다.-교인은 2~30명에서 5개의 큰 방안에 다 들어가지 못할 만큼 많아졌다. 할머니는 교회의 집사가 되셨다.

그녀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며 개인의 영적 성장과 은사를 중요시 하였다. 매일 저녁 자녀와 친지, 이웃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썼다. 그녀는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전도하여 자매와 매부, 생질, 생질녀들이 주님을 영접하였다. 또한 할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였는데,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이는 자녀들의 배우자



장승원 그림

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기 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 작은 어머니는 신학교를 졸업하였고, 고모부는 아버지가 전도사였으며, 어머니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한 가정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다.

할머니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매일 새벽 2,3시에 일어나 3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발과 무릎에 검붉은 굳은 살이 생길 만큼 오랫동안 딱딱한 벽돌 바닥에 꿇어앉아 기도하였다. 할머니의 기도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내가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였을 때에 할머니는 성경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머리 속에 넣어 주셨다. 지금 내가 기억하

고 있는 많은 요절들도 모두 그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1962년부터 3년 동안 천재지변을 당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집회를 인도하였으며, 이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은 금식하면서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다.

#### 소리한 세상에서도 고요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내 삼촌의 장인어른은 명망있는 전도사였으며, 장모 또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그녀는 항상 형제 자매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했다. 외동딸인 숙모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 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였다.

1966년 문화혁명이 시작되었다. 노인들이 가장 먼저 적발되어 재산을 몰수당하였다. 그리고 모든 성경

과 경건 서적, 찬송가 등도 빼앗겼다. 우리 집과 삼촌 집은 300km가 넘는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삼촌 가정에 일어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아버지는 세 권 뿐인 성경과 기타 경건서적을 모두 벽 속에 감춰다.

당시 아버지는 특정한 배경이 없는 단순한 노동자였으므로 재산 몰수와 같은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다. 서류상에 '예수를 믿음'이라고 쓰긴 했지만 그것은 단지 종교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일 뿐이었으므로, 의식 학습만 참가하면 그만이었다.

혼란과 두려움의 세월 속에서도 할머니는 쉽 없이 매일 서너 시간씩 기도하셨다. 할머니는 '4대 봉건문화(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 척결운동'의 긴장이 약간 풀린 틈을 타서 집에 있는 세 권의 성경 중 한

권을 삼촌 집에 갖다주었다. 할머니는 삼촌 식구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해 여러 번 삼촌 집에 가셨다. 그들은 항상 외부의 감시를 받았지만,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떠나지 않았으며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촌 가정에서 이루어진 집회는 한 번도 쉬 적이 없었다. 지금 삼촌의 장인과 장모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고 있으며, 삼촌은 72세이다. 삼촌과 숙모로부터 3대째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모두 할머니의 기도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던 믿음 때문이다.

### 가정교육은 신앙교육- 어디든지 주의 말씀과 함께

1968년 '샤샹(下鄉,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앙의 간부나 지식인들을 농촌이나 산촌으로 내려 보내 직접 노동에 종사하게 하던 정책-역자 주)이 시작될 때, 우리 형제 자매 7명 중 4명이 시골로 내려갔다. 평소 집에서 할머니가 우리들의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인도하셨다. 우리 집에는 두 권의 성경밖에 없었으므로 우리는 마음대로 성경을 읽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을 떠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다. 할머니는 집을 떠날 우리들에게 작은 공책 한 권을 각각 사주셨다. 우리는 거기에 시편 91편, 1편,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인 팔복(八福), 갈라디아서 5장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등의 말씀과 찬송가를 몇 곡 적었다. 이것은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언제든지

말씀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다. 종종 집에 올 때마다 할머니는 다른 말씀들을 적어서 농촌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 시절 공책에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화시켰으며, 나는 불을 끈 후 몰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이렇게 10년 동안 농촌에서 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기억할 수 있었다. 현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경험하고 마음판에 새겼던 말씀들이다.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할머니께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내게 가르쳐주신 믿음은 말로 들은 가르침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다.

###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희생과 열매

1969년 말, 고모 내외는 예수를 믿는 지식분자로 낙인 찍혀 노동개조를 받아야 한다는 명목하에 농촌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였지만, 집으로부터 백 리도 더 떨어진 외딴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들에게는 네 명의 아이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맏이는 17세 때에 "샤샹(下鄉)"을 당하여 농촌으로 내려갔으며, 막내는 아직 열 살도 안 된 상태였다. 할머니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모 내외가 신앙을 버리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그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고모네 집으로 가셨다. 3년 동안 할머니의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죄

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등 모두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외부의 환경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임한 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감격이 북받쳐 올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7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고모 내외는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매주 6차례씩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출처/ 中國興福音 23期  
번역/ 박주형·자원봉사자

# 복음의 체계적 교육에 목마른 농촌교회

무 명

**N** 시의 기차역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들이 내 동포, 내 골육지친이 아니던가? 고향을 떠난 40여 년 동안 나는 항상 고향의 산하를 그리워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며칠 전에 어떤 농촌에서 이단들이 난리를 일으켜서 공안 몇 명이 다쳤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공안국의 감시가 아주 엄격해졌기 때문에, 집회도 일정한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분간은 농촌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이번에 중국대륙에 들어간 것은 어느 형제가 나에게 농촌에 방문하여 지도자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획에 맞추어 이곳에 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금 또 다급하게 이곳을 떠나야 하니 마음 속은 마치 해야 하는 일을 두고 떠나는 것 같아 무겁기만 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이 생활을 위해서 분주히 다니며 생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하나님을 떠나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던 것이 생각났다. 나는 고개 숙여 이 나라를 위하여 또한 12억 동포를 위하여 기도했다. 어떻게 이 복음의 빛을 갹아야 할 것인가?

## 일정이 바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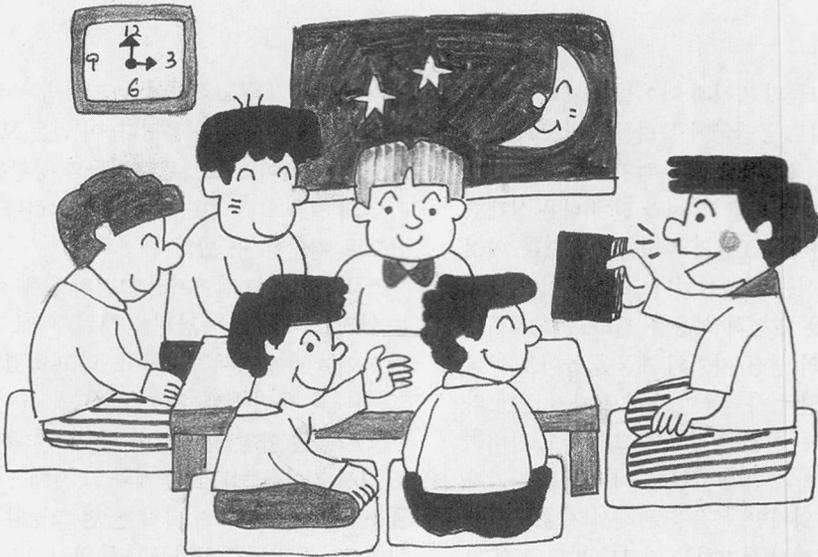
이번 여행 계획은 농촌으로 들어가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대륙에 도착하니 한 형제가 택시를 타고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의 집에는 이미 두 형제가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다음날, 농촌 교회 책임자인 두 형제가 와서 농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농촌 청년 지도자 C형제는 이렇게 어렵게 오셨으므로 그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말로 이번 기회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결국 상의한 끝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하고 C형제는 농촌으로 들어가 몇몇 지도자들을 모아 우리와 다시 합류하기로 했다.

## 영적 무장에 긴급한 명제들

우리들은 바빠 N시에 도착해서 가정교회 책임자 CH형제를 찾았다. 그러나 공안국에서는 그들에게도 엄격한 규정을 정해서 집회 시간을 초과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들여서 머무르게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T형제를 찾아 불러주었다.

T형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기 집으로 기쁘게 맞아주었는데,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방안에 있는 장롱마저도 끄집어내어 임시로 여덟 명이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그날 밤 농촌



장승원 그림

지도자 다섯 명이 왔고, 거기다 N시 가정교회 형제자매들도 몇 명이 더 왔다. 그들도 또한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우리들의 훈련반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했던 T형제는 이 귀한 시간을 놓칠 수 없다고 강권하여, 우리는 즉시 수업을 시작하였는데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우리들은 그 곳에서 이틀간 연이어 수업을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맛보았다. 어떻게 서로 동역하며 지낼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모회를 할 것인가, 교회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방법을 가르쳤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강대상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체계적인 성경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교육정도가 매우 낮았다.

어떤 지도자는 단지 초등학교 3학년 밖에 다니지 못했고, 예수를 믿은 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 C형제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그 방송내용을 받아 적으며 성경 공부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시간조차도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다행히 농촌에 들어와서 그를 돕는 이들이 약간의 책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형편은 조금 나은 편이라고 했다.

농촌에는 목회자가 모자라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다. 성장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 작년에 겨우 이천 명이던 것이 올해에는 오천 명이 되었다. 공안국의 규정에는 참석 인원이 30명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30명을 한 묶음으로 하여 몇천 명을 나눌 수 밖에 없다.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나 많은 묶음이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은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곧 예배를 인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때문에 만약에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그들을 지도해 준다면 그들은 매우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한다. 사실 그들이 이곳에서 모였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훈련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희생이다. 그들은 자기 생업인 농사짓는 것을 방치

해 둔 상태이며, 그들의 가정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또 수시로 공안국에 불려 들어가 조회를 당해야 하고, 심지어 옥살이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C형제도 14일의 옥살이를 하고 몇 시간 전에 나온 상태였다. 또한 그들 개인마다 20원의 차비를 사용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액이었다. 그러나 이런 몇몇의 농촌지도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재물을 돌아보지 않았다. C형제는 공안국 사람들이 수시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그냥 들고 가버려서 그의 집은 곤궁할 수밖에 없었다. 이 형제는 자기가 비록 장사를 하고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이 자기 장사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많다고 한다.

### 주의 보호하심을 본다.

얼마 후에 공안국 직원이 우리들의 행적을 알아차려서 T형제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 그 집을 떠났다. 그러나 CH형제는 혐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일행 10명이 그의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해 주었다. 그들은 방안에 있는 큰 침대를 밖으로 치워버리고 빈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의 식구들은 더욱 우리를 반겨주었다. 주 안에서 사랑은 정말로 귀한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의 집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집은 정말로 완벽한 가정교회였다.

8시가 넘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 자리에 앉지 않았지만 수업은 시작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때 나는 감기를 앓고 있어서 열이 조금 있는 상태였고, 저녁도 아직 먹지 않았지만 이 시간은 절대 나태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날 저녁 토론의 주제는 아주 좋았다.

10시가 넘어서 C형제가 T형제 집에 전화를 했다. 공안들이 이미 그의 집에 다녀 갔으며 내일은 공안국으로 불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C형제는 CH형제의 가정교회가 연루되는 것을 걱정하여, 우리들의 그 모임을 곧 중단하고 농촌의 형제들이 밤을 틔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C형제는 우

리와 동행하기를 고집하여서 그날 밤 우리는 또 다른 자매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일은 모두 급작스럽게 발생한 일이었으므로, 우리들의 상황은 도난선 같이 앞의 일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주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할 수 있었다.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녀의 집에 갔을 때, 그녀는 단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여보, 손님이 왔으니 아이들 방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 침대를 우리에게 내어 주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날이 밝자마자 우리들은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다. C형제와 그 자매는 끝까지 우리들을 돌보아 주었으며 다시 한 번 그들의 필요를 기억 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와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부탁하였다.

이번 여행은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농촌 사역의 필요성과 훈련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일꾼은 적으나 추수해야 할 곡식들이 많은 넓은 밭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진리로 양육되어야 할 무리들과 태부족인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들의 사역을 후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목자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잘 다스려서 정확한 진리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바라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만약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이단들은 사방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동포를 위해서, 우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해야 하며, 주의 도를 굳건히 지켜 모두 주의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출처/ 〈守望中華〉“大陸探親見聞” 1998年 第3期  
번역/ 광 숙 · 본지 편집기자

# 교동(膠東) 및 래양구 회장(萊陽區會長), 이대영 목사

## -이대영(李大榮) 목사(3)-

김 교 철



산동선교사 시절의 이대영 목사 가족

### 1. 이대영 목사 교동노회장으로 피 선(被選)(1928년11월)

중국 산동성 교동노회원 자격과 조선선교회 선교사 자격으로 활동하던 이대영牧사는 膠東노회에서도 영향력있는 인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교동노회는 서구선교사와 중국인 노회원들로 구성된 노회로 조선인 선교사가 합류하게 되었다. 1926년 11월, 즉묵 남백령교당에서 회집되었던 교동노회에서는 1926

년 중국 항주(杭州)에서 모이게 될 중국장로회 총회 총대로 박상순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교동노회는 1928년 11월 4일부터 일주일 간 조선선교회의 즉묵선교스테이션이 위치한 즉묵예배당에서도 개최되었는데 회장에 이대영 목사가 피선되었다. 조선선교사 이대영 목사는 중국선교지에 도착한 지 만 6년이 경과되어 중국노회 노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선교사가

선교지방인 중국노회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영예로운 직분이며 중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나 중국 목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회장이 되어야 했던 시대적인 형편을 생각해 보게 된다.

즉묵예배당(卽墨禮拜堂)에서 개최된 교동노회는 회장 이대영 목사의 진행으로 일차쟁론도 없이 사무처리가 잘 되었으며, 특별히 노회시에 제남제노대학(濟南濟魯大學) 농과(農科)과장인 미국선교사 산립(山立)박사와 청주부신학교(靑州府神學校) 교장인 영국침례회 선교사 백향의(白向義) 목사를 청하여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여 은혜를 받기도 하였다.

산동성 즉묵예배당에서 개최된 교동노회에는 중국, 미국, 영국, 조선 등 4개국 회원이 모여 간담(懇談)도 하였는데, 산립 박사와 백향의 목사는 조선 교회 발전을 기뻐 말하며 모인 사람들도 조선 교회가

산동성에 선교함은 주님의 능력을 증거함이 됨으로 감상(感想)이 많다고 하였다.

1928년 11월, 교동노회장으로 선출된 이대영 목사는 당시 산동노회장인 중국인 루서법 목사, 그리고 방효원 목사와 같이 대회대표로 1929년 4월 3일부터 중국 산동성 제남 동관 중화기독교교회당에서 개최된 산동대회 조직대회에 참석을 하였다. 산동대회 조직대회는 60여 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5일 간 평화한 중에서 산동대회를 조직하였고, 교회와 시국, 학교인가, 종교교육, 전도, 5년 간 교인 배가운동 대회 및 재정규칙 등을 토의하였으며, 특히 조선 교회의 자립정황을 듣기 위하여 조선목사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중국노회 대표들이 조선 교회의 자립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조선 선교사가 산동대회 조직대회에서 조선 교회 자립상황을 설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 선교사 방효원, 이대영 목사는 중국의 이웃 나라 교회인 조선 교회를 대표하여 산동대회 조직대회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되었으며, 중국 교회 자립문제를 연구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 2. 이대영 선교사 가족의 첫 안식년 (1929년 8월 17일~1930년 10월)

1922년 6월 선교지 중국에 도착한 이대영 목사 가족은(부인과 유아 1명) 래양에서 언어를 공부하다가 즉묵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며 언어

공부를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이대영, 홍승한 선교사 소환문제가 거론되었고 이대영 목사는 1925년 2개월 간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되었다.

잠시 고국을 방문하였던 1925년 9월에 이대영 선교사 인임이 결정되었으며 즉묵선교사 이대영 목사는 가족과 떨어져 광범위한 지역을 수개월씩 순회하면서 구령사업에 많은 노력을 다하였다. 이대영 목사 가족은 장기간 중국 선교지에서 활동하였으나 안식년이 늦어지게 되었다. 전도에 노력하는 중에 여러 교회가 부흥됨을 인하여 1929년 봄에 안식년으로 귀국 예정이었으나 가을로 연기하였다가 총회 전에 귀국하게 되어, 1929년 8월 17일 온 가족이 귀국하게 되었다. 장남 규원을 본국 조선에 두고 중국으로 건너갈 때는 이대영 목사 부부와 유아 1명 뿐이었으나 1924년 7월 7일에 얻은 딸과 1927년 7월에 얻은 아들까지 5명이 안식년을 당하여 귀국하게 되었다.

1929년 당시 본국에 두고 갔던 아들 규원(경출-동일인을 말함)은 평양 송실전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장녀 영희는 여름에 늑막염, 복막염으로 중국 청도(靑島)의 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경과가 양호하여 위험을 면하기도 하였다. 1929년 총회록에 의하면 장녀 영희와 차녀 순희는 중국 소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대영 목사 가족의 안식년은 선교사로 파송된 지 만 7년 2개월 만에 주어진 것으로 귀국 1년전쯤인

1928년 9월 대구부 신정예배당에서 개최된 제17회 총회(총회장 김영훈 목사-1913년 파송되었던 중국선교사)에서 선교사 안식년 규칙이 변경되었다. 1928년 당시 외국전도부 부장 차재명 목사의 보고와 청원에 의해 선교사 안식년은 만 7년에 1차 귀국하되 안식기간은 1년으로 가결이 되었다.

총회 외국전도부에서는 선교사 이대영 목사의 안식년 여비를 예산에 포함시켜서 지출을 하여 귀국하도록 하였다. 이대영 목사는 가족을 데리고 선교지 중국을 떠나 본국 조선으로 건너왔으며 따뜻한 환영을 받게 되었다. 무더운 여름에 고국에 도착한 그는 1929년 9월 6일부터 경성 새문안예배당에서 개최된 제18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참석하여 선교보고를 하였고, 안식년 기간동안 중국 즉묵에 건축할 선교사 사택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전국교회를 순회하며 보고를 하였다. 이대영 목사는 안식년 기간 중인 1930년 3월 12일, 모교인 평양신학교 제25회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생 21명이 참석한 중에 졸업식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달인 1930년 4월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 사모는 출산 후 병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선교지로의 귀임을 연기하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는 1930년 9월 12일부터 평양부 서문밖예배당에서 회집된 제19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참석한 후, 1930년 10월에 가족을 대동하고 무사히 선교지로 귀임하여 제2회 중국선교 사역을 시작

하게 되었다.

### 3. 제18회~19회 총회 출석 및 이대영 선교사 주택문제(1929년~1930년)

1929년 여름 귀국한 이대영 목사는 1929년 9월 6일부터 경성 새문안에 배당에서 개최된 제18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참석을 하였다. 제18회 총회에서 조선목사 66명, 장로 66명, 서양선교사 34명 합계 166명이 출석하였는데, 총대 중에는 중국 측목선교사로 활동하였던 홍승한(洪承漢) 목사도 평북노회 총대로 참석을 하고 있었다.

총회시에 외국전도부 부장 조시한(외국전도부 부장 겸 사무국장) 목사는 이대영 목사의 주택건축기금 구입비 1,500원을 총회에서 허락해 주면 선교사 이대영 목사가 안식할 기간 동안 전 조선 각 교회를 순회심방하여 모금하도록 허락청원을 하였으며 그대로 가결되었다.

이대영 목사는 총회가 개최된 지 7일째 되는 1929년 9월 12일 오전에 산동전도 상황 보고할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마태복음 28장 18~20절을 낭독하고 전도상황을 보고하였다. 총회의 허락을 득한 이대영 목사는 전국 조선장로교회를 순회하면서 중국선교 보고와 강연을 통한 활동으로 거액을 모금하게 되었다.

1930년 평양총회 보고에 의하면 이대영 선교사가 각처 순회보고 중에 주택기지 연보로 얻은 액수는 6천원에 달하게 되었다. 예상을 넘는 연보가 나오게 되자 총회결의대로 1,500원은 주택기지대로 지불하고

---

전국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마련된 기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간 이대영 목사는 마침내 측목에 선교사 사택 부지로 780평을 구입하였으며, 1934년 8월에 이대영 목사의 사택을 연와제 2층으로 건축하였고, 부속실 6간과 숙사용으로 10간을 건축하였다. 이대영 목사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에 의하면, 조선 선교사가 세운 건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물보다 더 훌륭한 정도이어서 임시정부 인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고 한다.

---

나머지 금액은 수입되는 대로 주택 건축비로 허락을 하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 주택연보는 1930년 8월 말일 현재 3,399원 1전이 수입되었으며, 그 중에 1,500원은 건축기지대금으로 758원 35전은 순회비로 지불하였고, 나머지 1,140원 66전은 예금을 하였다.

이대영 목사는 전국 여러 지방교회들을 순회방문하였으며 대구부신정(新町)교회(96원60전), 남성정교회(103원43전), 선천읍남교회(100원), 선천읍북교회(128원) 등 전국교회가 적극 연보에 협력을 하였으며, 대구지방 북장로회선교회에서도 80원의 연보로 참여를 하였다. 전국교회 순회시에 주택연보 외에도 여러 물품을 위해 현금하였는데, 황해도 재령유여자성경학교 교장 및 학생 일동은 전도시에 사용할

활동사진 기계대금으로 160원의 거액을 현금하기도 하였다.

전국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마련된 기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간 이대영 목사는 마침내 측목에 선교사 사택 부지로 780평을 구입하였으며, 1934년 8월에 이대영 목사의 사택을 연와제 2층으로 건축하였고, 부속실 6간과 숙사용으로 10간을 건축하였다. 이대영 목사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에 의하면, 조선 선교사가 세운 건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물보다 더 훌륭한 정도이어서 임시정부 인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대영, 박상순 목사가 관여하여 측목선교지에 건축한 건물은 측목 선도당 그리고 이대영 목사 사택과 부속건물이었는데, 임시정부 인사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다고 전한다.



이대영 목사가 활동하던 래양구의 현재 모습

#### 4. 조선선교회 학교 교사로 고빙된 편순남 씨(1930년10월15일)

안식년을 마친 이대영 목사 가족은 1930년 10월에 선교지 산동성 즉묵으로 귀임하였는데, 동행여부는 불분명하나, 동월 15일에 경북 김천(김천)에 있던 편순남 씨가 선교회 학교 교사로 고빙되어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즉묵에 거주하는 이대영 선교사와 박상순 선교사 자녀 아동학교 교사로 고빙된 편순남 씨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바 없어서 자세히 소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총회 외국 전도부는 선교사 아동교사의 여비로 50원을 지출하였으나 생활비 등에 관하여서는 전혀 언급치 아니하였다.

자녀교사 편순남 씨는 조선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산동성 즉묵지역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교수하게 되었으며 열심히 교수하여 학생들

의 성적이 매우 양호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산동 래양에서는 박희복, 조소임, 리영애 씨 등이 교수하였다가 중단이 되었고, 즉묵에 거주하는 두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하여 편순남 씨가 일하게 된 것이었다.

즉묵선교회 학교 교원 편순남 씨는 건강한 가운데 근실히 교수하였고, 이대영 목사의 딸 영희, 순희, 아들 규희 그리고 박상순 목사의 딸 호숙, 진숙, 아들 창화 등이 즉묵선교회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다. 두 선교사 자녀 중에 리영희와 박호숙은, 1934년 봄에 즉묵선교회 학교 소학 6년제 과정을 완료하게 될 상황이었다. 편순남 씨는 즉묵선교회 기지 내에 마련된 건물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1930년 10월부터 1934년까지 즉묵선교회 학교 교원으로 수고하다가 1934년에 동경청산신학원에 입학하게 되어 선교회 학교는 정지되었

고, 편순남 씨는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 5. 안중호 의사 산동 즉묵에 병원개업(1931년 봄)

산동 즉묵에서 의료사업을 하면서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의료사업을 하던 의사 주현칙 장로가 귀국하고 수년 간 의사가 없던 중에 안중호 의사가 중국 산동 즉묵으로 건너와 의료사업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돕기 시작하였다.

안중호 의사는 경북 성주군에서 1899년 출생하였으며, 1926년 대구부 도립의학강습소에 입학하여 3년 반 동안 의학공부를 마친 사람으로, 1931년 봄에 중국 즉묵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개설하고 선교사를 돕기 시작하였다. 선교사 이대영과 박상순 목사에게는 큰 힘이 되었으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안중호 의사는 선교사의 가족들을 책임지고 간호하였으며 개업 이래로 즉묵지방 중국인 인사들에게도 환영을 받게 되었다. 1932년도 보고에 의하면 이대영 목사가 신경통으로 인하여 신음 중에 지내기도 하였는데 의사의 지도대로 40일 간을 휴양하며 기도하였다고 한다.

이대영 목사는 40일 간의 휴양을 요할 정도로 신경통으로 고생을 하였으나, 의사의 지도대로 휴양과 기도로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 평신도 의사 한 가정이 선교사와 동사하면서 여러 모로 선교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힘이 되었던 것이다. 안중호 의사는 1937년 중일전쟁으로 잠시 귀국하였다가 중국 청도(靑島)

로 옮겨 의료사업을 계속하면서 청도 조선인 교회에서 봉사하였다.

**6. 이대영 목사 로동포도단 위임으로 포도단 조직 및 전도활동**

이대영 목사는 중국 산둥성 즉묵성과 주변 향촌을 담당구역으로 맡아서, 지역교회를 돌보는 한편, 로동포도단의 위임을 받아 포도단을 조직하여 중국인 남녀전도인 수 명과 같이 산둥성 즉묵(即墨), 래양(萊陽), 평도(平度) 등 여러 지역을 장기간 순회하며 전도활동을 하였다. 1931년 9월부터 1932년 8월까지 1년 간 중국인 남전도인 2명, 여전도인 1명과 함께 4개 현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순행포도 중에 다수의 중국인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7. 래양구회(萊陽區會)(노회) 조직 (1933년 5월 12일)**

이대영 목사는 중국 산둥성 즉묵성 하남에 거주하면서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선교활동을 하였다. 1933년 보고에 의하면 당시 산둥은 교동사변 이후로 지방치안이 나쁜 상태였으나 조선 선교사 담당 지방교회는 대개 안전한 중에 영적으로는 진흥되어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였다. 1933년 5월 12일은 조선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한 본국 교회와 중국 산둥교회에 매우 의미있는 하루가 되었는데, 그것은 장로교 조선선교사들이 담당하며 선교하던 구역으로 단일 노회를 조직하는 예식을 행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래양노회 조직식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파송한 조선 선교사들의 첫 선교지역이었던 래양에서 열렸으며, 전 성(省) 7노회의 대표등이 참석하였다. 래양구회 제1회 회장은 중국인 루서법 목사가 피선되었으며, 이대영 목사는 래양구회 포도간사의 직임을 맡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는 담임한 중국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래양구회 포도단의 중임을 맡아 각 지방으로 순회전도하는 일과 부흥회를 인도하였는데 교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는 1935년 11월 25일부터 개최된 래양구회에서 회장(노회장)으로 피선되었으며, 1931년부터 산둥성 선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던 여선교사 김순호 씨가 회계로 피선되었다. 1935년 11월 노회의 결의사항 중에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래양노회원 전부가 십일조를 드리기로 서약한 것과 지금부터 교회를 자립, 자양, 자진전도(자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중국 산둥성에서 선교하던 조선선교사들은 선교지 중국 교회들이 조선 교회처럼 자립정신을 갖도록 지도하였는데, 1935년에는 래양노회 차원에서 십일조 서약과 삼자정신으로 교회를 운영하겠다는 결의를 하였던 것이다.

**8. 래양화동성경학교(萊陽華東聖經學校) 교장 이대영 목사**

1923년 1월 1일, 중국 산둥성 래양에 설립한 래양화동성경학교는 한국 교회가 외국에 설립한 최초의 성

경학교이다. 조선 선교사들은 1913년부터 중국 산둥성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는데, 10년 만에 교회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는 성경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 초기부터 방효원 목사가 교장으로 수고를 하였으며 이대영 목사는 래양화동성경학교 교장으로 단기간 시무하였는데, 그것은 선배 방효원 목사가 산둥선교사직을 마치고 1935년 11월 산둥을 떠났기 때문이다.

1936년도 보고에 의하면 이대영 목사는 1935년 11월 노회 이후에 전 지방교회 일을 전담하여 박상순 목사 회임까지 겸임을 하였으며 포도단장, 래양구회장, 래양성경학교장, 즉묵현의회 회계 겸 산동대회 총대등으로 활동하였다.

**9. 안식년으로 귀국(1937년8월)**

1930년 10월 이후 산둥성에서 선교 활동에 전념하던 이대영 목사와 그 가족은 1937년 8월, 안식년을 당하여 귀국하게 되었다. 1937년 당시 이대영 목사의 선배선교사 박상순 목사 그리고 여선교사 김순호, 1937년에 선교사로 파송된 방지일 목사 등이 산둥선교사직을 가지고 있었다.

1937년 日帝의 중국침략 전쟁이 발발한 시기에 이대영 목사는 두 번째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모든 상황은 어렵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김교철**/ 중국선교연구협회 상임총무, 연구원, 부개동교회 외국인 예배 담당목사

## 그리운 제자들

역경 속에서도 인재양성에  
최선, 어린 고아 양육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방 지 일

들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어나갈 일꾼을 키우는 것에는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돕는 데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좋은 인재를 찾아보는 데도 나의 관심은 항상 열려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나는 인물은, 바로 평두(平度)에 살고 있던 위신산(于信善)이라는 여학생이다. 성격도 활발한 데다 복음 전도사명도 있어서 나는 그녀를 신학교에 진학시켰다. 그녀는 학업을 마친 후 여전도사가 되었는데, 이 지방에서는 큰 일꾼이 되었다. 또한, 지모(即墨)에 부모를 다 여윈 왕위메이(王玉美)라는 여자 아이가 있었다. 그녀를 내가 완전히 맡아 중·고등학교를 졸업시킨 후, 홍대위 목사가 재직했던 루터교신학교에서 공부시켜 성실한 여전도사가 되게 한 일은 매우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왕 전도사는 학교 다닐 때에도 방학이면 우리 집에 머무르면서 교회 일을 도왔다. 그 모습은 마치 친정집을 오가는 듯하였으며, 참으로 귀한 주의 일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녀에게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은근히 그녀가 한평생 주의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결혼을 할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위메이, 네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것이 정말이니?”

“어차피 결혼을 할 것 같으면 더 늦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선시우메이(熏修美) 전도사님께서 50세가 다 되어 70에 가까운 장로님과 재혼하는 것을 보니, 차라리 일찍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일하던 선 전도사가 결혼한 것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이제 왕 전도사의 생각을 알았으니 그 일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녀의 상대가 되는 남자는 우리 교인의 아들이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사역 일선에서는 물러났다. 이 때 나는 교회의 큰 보배를 잃어버린 것 같은

여러

전쟁을 거듭 거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 지방을 다니다보면 교통편이 자주 끊겨서 서로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산간벽지에 있는 교회와 양들에 대한 나의 관심은 교통이 자유로울 때보다 더 강했던 것 같다. 기도의 줄로 굳게 묶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교통할 수 있었으며, 서로 격려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다. 그렇게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였지만, 힘이

## 중국선교의 발자취



방 목사는 중국 선교사 시절, 역경 속에서도 인재양성에 주력했다(사진은 최근 모습).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전도사 못지 않게 충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그 아쉬워 하던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핑두의 위신메이 전도사도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하여 결혼을 하게 했더니, 그녀 또한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가정을 이루 어 교회의 모범이 되는 것을 보고 흐뭇했다.

어쨌든 정성들여 길러낸 두 여자 전도사 들을 놓친 셈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를 찾아보았다. 리우옌(劉延)이라는 청년은 믿음 좋은 집안의 3형제 중 셋째였다. 그를 성경학교에 진학하게 하였더니, 충실한 일꾼이 되어 내 손발같이 나를 도와주었다.

그리고 대학생으로는 덩바이요우(丁百由)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도 믿음이 좋은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고,

그 형은 라이양(萊陽)교회 집사로 교회에 충실한 분이였다. 덩 형제는 머리가 영민한 청년으로 신학대학을 보냈다. 그는 학업을 마친 후 청년 교역자로서 대외적 활동이나 대내적 행정 계획에 능해서 성도들의 촉망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무는 이 형제에게 맡겨졌고, 기대에 부응하여 일을 잘하였다. 그러나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좀더 주의를 주면서 잘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시국이 점점 악화되면서 서로 연락도 못하게 되었다.

연락이 끊긴 후에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지 지금까지도 궁금하다. 그 때는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도 고소하고 서로를 비판하게 하는 등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이 내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양육하게 하신 그 일꾼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 그 어려운 시대상황에서 초차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하게 품어주신 것을 직접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다. 지금도 그들이 생각하면 그럽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내가 학업을 돕지 못한 이들 중에서도 믿음을 키워낸 귀한 형제들이 그립다. 탕스더(唐士德)라는 형제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못한 체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와 주곤 했다.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 내게 이런 살뜰한 형제들이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기에 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었다.

출처: 《福音歷史半百年》 중에서  
방지일/ 목사,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 험산준령에 마련한 복음의 요람

- 꾸이저우(貴州)성 목회자 훈련반 참관기

쏟아지는 빗발을 뚫고 온몸에 진흙탕을 뒤집어쓴 듯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형제자매들을 창문너머로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뜨거운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선량하고 순박하며,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들이여!

리아딩(李亞丁)

(꾸이저우성 삼자애국운동위원회 부주석이자 리우판쉐이(六盤水)시 기독교교회 회장인 탕롱타오(唐榮濤) 목사의 초청으로 난징(南京)신학교 교사와 학생 아홉 명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꾸이저우성 기독교신학원이 있는 판(盤)현에서 열린 일 개월 간의 꾸이저우성 목회자 훈련반을 참관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

꾸이저우는 정말로 멀었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난징에서 판현에 이르는 데는 무려 3일 밤낮이 걸렸다. ‘꾸이저우뚜오산(貴州多山)’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기차가 꾸이저우성 경내로 들어서자 연신 터널이 나타났으며, 터널을 통과했다 싶으면 산과 산 사이를 잇는 철교를 몇 번 건너면서 꾸이양(貴陽)에 도달하였다. 아니 꾸이양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버스는 험산준령 속을 나선형으로 구비구비 돌아가는데, 때로 식은 땀이 날 정도로 아슬아슬한 순간도 많았다. 우리들이 판현에 도달한 것은 새벽녘이었으나 탕 목

사와 훈련반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기차역에서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들이 들고 있던 짐 보따리는 형제자매들에 의해 ‘강탈’당했다. 신학원은 산중턱 기슭에 서 있어서 고개들어 쳐다보니, 불현듯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라는 시편말씀이 떠올랐다.

우리들이 도착한 때는 우기였다. 산은 높고 길은 먼데, 워낙 걷기 힘든 가파른 산길이 비로 인해 진흙탕으로 변하고, 또 산사태로 그나마 길이 막혀버린 곳도 많아 대부분의 훈련반 학생들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도 아랑곳없다는 듯, 속속 도착하는 그들의 모습은 희희낙낙 그 자체였다. 쏟아지는 빗발을 뚫고 온몸에 진흙탕을 뒤집어쓴 듯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형제자매들을 창문너머로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뜨거운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선량하고 순박하며,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들이여!

수업이 진행되자 이내 교실은 가득 차 더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고 하는 수 없이 창문밖 처마 밑에 간이 의자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뭇가를 애타게 갈망하는 눈동자들과 흥분으로 가득한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고무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전력을 다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쏟아내놓기 전에는 그들을 대할 면목이 없을 것 같은 압력을 느꼈다.

기층 교회의 실제적 필요를 염두에 두고 우리들은 각각 목회학, 설교법, 기독교 기본교리와 이단사실, 삼자원칙 등과 아울러 예수의 일생, 사도행전, 목회서신, 계시록 등 성경의 권별 이해를 돕는 강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훈련생들의 교육정도는 천차만별이어서 강의 도중 끊임없이 그들의 반응을 청취해야 했으며, 수시로 강의방법을 조종하여 최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해야 했다. 또 낮에는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토론을 하는 방식을 택해, 모든 사람들이 강의 받은 내용과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에 관해 질문할 기회를 주고, 이를 함께 나누면서 최대한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애당초 우리들은 하루종일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수업하는 것이 익숙지 않아 줄거나 불편해 할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였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는 곧 쓸데없는 걱정임이 드러났으며, 오히려 우리들을 겁먹게 하였다. 하루 8시간 수업에 저녁토론과 친교, 경건회, 찬송부르기 등의 활동이 매일같이 계속되어, 설령 교실수업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과정이었지만, 이들은 늘 만족감에 싸여 있었다. 때로 어떤 이가 졸음을 견디지 못했으면, 방과 후 우리들을 찾아와 “미안합니다, 선생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졸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했거든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겠습니다.”라며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삶의 온갖 시련을 다 겪어낸 이 농민신도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수업에 임하고 또 열심히 필기하는 그 진지함을 보면서, 그리고 귀밑머리가 이미 하얗게 새어버린 ‘늙은 학생’들이 우리 ‘어린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었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훈련반에 참가한 42명의 학생들은 꾸이저우성

각지로부터 왔으며, 그 중에는 목회자(목사, 장로, 전도인)가 28명, 각지 기독교협회와 교회당, 처소관리인이 14명, 그리고 관현의 신도들도 몇 명 방청객으로 자리하였다. 이 훈련반은 또한 마오족(苗族), 한족(漢族), 이족(彝族), 푸이족(布依族), 바이족(白族)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 훈련반이었으며, 다수는 마오족이었다.

훈련생들은 방과 후 친교활동에서 우리들에게 솔한 감동적인 간증을 했으나, 지면관계상 하나만 소개하기로 한다.

꾸이저우성 즈진(織金)현 스싱(實興)향 하이마충(海瑪冲)교회는 문화대혁명 기간의 동란 중에 신도 중 어느 누구도 조반파(造反派; 문화대혁명시 동란을 일으킨 주역을 일컫는 말-역자 주)에 가담하거나 정부관리에 대한 비판투쟁을 가하지 않았다. 당시 수많은 인민공사들이 조세로 바치는 양식을 내지 않았으나, 그들은 매년 한 근도 부족하지 않게 납세하였다. 문혁이 끝난 이후, 정부는 이 교회에 ‘선진단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부여하였다. 그들은 이 칭호에 부끄럽지 않게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마오족 교회는 자손들을 위해 한어와 마오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100여 명의 학생들을 모았다. 그들은 교실이 없어서 교회에서 수업을 하였다. 후에 정부 관련부문의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이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손에 손마다 성경, 찬송가를 들고 있으며, 모두가 읽을 줄 알고 노래부를 줄 아는 것을 보고 대단히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돌아가서 120만 위안의 기금을 이 교회로 보내주어 6개의 교실을 갖춘 2층식 학교와 교육기재들을 마련하게 해주어, 소수민족 문화교육 창달에 공헌하였다.

이 교회는 또한 민족체육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이 교회 출신의 신도 몇 명이 꾸이저우성 소수민족을 대표하여 전국 소수민족운동회에 궁도선수로 참가하여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여 이 마을은 전 성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훈련된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궁도의 고향”으로 불릴 정도가 되었다.

늘 이 마을을 방문하는 향 정부 빈민구제위원회의 한 간부는 어느 날 교회의 장 장로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고 한다. “매번 당신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갑니다. 당신들이 모일 때에는 어린아이들의 우는 소리는 들을 수 없고, 오직 웃음소리만 들립니다. 수년 동안 말다툼하는 부부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갈수록 사회분위기가 흥흥해져서, 마을마다 소, 말, 돼지, 닭 등의 절도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이 마을의 어느 집을 보아도 집안에 사람이 있든 없든 어느 한 집도 자물쇠로 잠근 집이 없으며, 빨래도 모두 바깥에서 말리지만 누군가 무엇 하나 잃어버렸다거나, 심지어 계란 하나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다. 이 교회촌은 건국이래(1949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형사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조차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현을 통틀어 계속하여 문명촌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목회자훈련반은 꾸이저우성 기독교신학반 가 건물에서 시작되었다. 이 건물은 300평방 미터의 4층

집으로 안에 주방, 학생숙소, 교사실, 교사숙소, 교실 등이 비좁게 모여 있다. 옥상마저도 양계양돈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처참한 조건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서도 신학반의 교사와 학생들은 한결같이 이 건물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의 표현을 빌면, “지금의 조건은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전에는 어떠했다는 말인가?

이 신학반의 전신은 리우판쉐이시 기독교 신학반으로 1992년 겨울에 설립되었다. 리우판쉐이시는 산하 3개

현과 1개 구에 모두 140여 개소의 예배당과 처소교회, 그리고 270만여 명의 신도가 있다. 그 중 야오족이 약 60%를 차지하고, 이족, 푸이족 등 소수민족이 20%, 한족이 약 20%인데, 대부분은 빈곤한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건국이래, 교회는 정규신학을 공부한 전도인들이 절대부족하여 성경의 아전인수격 해석, 왜곡 등이 빈번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수한 선량한 신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 내의 뜻있는 사람들이 노심초사 분주히 쫓아다닌 결과 시 당위원회와 시 정부의 비준을 받아 신학반을 열게 된 것이다. 그 목적은 매우 분명하여, 소수민족교회를 양육하기 위해 성경진리에 밝은 ‘전도인’을 키워내는 것이었다.

꾸이저우성의 소수민족 집거지역인 궁색한 고산지대에 이와 같은 신학반을 설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거의 무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런 비용도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 결과이다. 탕룽타오 목사(탕 목사는 의사이다)의 ‘인애진료소’의 일 년 수익금을 고정현금으로 하고, 국내외 동역자들의 기쁨에 찬 소액의 현금을 바탕으로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학반은 설립되었다. 처음 시작하였을 때, 학생과 교사는 모두 맨손으로 고통을 나누어 가졌다. 빌린 교실은 13평방 미터로 최대한 27명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도였다. 교사와 학생은 모두 다섯 군데의 셋집에 나뉘어 기거하였는데, 남자들은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여자들은 두 명이 일인용 침대를 사용하였다. 주방이 없어서 식사문제는 사방으로 흩어져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입학한 학생 중의 다수는 지극히 가난하여 매월 식비의 절반(50위안)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아름다운 간증을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도시의 부유한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이 클수록 주님의 은총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못 형제자매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으로 1993년 말, 그들은 마침내 300평방미터의 4층집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새 책걸상, 이삼백 권의 도서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비록 여럿이서 한 방을 쓰지만, 대나무판으로 만든 이층침대에서 자게 되었으니 이전의 맨바닥에서 잘 때와 비교하면 그지없이 좋은 조건이다. 조건이 어떠하든, 모두가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잠잘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러한 조건하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신성한 사명을 망각한 적이 없다. 전체 학생과 교사들은 과외시간을 이용하여 길을 보수하고 나무를 심는 등, 한 학기 동안 70여 일의 노동일을 투여하여 40여 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열심히 노동했던 일은 주민들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훈련되는 신학생들은 성경을 특별히 사랑하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익힐 수밖에 없다.

성경암송대회에서 가장 많은 구절을 암송한 사람은 심지어 1,210절의 구절을 외우기까지 하였다. 학생 중에서 마태복음 제1장에서 10장까지를 모두 암송한 이가 4명 시편 1편부터 30편까지를 외운 이가 3명, 그리고 한 학생은 시편 전권을 송두리째 암송하였으니 모두 놀라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이 2년제 신학반은 이미 세 번에 걸쳐 1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들은 졸업 후 대부분 고향 교회로 돌아갔으며, 소수민족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 신학교의 험난한 여정과 아름다운 이야기는 신문이나 방송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리우판웨이시의 텔레비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신학반의 입학식, 성탄축하예배, 그리고 평상시 예배 실황을 보도하였다. 1995년 3월, 북경에 있는 <장정기사 長征記事> 촬영팀이 이 신학반에 와서 탕 목사를 취재하고 또 신학반의 예배와 수업광경 및 ‘인애진료소’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1994년 11월 29~30일 신학반은 선진단체로서 리우판웨이시 “양대문명건설” 표창식에서 표창을 받았다.

1996년 9월, 꾸이저우성 종교국 지도자들이 이 신학반을 시찰한 이후, 꾸이저우성 기독교사역을 위해 이 신학반을 꾸이저우성 기독교 신학반으로 개칭할 것을 인가하였다. 이후 성 기독교협회는 종교국과 협의하여 신학반이 성급 신학반으로 바뀌면 성의 수도인 꾸이양(貴陽)시로 학교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경비와 학교장소 마련 등 구체적인 문체가 산적해 있어, 전국 각지 동역자와 신도들의 기도와 물질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중국교회> 제15호에서 발췌  
리아딩/ 난징 신학교 교수



#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서 중국선교사로

-에릭 헨리 리들

##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 말은 1924년 파리 올림픽의 100m 예선 경기가 주일에 거행됨을 알게 된 '에릭 리들'이 선언한 말이다. 이러한 그의 신앙은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후인 1981년 영국의 데이빗 퍼트넘이 제작한 「불의 마차」라는 영화에 의해 전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중국 선교사 제임스 던롭의 아들로**  
에릭 리들은 1902년 1월 6일 중국 텐진(天津)에서 선교사 제임스 던롭 리들과 메리 레든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에릭 리들의 부모님은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였다. 에릭이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제임스는 북중국 평원에 위치한 "소창"에 새로운 사역지를 갖게 되었다. 그 지역에서는 에릭과 그의 형 로버트는 유일한 유럽 아이

들이었지만 또래의 많은 중국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다. 탁구와 장기 등의 놀이를 하며 중국 아

이들과 어울려 노는 가운데 중국어도 차츰 익숙해지게 되었다. 에릭은 금발에 유난히 파란 눈동자를 가진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로, 어렸을 때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자주 아프고 가장 많은 걱정을 안겨 주는 아이였으며, 남달리 정이 많았다. 에릭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스코틀랜드 찬송 99장"으로 어린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늘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나중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삼켜 버리기도 했다. 에릭은 또한 웃음이 무척 많은 아이였다. 한번 웃음보가 터지면 혼자 깔깔거리며 도무지 그칠 줄을 몰랐다.

에릭이 5살이 되던 해 제임스와 메리는 스코틀랜드를 떠난 지 8, 9년 만에 첫 휴가를 얻었다. 중국 대

평원의 황토와 모래사장만 보아온 아이들에게 스코틀랜드 산악의 절경과 무성한 숲은 그저 신기하고 놀랍기만 했다. 1년의 휴가 기간을 보내고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자 제임스는 로버트와 에릭을 런던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블랙히스"의 "선교사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에릭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유난히 야위고 내성적이었으나, 그의 상냥함과 솔직함은 여러 학생들 가운데서도 특히 돋보였다. 당시 학생들은 럭비와 크리켓, 테니스 등 체육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에릭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강인한 체력을 가진 학생으로 변모하였다. 그의 내성적인 성격도 연극 발표회에서 배역을 잘 소화한 이후 점차 활발해져 가기 시작했다.

에릭이 13살이 되던 1914년, 세계는 1차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었다. 많은 상급반 학생들이 전쟁에 참가함으로써 운동 선수들의 연령은 점차 낮아져서 에릭은 겨우 14살인데도 학교 럭비팀에 선발되었다. 그 외 크리켓팀과 럭비팀 주장으로서 운동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하지만 그가



육상 선수시절의 에릭.



스코틀랜드에서 안식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에릭, 플로렌스 그리고 두 딸 헤더와 페트리서(오른쪽).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육상 경기였다.

에릭이 운동과 학과목 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참가한 것은 성경 공부 모임이었다. 학교에서의 정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에 그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그는 한 번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적은 없지만, 모임이 끝난 후 모임에서 들은 것을 조용히 정리해 나갔다.

### 에딘버러 대학의 만능 스포츠맨

1920년 에릭은 에딘버러대학에 입학하였다. 에릭은 한 친구의 권유로 아주 우연하게 에딘버러 대학에서 육상 선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다. 그는 이 경기에서 스코틀랜드의 가장 빠른 주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네스 스튜어트와 겨루어 110야드에서 1위를, 220야드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 경기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예고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에릭은 1921년 스코틀랜드 4개 대학간의 친선 육상 경기 때 1위를 차지한 것을 시발로 하여, 1922년 에딘버러대학의 육상 대회에서 3관왕, 같은 해에 개최된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의 우승 등 계속하여 신기록 행진을 해나갔다. 에릭의 놀라운 활약은 그가 육상계를 떠나 중국으로 갈 때까지 4년 동안 스코틀랜드 최우수 육상 선수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그 누구도 깨지 못한 놀라운 위업을 이루었다.

에릭의 놀라운 성공의 비결은 아마도 그의 내적인 믿음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은 보통 육상 선수들과는 달리 시선을 목표점에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양팔은 마구 휘젓고 다리는 꼳꼳하게 치켜올리며 뛰었다. 에릭과 함께 같은 경기에서 뛰었다는 어느 육상 선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확실히 어떤 영감을 갖고 뛰는 것 같았습니다”

에릭은 육상 선수로서의 놀라운 기록과 업적으로도 유명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육상 트랙에서의 보기 드문 기사도정신과 따뜻한 인간애에 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초보 선수에게 유리한 안쪽 출발선을 양보하고 자신은 가장 불리한 바깥 구간에서 뛰기도 했다. 또한 당시에는 출발 지점에 발을 집어넣을 흙을 모종삽으로 파야 했는데, 아

수 없었으므로 에릭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모종삽을 쓰라고 권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의 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또한 당시에는 흑인 선수를 본 척도 않는 것이 상례였으나 에릭은 흑인 선수와 상냥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당시 스코틀랜드인들 간에 에릭 리드의 인기는 절대적이었다. 에릭이 출전하는 경기마다 신비스러운 면서도 인간적인 한 선수의 모습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에릭은 이런 대중들의 환호에 자신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며, 평생 일관된 삶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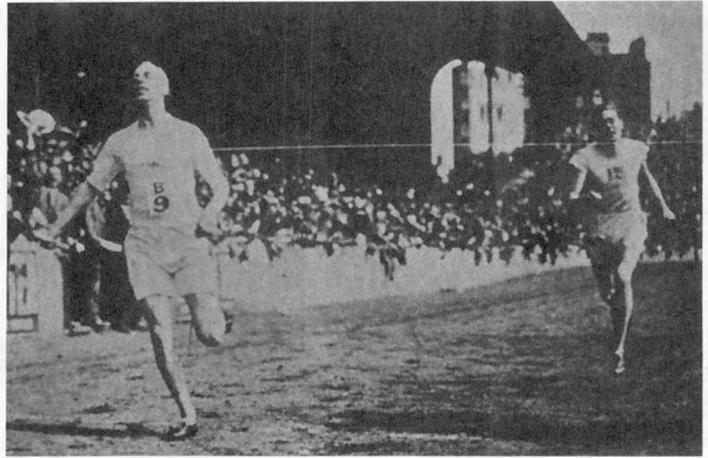
###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1922년 초부터 스코틀랜드에서는 대규모의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운동을 주도한 이는 주로 대학생들과 1차대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아머데일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데이빗 톰슨과의 만남은 에릭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1923년 4월 6일 아머데일 시청에서 열린 전도 모임에서 에릭 리들은 자신의 신앙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증거하였다. 이제 그의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전도의 차원으로 전환이 되었다. 에릭과 톰슨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수많은 전도 모임을 통해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직자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섰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다. 에릭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은 아머데일에서의 모임 이후 더욱 신비스러운 영감으로 이제까지의 육상 기록들을 갱신해 나갔다.

에릭은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100m 경기에 영국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100m 경기의 예선이 일요일에 거행될 것을 알자, 에릭은 “저는 주일에는 안 뛰니다”라는 단호한 자기 결정을 알렸다. 에릭의 출전 포기 결정에 대해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던 영국 국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으며 배신감마저 느꼈다. 하지만 에릭의 육상 동료들은 그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귀감으로 삼았다.

100m 경기를 포기한 에릭은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하여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땀으며, 대신 100m 경기에서는 해롤드 에이브라함스가 영국을 대표하여 금메달을 땀다. 에릭이 불과 몇 달만의 연습으로 100m와 전혀 다른 400m 경기의 장애를 극복했



파리 올림픽 직후 런던에서 미국팀과의 1600m 계주 경기. 왼쪽이 에릭, 오른쪽이 미국의 호레이서우 피치 선수.

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불가사의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에릭의 신앙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있는데, 에릭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 200m는 힘껏 저의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에릭의 「저는 주일에는 안 뛰니다」라는 결정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듯 고뇌에 찬 결정이 아니었다. 우리가 밥 먹고 호흡하듯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바로 그러한 에릭의 단호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 일선 선교사로서의 부름

에릭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 금메달의 영예에 머물지 않고 중국 선교사로 갈 것을 발표하였다. 많은 동료들이 그의 중국행을 만류했으나, 중국 선교사로 평생을 바쳐 일하고자 하는 그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에릭이 떠날 때 수백 명의 군중들이 그가 탄 마차를 따라서 역까지 왔으며 찬송으로 역을 진동시켰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그 누구도 에릭과 같

은 열광적이며 가슴 뭉클한 환송을 받지 못했다.

에릭은 천진의 영중 기독교 학교에서 과학과 체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선교사로서의 첫 과업을 시작하였다. 에릭은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대하기를 좋아하여 수업 후에도 항상 학생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곤 했다. 1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는 성경 공부 시간은 그에게 더 없는 기쁨의 시간이었다. 에릭이 아이들에게 심어 주려고 한 ‘아침 기도’와 ‘성경 읽기’는 바로 그의 삶의 원천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평생 하루도 빠짐 없이 실천하였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점은 철저한 자기 신앙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행동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다는 것이다.

1931년, 에릭은 첫 안식년 휴가를 맞아 스코틀랜드로 가서 목사 안수 과정을 이수하고, 1932년,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34년, 에릭은 캐나다 선교사의 딸인 플로렌스 맥켄지와 텐진의 연합교회에서 결혼을 하였고, 이듬해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아 그의 가정은 서서히 안정되어 갔다. 그러나 1930년대 중국은 내란과 전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해 갔으며, 농촌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선 선교사 수는 나날이 줄어들어 갔다. 1935년, 에릭은 지역 선교 본부로부터 소창에서 일선 선교사로서 사역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일선 선교사로 일한다는 것은 가족과 이별을 뜻하는 것이었고 에릭 자신도 일선 선교사로서의 확신이 들지 않아 많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따르기로 했다. 에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부분의 동료들은 비난을 표시했지만, 에릭은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맡겼다. 에릭은 일선 선교사로서 대평원 내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현지 중국인 선교사와 신도들을 보살피며 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전거나 짐마차를 타고 산골에 사는 중국 신도들을 격려하고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을 도와주었다. 숙식은 중국인 신도의 가정에서 해결하였는데, 끼니가 없으면 함께 굶기도 하고 밤에는 거적을 덮어쓰고 자기도 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배고픔과 추위, 강도의 위협 외에도 일본군들의 잦은 검문과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 선교 본부를 폐쇄시키려는 압력 역시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일본군을 대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 간에 시종일관 웃음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일본군과 타협하지도 않았다.

1939년 2월 에릭은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 일본군에게 부상당한 중국인 두 사람을 80리 넘게 떨어진 곳에서부터 소달구지에 싣고 무사히 돌아온 것이다. 그들과 5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본

군의 대부대가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전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39년 에릭은 두 번째 안식년 휴가를 맞아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다. 군중들의 환영 열기는 여전했다. 이제 세계는 제2차세계대전으로 돌입하고 있었다. 에릭의 친구들은 조국에 남을 것을 권했으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는 가족과 함께 다시 중국으로 떠났다.

### 일본 수용소에서의 완전한 순종

1941년, 소창의 선교 본부는 일본군에 의해 활동을 정지당했으며, 선교사들도 선교 본부를 떠나야 했다.

당시 중국에 있던 영국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곧 수용소에 보내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에릭은 많은 기도 후 가족들을 캐나다로 보내기로 했다. 1941년 5월의 작별, 이것이 에릭과 가족들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1942년, 에릭과 동료들은 일본군에 의해 산동성의 “웨이신”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이 수용소에는 여러 국적을 가진 1,800명의 사람들이 생활해야 했으므로, 부족한 식량과 전염병 못지 않게 사람 사이의 갈등이 꽤 심각했다. 특히 선교사들과 사업가들의 반목과 긴장은 두드러진 예였다. 에릭은 이런 선교사들과 사업가들의 틈을 메워 주는 완충제 역할을 담당했으며, 양쪽 모두에게서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에릭은 수용소에 도착한 후,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수용소 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과목 외에 많은 운동 경기와 게임 등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그런 그에게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순간이 왔다. 에릭은 아이들에게 주일에는 어떤 경기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지만,

아이들이 주일날 경기를 하다가 심판이 없어서 판정을 놓고 싸움을 한 것이다. 그 다음 주일 에릭은 경기장에 나와 심판을 보여주었다. 올림픽 금메달의 영예를 마다한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 그의 평생 신조를 깨뜨린 것이다.

이처럼 에릭은 융통성 없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사랑으로써 주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 나간 신앙인이었다. 에릭은 수용소 두 동의 책임자로서, 물을 길고 오물을 퍼내고 청소를 하였으며, 아이들을 지도하고 크리스천 모임에서도 여러 책임을 맡고 있었다. 실로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들이었다. 수용소 내의 식량 사정이 점점 악화되어 가자 에릭의 체력 역시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눈에 띄게 약해져, 결국 독감과 후두염, 영양 실조로 쓰러졌다. 그리고 뇌의 염증으로 인한 심한 두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에릭은 항상 명랑함을 잃지 않았으며 주변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였다.

1945년 2월 21일 저녁, 에릭은 심한 두통 속에 “완전한 순종...”이라는 말을 남기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 영영 깨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의 삶은 그가 임종시 남긴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삶, 바로 그것이었다. 에릭이 육상 트랙과 인생의 무대에서 달려간 모습은 “썩어지지 않을 면류관”을 쟁취하기 위한 영적 경주자가 지켜야 할 원칙들을 철저히 지켜나간 아름다운 삶이었다.

**출처** 《불의 마차》·박광희·생명의 샘  
정리/ 임선미(자원봉사자)

# 대홍수를 막아라

## -군민이 따로 없는 제방쌓기

장 신(江迅)



지우장시의 수해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사진은 지붕까지 물이 차서 배를 타고 주택가를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금년에 중국 남부와 서남부 지역에 큰 폭우가 쏟아져 수재(水災)로 인한 사망자수가 삼백여 명에 이르렀다. 피해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자 위생부에서는 장마 후 유행병이 돌지 않도록 긴급지시를 하달했다.

6월 중순 이후로 중국 남부지역에서는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져 장시(江西)성, 푸젠(福建)성, 광시(廣西)성, 광둥(廣東)성, 후난(湖南)성, 후베이(湖北)성, 저장(浙江)성의 일부 하천지역에서 잇달아 홍수가 발생했다. 수해가 발생한 이들 지역에

서는 전력을 다해 홍수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호북성 한 성에서만 6백여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어 제방쌓기 작업을 실시하고 홍수방지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6월 23일 북경에 마련된 국가 재해방지 총 비상본부는 이미 제2호 장마 주의경보를 발령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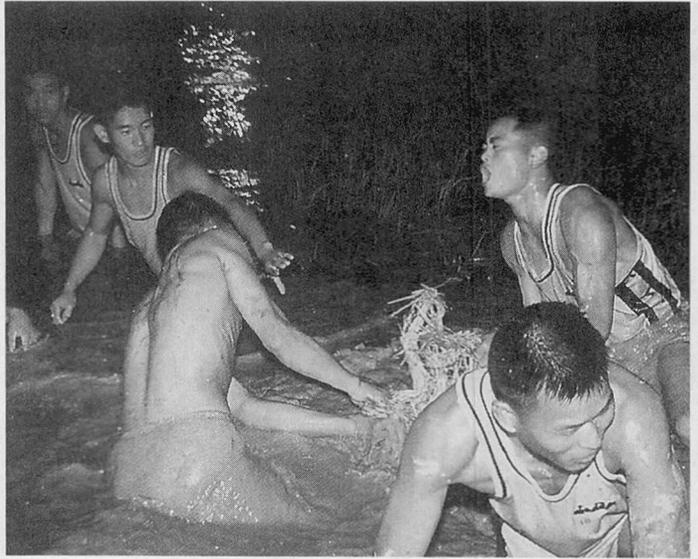
장시성, 푸젠성, 광시성 등 일부지역에서는 총강수량이 1천 밀리미터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푸젠성 민(閩)강에서는 1900년 이후 최대의 홍수가 발생, 잉사(鷹廈)철

도가 끊어졌으며 푸젠성 푸저우(福州)에서는 강변 주민주택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 또한 이 홍수로 엄청난 재난이 발생, 이미 최소한 44명이 죽고 34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3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우이(武夷)산과 푸청(浦城), 광쩌(光澤) 등지에서도 9일 내내 대폭우가 몰아쳐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엄청나게 불어난 강물로, 6월 21일 푸젠성 수력발전소는 댐문을 열고 물을 내보낼 정도였다.

장시성의 신(信)강과 푸(撫)강에서는 또다시 유사 이래 최대의 홍수가 발생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장시성 지우장(九江)시의 양쯔강(揚子) 제방 중 이미 열여섯 곳이 붕괴돼 사태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전 같으면 제방 바깥쪽 주민들만 대피해 있으면 되었으나, 현재는 제방 안쪽의 주민들조차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지우장(九江)현 용안(永安)현의 가오리우팡(高六房)촌에서는 제방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위험을 알리기 위해 빨간색 표시를 해 놓고, 제방 안쪽에는 큰 돌들을 쌓아놓았다. 이전에는 이 일대에 제방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양쯔강 수위가 불어나고, 수위의 변화로 인해 북쪽 해안

공안 교통경찰과 무장 경찰들은 사태 발생지역에 달려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가에는 모래와 흙이 쌓이고 남쪽 해안은 물에 씻겨졌다. 결과적으로 제방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무너지고 말았는데, 심지어 20여 미터 가량이 쓸려나간 곳도 있었다.

현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임시적인 응급조치밖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또 금년 발생한 양쯔강 홍수 사태가 54년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와 흡사하다고 하면서 지우장, 양쯔강 같은 큰 제방이 이번 홍수를 견뎌낼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 저장성 시에(瀋)산 -- 토사론 인해 3백 명의 사상자 발생

광시성의 시(西)강에 있는 우저우(梧州)의 수위도 이미 위험수치를 넘어섰다. 광둥성 안에 있는 베이(北)강과 지양시성의 수위도 높아 가고 있는 중이며, 6월 24일까지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두 명, 부상자 수가 세 명이 나왔다. 현재도 이들 강물의 수위는 계속 불어나고 있

는 상태이며, 저장성에서는 연이은 폭우로 인해 엄청난 양의 토사가 떠내려와 사상자수가 3백 명에 달하고 있다.

“하늘의 도시”라고 불리는 쓰촨(四川)성에서도 재해는 발생하고 있다. 6월 18일 열 시간이 넘는,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 폭우가 산의 도시 충칭(重慶)을 갑자기 덮쳤다. 충칭 시내와 북부지구에 쏟아진 1백 밀리 넘는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공장이 물에 잠겼다. 오후 2시 50분 쾡하는 소리와 함께 충칭 남쪽 해안 현단묘에 있는 주민 거주지 슌신(石新)촌의 대형 쓰레기 처리장에 토사와 돌들이 굴러내려와 산 아래에 있던 4가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9명이 흙에 매몰되었는데, 그 중 여덟 명은 사망했다.

바난(巴南)지구의 우부전(五步鎮)대교도 물에 잠겨 불어난 물로 초등학교 두 명과 노인 한 명이 떠내려 갔다. 베이페이둥(北碚童)의 자시(家溪)라는 곳에 사는 한 농촌 부녀자도 홍수로 목숨을 잃었다. 장

진(江津)에 있는 창사전(長沙鎮)의 스룽산(石龍三)이라는 곳에 있는 저수지 세 곳도 홍수로 무너졌으며, 그 마을에 사는 부녀자 한 명도 익사했다. 충칭시의 제2 밸브 공장과 가파른 경사지역 위쪽에 위치한 시립 92중학교도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난안(南岸)구의 구청과 군부대에서 긴급 구조작업에 들어갔다. 공안 교통경찰과 무장 경찰들은 사태 발생지역에 달려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주민들도 모래와 흙을 걷어내다가 폐허 더미에서 8구의 시체를 발굴해냈다.

### 일부 재난은 사람이 만든 인재

이번에 갑자기 몰아 닥친 폭우로 인해 거의 8백여 주택이 물에 잠겼는데, 그 중 지우룽포(九龍坡) 타오화시(桃花溪) 부근에 있는 노동자 기숙사가 가장 심각한 상태다. 가는 곳마다 홍수가 휩쓸고 간 수마의 흔적이 눈에 띄이며 강북 져신(建新)동로 51번지 완저우(萬州)지구 인



가는 곳마다 홍수가 휩쓸고 간 수마의 흔적이 눈에 띈다.

민정부 충칭사무소 일대는 1미터 높이로 물에 잠겨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다. 모두 320여 개에 달하는 충칭시 기업들이, 규모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피해를 입어 인민폐 3천만 원(약 360만 달러)의 경제손실을 입었다. 충칭시 양쯔강 시멘트 공장에서는 작업장에 차오른 5~10미터나 되는 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이십만 원(元), 간접적으로는 육십만 원(元)의 손실을 입었다. 그 날 조속한 생산활동 재개를 위해 전 공장 직원들이 총동원되어 물을 빼냈다. 황자옹(黃桷坪)에 위치한 충칭 유리섬유공장에서는 지대가 낮아 사방에서 쏟아지는 빗물이 공장지대로 직접 쏟아져 내려 생산설비와 원자료 및 저장창고를 덮치는 바람에 30여만 원(元)의 손실을 가져왔다. 또 이날 많은 곳의 교통이 두절되었는데, 충칭 강북의 공항은 폭우로 인해 4시간 동안 운행이 중단되고, 20여개 항공노선이 연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날, 시 전체의 방송국과 신문

사 등에는 전화 문의가 폭주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부 재해는 인재로 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난안구 뤼자바(羅家壩) 사투안산바오(下團山堡)라는 곳에 있는 한 농산물시장은 겨우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1년 전에 시장규모를 넓히려고 관련 기관에서 돈을 투자해, 배수로를 막아버렸다. 그런데 아무도 이로 인해 이런 대재난을 가져올 줄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도량 양쪽에 쌓아둔 건축자재들로 인해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 시장이 물바다가 된 것이다. 시장 안의 상인들이 전부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사투안산바오 60여 가구도 피해를 당했다. 지우룽 언덕의 타오화시상(桃花溪上)촌의 이에진(冶金) 2촌과 지우룽(九龍)전의 판룽 2지부와 바이허(白合)촌 등 수백여 가구가 불어난 강물로 인해 물에 잠겨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재난은 샤요우(下游)강의 물길에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불법으로 땅을 전용한 것과 관계가 깊다고도 한다.

이 날 폭풍우와 홍수의 습격으로 충칭시와 각종 홍수방재시설들은 심각한 도전을 맞게 되었다. 충칭시 부시장인 간위핑(甘宇平)은 6월 23일, 아주주간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 홍수비상대책 본부에서는 이미 2개월 전부터, 올해 홍수 비상기구를 가동시켰으며, 같은 기구를 가진 양쯔강 연안 각 지구들도 모두 조기에 행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내의 차오편먼(朝天門)에서 저희들은 다시 전문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8월 경에 5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홍수가 닥친다고 하더군요. 충칭의 시 중심부, 도심권, 시 각 지구의 각 기관에서는 가장 험난한 홍수를 맞을 태세를 현지 실정에 맞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홍수에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먼저 폭풍우가 온 도시를 뒤덮는다는 말과 같이, 다음번 장마에는 홍수가 날 것입니다. 저희는 적합한 인력 배치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풀마대, 구조선도 갖추어 놓고 매일같이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홍수가 닥칠 때의 기상변화등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강 중심부에서 홍수가 일어날 요인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 홍수는 아주 대처하기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 산사(三峽)댐이 맞는 엄청난 시련

충칭시의 기상 관계자는 최근 충칭시에서 폭우가 빈번하게 쏟아지는 주요원인을, 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6월 중순부터 계절적으로 북상함에 따라 중국 남쪽에 있던 비가 북쪽의 비를 몰고 양쯔강 유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충칭이 장마비로 물에 잠긴 것은, 남서쪽의 따뜻하고 습기찬 기류와 북쪽의 찬 공기가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함으로 충칭과 양쯔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고 폭우와 홍수가 때없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앞으로 보름동안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상된다

충칭시는 양쯔강 상류에 위치한 중요 도시로, 충칭시 직할도시들도 주로 양쯔강 연안을 끼고 있다. 홍수피해로 인해 수없이 고통을 당해 온 해안 주요 도시 주민들은 매년 홍수와 싸우면서 매년 새로 제방을 쌓지만 아직까지도 홍수의 위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산사댐 공사가 조속히 완공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작년에 장마기간 때, 양쯔강의 산사댐이 대규모 홍수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진 적이 있었다.그런데 금년에 만일 50년 만의 최대 홍수를 맞게 된다면, 공사의 안전성에 대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산사댐의 제1차 공사 때, 댐 높이가 82.28미터로 설계된 것은 20년 만의 홍수도 막아 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금년에 만일 우려한 대로 50년만의 대홍수가 발생한다면, 물은 댐 꼭대기까지 차오를 것이며 현재 기초 공사 중인 댐 아래 기계설비들은 모두가 물 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현재 국무원 민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6월 12일 이후 후난성, 장시

성,푸젠성의 3개성을 습격한 초대형 폭우로 인해 63명이 사망하고 삼만 칠천 마리의 가축들이 사망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금년 수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336명으로 늘려 잡고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발생하게 될 대규모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위생 기관과 방역 기관에서는 긴급비상대책을 마련 해 홍수 후에 대규모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국무원의 위생부 질병 통제소 소장인 리젠궈(李建國)는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오염은 장과 관련된 전염병을 만연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는 금년 중국대륙의 장계통 전염병은 예년보다 이르며 감염자수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만일 응급 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또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콜레라나 이질 등의 전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으므로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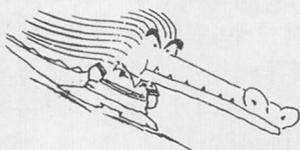
출처/《亞洲週刊》제 26호  
번역/ 손바울-중국어문선교회 간사

## 양쯔강 악어, 식탁에 오른다

양쯔강 악어고기의 맛은 바닷가재의 맛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양쯔강 악어를 먹는다해도 더 이상 위법행위가 아니다.

중국위험물 수출입관리관공실 관련인사는 며칠전 국가1급보호동물로 되어있는 양쯔강 악어가 위험동물이라는 간판을 떼고 이미 식용으로의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발달린 것 가운데 책상빼고는 다 먹는다는 중국인들의 식당 특별메뉴에 조만간 악어고기가 등장할 전망이다.

출처/ www.news china



# 중국 - 더이상 공짜 집은 없다

연구부

**1998** 년 7월 1일 중국 정부는 서민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드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경제문제의 총지휘자인 신임 총리 주룽지(朱鎔基)가 전국인민 대표자 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이 제공되던 주택분배 방식을 7월 1일부터 폐지, 아파트 등 모든 주택을 상품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이제는 생활의 터전인 주택을 자본주의 국가와 같이 일시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예전보다 10배나 많은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상품방’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상품처럼 자유로이 매매 양도가 가능한 집을 말한다. 상하이(上海)시의 경우 지난 91~97년 사이에 전체 신규주택 가운데 분배주택이 약 60%를 차지했고, 나머지가 상품주택이었다. 그런데 이번 분배주택 개혁조치로 대부분의 집이 상품처럼 임대를 주거나 팔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 직장 소유지만 내 집처럼

중국에는 그동안 개인 소유의 집이 많지 않았다. 대부분 주택은 직장에서 마

련해 준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국가기관이나 소속직장에서 염가의 월세를 받고 분배해 준 것이었다. 직장에서 분배해준 만큼 집의 소유권은 직장에 있게 된다. 그러나 한번 주택이 분배되면 직장에서 퇴직 후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으므로 결국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 이원화된 주택정책

우리 나라와 달리 본래 중국의 주택은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하나는 국가기관이나 직장에서 사원들에게 분배해주는 분배주택이고, 또 하나는 주택건설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지어 파는 상품주택이다. 상품주택은 중국어로

중국 하문시의 신흥 주택들. 새 주택제도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는 주룽지 총리의 의욕 아래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산화 이후 지금까지 주택문제를 국가와 당에서 책임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일시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예전보다 10배나 많은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 집은 단위에서 해결

학교를 졸업하고 근 10년 간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부금을 붓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우리 나라 직장인들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48년 공산화 이후 지금까지 주택문제를 국가와 당에서 책임져왔다. 사회주의 근본이념인 국가책임, 분배정책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자그만 산하기관들까지 자체적으로 주택을 지어 기관 산하의 모든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에 들어간 신입 사원이 있다고 하자, 그 직장에서는 입사한 사람이 미혼인 경우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사는 공동방을 분배해 준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근무 연한에 따라 적절한 단독 주택을 분배해 준다. 세월이 지나 직급이 올라가면 배당되는 주택의 규모도 커지게 된다.

아무리 가난한 시골학생이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당에 가입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호적(호구)을 얻을 뿐 아니라,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도시 내의 주택을 무상이나 다름없이 분배받을 수 있었다. 주택을 임대받은 사람들이 임대해 살면서 해당기관에 바치는 돈은 월 10원(한국돈 천오백 원 정도) 정도에 불과했었다. 이런 주택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4~5천 원 봉급을 주는 외국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느끼며 방을 제공해 준 공산당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바뀌었다.

### H시의 한 중년 남자의 경우

H시의 한 교육기관에서 30년 넘게 일한 50세의 가장의 예를 보자. 이 중년 남자는 직장으로부터 방 3개, 부엌, 화장실이 딸린 15평쯤 되는 집을 분배받아 칠순이 넘은 늙은 아버지와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

었다. 집은 낡은 아파트로, 집안에 들어가면 거실 겸으로 쓰는 약간 넓은 방 이외에 나머지 두 방은 침대 하나가 놓여 있고 몸을 비비기에도 힘들었다. 그러나 그는 별 불평없이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최근 그의 딸이 결혼했다. 이 중년 남자는 그동안 딸을 위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저축해 놓은 돈을 모아 두 사람이 살기에 넉넉한 넓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주었다. 그런데 새로 맞은 사위가 직장에 다니므로 직장에서는 집을 하나 분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집이 두 개가 된 셈이다. 그러나 직장에서 자기 돈으로 집을 구해놓은 사실을 알게 되면 분배가 취소되므로, 직장에서 마련해 준 집에서 살면서 자기가 산 집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그의 딸은 직장의 분배주택을 포기하고 미리 구입해 놓은 집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나마 딸의 경우는 나은 편이다. 문제는 아들이다. 아들은 번듯한 국가기관에 들어가 예전대로라면 거의 무상으로 집을 분배받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번 개혁조치의 희생자로 남게 되었다. 이제 이 중년 남자는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 줄 여력이 없게 되었다. 그는 이제 외국에 가서 노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 일반서민에게는 막대한 부담

중국의 근로자들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인민폐로 월 평균 1,000위안(한화 십오만 원)을 벌기

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민들이 별 불평없이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낮은 봉급 봉투 이외에 주택 무상분배, 염가의 의료비, 싼 교육비 그리고 회사돈으로 치르는 접대비 등, 국가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얻는 짝짤한 부수입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뭐니뭐니 해도 개인 지출 비중이 큰 집문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상품과 함께 주택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어들고 있다. 주택자체가 투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000위안 내외의 봉급으로 평균 20만 위안(한화 3천만 원)하는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한낱 꿈 같은 이야기다.

### 정부의 주택자금 지원정책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가! 이번 루중지 정

부의 주택정책의 핵심은 염가로 분배해 주던 주택을 입주자에게 제 값을 받고 판매하려는 데에 있다. 즉 그동안 약간의 임대료를 내고 살던 집을 한 번에 거액을 내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경제 침체로 동반 위기를 맞은 중국 경제를 부추이고 건축경기를 활성화해 실업문제도 해결해 보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사는 대다수 국민들이 거액의 돈이 있을 리 만무하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은행대출과 주택 보조금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주택 보조금이란 직장에서 주택을 주는 대신 월급의 몇 %를 향후 주택구입에 대비해 적립해 놓는다는 것인데, 적립 목표는 월급의 30%에 달한다. 광저우(廣州)시 정부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월 2백 33위안

(약 3만 9천 원), 과장급은 4백 67위안(약 7만 8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주택 보조금과 은행 융자금을 포함, 총보조액은 전체 주택 구입액의 70~80%에 달한다. 따라서 개인은 주택가격의 20~30%의 돈만 가지고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으며 집을 살 때에는 이 보조금과 개인 돈을 합해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결론

수십 년 동안 국가분배의 편안함에 젖어온 많은 중국인들은 각 개인이 모든 것을 능력껏 해결해야 하는 완전 경쟁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일당독재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정치 외에 사회주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글/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 중국의 자본주의 국가 유학 20년

### 총 27만명 파견... 9만명이 귀국

중국이 지난 78년 개혁개방과 더불어 첫 번째로 파견된 유학생은 20여 명에 불과했다. 78년 6월 23일 故 덩샤오핑(鄧少平)은 '유학생들이 많이 내보내자'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유학생들을 내보내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1,000명을 내보내 100명이 돌아난다 해도 900명이 남지 않는가. 단지 9분의 1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대범하게 내보내야 한다."

78년부터 내보내진 유학생은 중국의 6대(代)째 유학생이었다.

1872년 중국은 첫 번째로 해외 유학생을 파견했는데, 78년부터 시작된 개방정책으로

파견된 유학생수는 앞의 5대에 걸친 유학생 총수와 맞먹는다.

중국 유학생은 전세계 103개 국가 및 지역에 퍼져 있으며 그중 국비장학생이 4만 4천여 명, 기업파견이 8만 6천여 명, 자비생이 13만 9천여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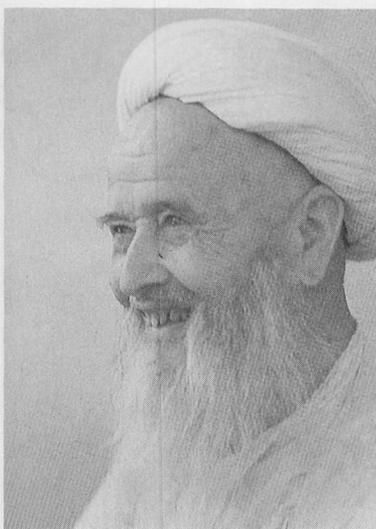
귀국한 유학생 가운데 국비유학생이 3만 7천여 명, 기업 파견이 4만 8천여 명, 자비생이 4천여 명이다. 지난 92년의 중공당 14차 당대회(14大)부터 96년까지 귀국 유학생이 매년 13%씩 증가했다.

96년 한 해에 귀국한 유학생 수만 6,570명에 이른다.

-베이징 저널 57호

# 기 획

##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중국 55개 소수민족은 숫적으로는 불과 10% 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종족이 많이 있다.  
따라서 중국선교를 생각할 때, 소수민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호에는 신장성의 소수민족 중 위구르족을 다루었다.

# 신장성의 소수민족

## -위구르족

편집부



12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에서 93%를 차지하는 한족을 제외한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들, 그 소수민족 가운데 왕족(壯族), 후이족(回族)에 이어 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종족이 바로 신장(新疆)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이다.

위구르 민족의 인구는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750만이라고 추정하지만, 지금은 훨씬 웃돌 것이라고 예상한다. 위구르족은 처음에는 몽골리아고원에서 거주하다가 이주한 투르크계의 민족이다. 이들은 AD. 774-840년에 몽골리아 지역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였으나, 키르키즈족에 의해 멸망하였다. 그 후 남아 있던 사람들은 각기 분산되어 서쪽으로 천산산맥 주변과 지금의 신장 지역 등지에 와서 소왕국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3세기에 몽골제국에 의해 다시 멸망된 후로는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실크로드를 둘러싼 한족, 몽골족, 아랍족, 러시아족 및 여러 투르크족 사이에서 지속된 각축전 속에서 많은 수난을 당해온 위구르족은, 그 후 여러 차례 민족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중국의 중원을 장악한 지배 민족에게 협력과 복속 또는 대립의 관계를 맺으며 내려오다가, 오늘날에는 중국에 의해 민족 자치구로 지정되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위구르인은 모슬렘, 중국 공산당과의 갈등**  
신장의 위구르인들은 수년 동안의 중국과 소련의 영향

### 위구르(維吾爾)족

#### 들어가는 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힌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사야 25:7~8上)

印一張要多少錢? Yin yi zhāng yào duōshǎo qián?  
(인 이장 야오 두어샤오 치엔?) 한 장 인쇄하는 데 얼마죠?



개혁 개방의 바람이 신장에도 불고 있다. 당나귀와 오토바이가 함께 신장의 거리를 누빈다.

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강하게 유지해 왔다. 이러한 이들의 문화 전통은 곧 종교적 전통으로 단단히 사회적으로 결속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 전통과 문화는 뿔레야 뿔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오늘날의 위구르인들은 “위구르인이라면 당연히 모슬렘이지요”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위구르인들은 대부분 중국 식당이나 중국 가정에서 결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모슬렘의 신앙적 교리 중, 돼지고기로 인해 더럽혀졌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한족들과 같이 공부하는 학교에도 식당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숙사도 대개 구분하여 사용한다.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 위구르 민족은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속하게 되었다.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은 수세기 동안 자신의 문화를 이슬람교에 깊이 밀착시켜 강한 유일신 사상을 간직해 온 위구르인들을 이상하다

는 듯이 여겨왔다. 특히, 문화혁명(1966~1976)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갈등이 극에 달해, 중국 공산당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고, 토지를 몰수할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모스크와 코란을 파괴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오늘날까지 위구르인들과 한족 사이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

위구르족과 한족 간에는 큰 갈등이 있다. 이것은 북쪽 도시보다 남쪽에서 더욱 심하다. 구 소련이 붕괴된 후 위구르민족들에게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의 독립운동이 1992년 2월부터 시작하여 3월경에 심화되자, 중국 당국은 주요 도시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지대에 군을 증강하고 삼엄한 경계를 펴는 한편, 위구르족의 독립운동을 외부세력과 결합된 민족 분리주의자들의 파괴 활동이라 규정지었다.

신장 지역은 지난 1949년 “알프테킨”이라는 회교



한족과 위구르족 사이에는 반민족적인 감정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한족이 위구르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사진은 위구르족 어린이들).

지도자에 의해 카쉬카르지역을 중심으로 동투루키스탄 공화국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1990년 4월에도 약 2천여 명의 회교도들이 동투루키스탄의 회복을 위한 성전(聖戰)을 벌여 22여 명이 사망한 일이 있다. 그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소요가 있었으나 모두 중국군에 의해 진압이 되었다.

중국의 공산주의 정치에도 불구하고 한족들에게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만, 소수민족의 경우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는 종족들이 많이 있다. 중국에는 56개 소수민족 중 서북쪽에는 1천7백만 정도의 모슬렘이 살고 있다. 소수민족 중 숫자적으로 볼 때 가장 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 가장 많은 민족 중의 하나가 바로 위구르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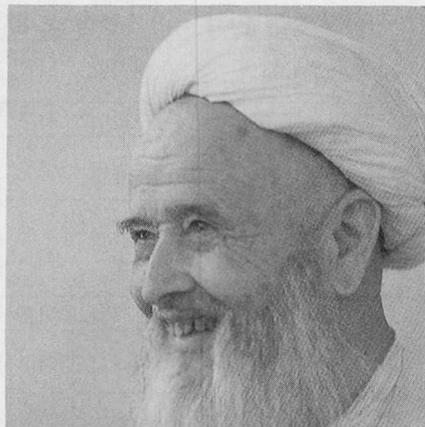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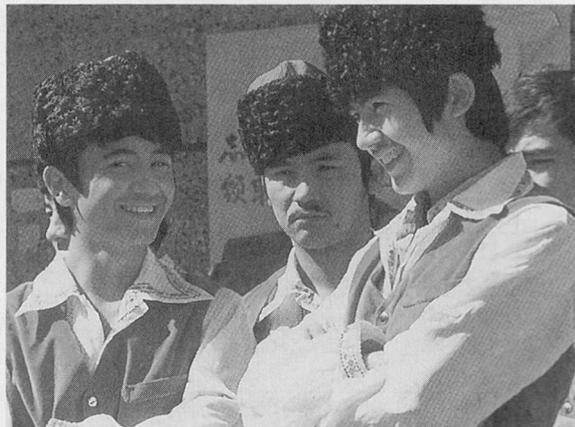
한족들이 위구르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현실이다. 한족과 위구르족 사이에는 근대사 특히 문화혁명 이후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감정만큼 반민족적인 감정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촌과 신장의 남쪽지역에 사는 많은 위구르인들이 한어(漢語)를 모르며 이들은 더욱 강력한 모슬렘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알타이어계통의 민족으로, 우리 민족에게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 신장의 지리

중국 서북부에 위치하는 위구르족 거주지역의 공식 명칭은 1955년 중국 정부에 의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선포되었다. 중국의 서북지역에 위치하며,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프카니스탄, 인도 등 8개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면적은 1,647천km<sup>2</sup>로 중국의 1/6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남한의(98,500km<sup>2</sup>) 17배, 한반도의 8배에 해당한다. 이 거대한 지역에는 석유, 석탄, 철광석, 금 등 자연광물이 풍부하다. 지질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58억 배럴이 넘는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신장은 전체 지역의 85%가 사막과 산으로 덮여 있으며 경작지의 90% 이상이 관개 수로를 필요로 하여 이들은 토착화된 관개법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다. 위구르 사람은 유목민족의 후예이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여 포도, 메론, 수박, 배, 사과, 석류, 아몬드, 면화, 벼, 밀 등을 재배한다. 어떤 이들은 칼, 카페트, 모자, 가죽부츠, 실크천 등 전통 수공예품을 만들어 팔기도 하며 소수의 사람들은 국내외의 무역에 종사한다.

신장에는 천산, 알타이, 쿤룬 등의 커다란 산맥들이 있다. 천산산맥은 동서 길이가 2천km이고, 폭은 4백km나 되며, 산맥 내에서 중간에 만년설을 이루고 있는 봉우리를 제외하고는 웅단 같은 초원이 펼쳐져 있다. 이 산맥은 신장을 남쪽과 북쪽의 두 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남부 신장(남장) 중앙에는 타림 분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광활한 사막을 포함하는 두 개의 커다란 분지가 있다. 북쪽의 타림 분지에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지점이 타림 분지에 속해 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넓이 33km<sup>2</sup>로 중국 전체 사막 면적의 47%에 해당하며, 이 사막은 바람에 따라 이동하는 유동사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라비아 사막 다음으로 즉,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동성 사막이다.

지형이 다양하므로 그 기후도 다양하다. 사막, 오아시스, 분지, 초원, 산맥 등에 따라 기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도시 및 거주 지역의 대부분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서 기온의 연교차는 30℃가 넘고, 강수량은 북부 신장에서는 150~300mm이고, 남부 신장에서는 100mm이하이다.

신장의 수도는 우루무치로서 천산산맥의 북쪽 경사지와 산기슭 분지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다. 인구 130만의 우루무치는 위구르 도시라기 보다는 중국적인 도시로서, 한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위구르족은 대략 10% 정도이다.

반면에 신장 남쪽 지역의 카쉬카르는 인구 25만 명의 도시로, 중앙아시아의 색채를 많이 띠고 있으며 문화, 종교적으로 위구르족의 중심지이다. 우루무치같은 현대적인 도시와는 달리 한족은 아주 소수만 살고 있다. 이 곳의 일요일 시장은 약 15만 명의 사람이 모일 정도로 크며, 2천년 역사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신장 북쪽 지역에 사는 위구르 사람들은 더욱 교육수

준이 높고 그다지 종교성이 많지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쪽의 위구르인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비교적 강한 모슬렘이며, 격렬한 민족주의자이다. 이 지역의 중요 도시는 이리, 알타이, 호텐, 엘켄트, 쿠차, 악수, 악투스 등이다.

### 신장의 민족 구성

신장의 인구는 1,605만이며, 수도인 우루무치는 14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94년 통계). 49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민족은 13개이다.

- 1) 위구르족- 748만(46.7%)
- 2) 한족- 616만(38.4%)
- 3) 카자크족- 118만(7.4%)
- 4) 회족- 72만(4.5%)
- 5) 키르키즈족- 15만
- 6) 몽고족- 14만
- 7) 시버족- 3.6만
- 8) 타지크족- 3.5만
- 9) 만주족- 1.8만
- 10) 우즈베크족- 1.2만
- 11) 러시아족- 0.84만
- 12) 다우르족- 0.57만
- 13) 타타르족- 0.41만

### 위구르의 역사

위구르라는 이름은 8세기 제국의 형성기 때로 거슬러

구직할 행정 단위	행정 소재지	인구	민족 구성 비율	비고
우루무치	천산구	140만	한족(73%), 위구르족(12%), 회족(9%), 카자크족(3%)	7구 1현
크라마이	크라마이 지구	20만	한족(76%), 소수민족(24%)	4구
바인 몽고 자치구	쿠얼러	90만	한족(54%), 위구르족(35%), 회족(5.5%), 몽고족(5%), 장족(0.1%)	1시 8현
스허즈		55만	한족(96%)	
보러타라 몽고 자치주	보러	36.7만	한족(65%), 위구르족(13%), 카자크족(10%), 몽고족(7%), 회족(3%),	1십 1현
이리 카자크 자치주 (360여 만)	주직할 쿠이툽시	33만	한족(93%)	
	이리지구 이리시	200여 만	한족(34%), 위구르족(28%), 카자크족(23%), 회족(10%),	
	타칭지구 타칭시	80만	한족(34%), 위구르족(28%), 카자크족(23%), 회족(10%),	
	알타이지구	80만	카자크족(50%), 한족(43%), 몽고족(0.3%)	
창지 회족 자치구	창지시	140만	한족(75%), 회족(12%), 위구르족(4.2%), 카자크족(8.4%)	2시 6현
키르키즈 자치구	악투스	40만	위구르족(64%), 키르키즈족(29%), 한족(4%)	1시 3현
하미 지구	하미	40만	한족(64%), 소수민족(36%)	1시 2현
투루판 지구	투루판시	50만	위구르족(34%), 한족(20%), 회족(5.9%)	1시 2현
아크수 지구	아크수시	180만	위구르족(92%), 키르키즈족(6%), 타지크족(1%)	1시 8현
카스 지구	카스시	300만		1시 1현
허티엔 지구	허티엔시	150만	위구르족(97%), 한족(3%)	1시 7현

올라간다. 그 뜻은 '연맹, 군집'이라는 뜻이다. 북위 시대(384~534)에는 '가오차(高車)', 수나라 때는 위홀, 당나라 때는 빠르기가 매와 같다는 뜻에서 회이허, 송, 원 때에는 외우얼이라고 불렀다.

### 부족 국가시대

중국 기록에 의하면 위구르족은 흉노족의 후예이다. 이들은 투르크계 유목민으로서 직접적인 조상은 퇴외스 부족연맹에 속하던 일개 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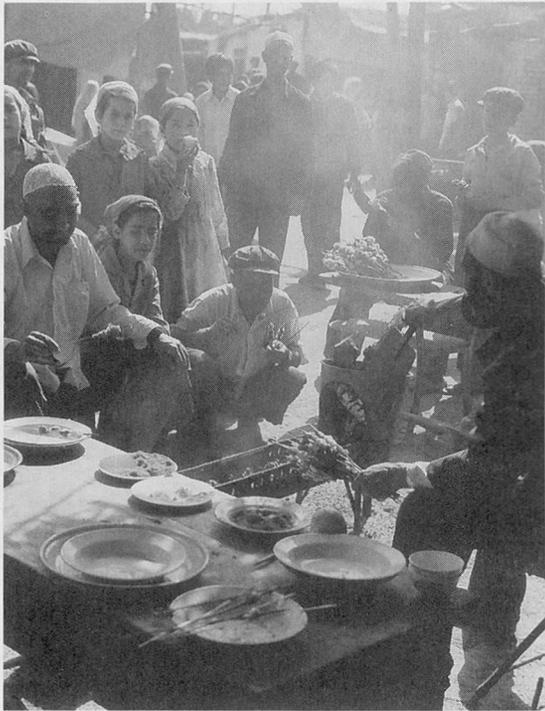
퇴외스는 중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돌궐과는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퇴외스부족연맹이 7세기에 와해되면서 위구르족은 셸엔가강 상류지역에 독자적인 왕국을 건설하였다. 위구르는 당시 돌궐 제국 내부에 계속되는 내분을 조심스럽게 이용하여, 641년에는 이미 동부 스텝 지대의 상당한 부분을 장악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고, 656년에는 타쉬켄트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8세기 초에 다

시 돌궐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 제국 시대(744~840년), 오르곤 위구르제국

위구르족은 돌궐제국의 발게카칸이 사망한 후 제국이 약화된 틈을 타서 돌궐제국을 공략하였다. AD. 745년 바스밀, 카르룩 등과 연합하여 돌궐족을 분쇄하고 몽골리아 지역에 오르곤 위구르국을 건설하였다. 곧이어 위구르족은 동맹세력이자 경쟁세력이었던 카를룩 부족을 서부 스텝지역으로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카를룩과 연합하여 돌궐을 서부 스텝지역으로 몰아내고, 744년 오르곤강 유역 즉, 지금의 외몽골 외트겐지역을 중심으로 위구르제국(또는 오르곤제국)을 건설하였다.

골릭베라 통치 이후부터 위구르제국은 그 세력을 크게 팽창해 나가 그 영토가 예니세이강 상류에서 추장, 탈라스 등 광대한 지역으로 확장되어, 당나라(당시 중국)와 대등한 관계를 갖는 거대한 제국으로 행사하게



위구르족은 양을 많이 키우고, 양고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양머리고기, 양고기 만두, 양고기 꼬치구이 등이 유명하다.

되었다. 751년 위구르는 당나라를 도와 아랍 압바스 이슬람왕조와 싸웠으나, 탈라스전<sup>1)</sup>에서 패배한 이후 서쪽지역, 즉 파미르 고원 서쪽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상실하였다. 이때부터 위구르인들은 서서히 이슬람화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중국에 이슬람을 전파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오르곤 위구르 제국은 거의 1백년 동안 동부, 중남부 스텝지역을 지배하고 최전성기 때에는 알타이산맥으로부터 바이칼호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투르크스탄 지방으로 진출해 온 토번<sup>2)</sup> 및 카를룩, 키르키즈족의 공격

1)탈라스 전투 - 아랍 이슬람 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시도되고 있을 때, 돌궐제국의 세력이 약화된 시기를 틈타 당나라의 티벳제국도 팽창주의 정책을 펴고 있었다. 747년에 당나라는 고구려 출신 고선지 장군의 지휘하에 파미르고원으로 원정군을 파견하고 여기에서 티베트를 크게 물리쳤다. 750년 중국이 타슈켄트 원정 때 자행했던 잔인한 약탈 행위는 그 지역 서부 투르크인들로 하여금 이슬람 압바스 왕조 칼리프에게 원정을 청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아랍 이슬람 압바스 군대는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티벳, 카를룩과 연합하게 되었고, 중국은 위구르제국과 연합하여 전쟁에 돌입했다. 751년 7월에 아랍-티벳-카를룩 동맹군과 중국 위구르 연합군은 중앙아시아 타슈켄트 부근 탈라스강 유역에서 충돌하여 이른바 탈라스 국제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 전쟁은 아랍-티벳-카를룩 동맹군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슬람교가 투르크족의 군소 국가들과 부족들에게 전해져 중앙아시아에 이슬람이 확장되었고, 이후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계속 팽창하여 오늘날 거대한 이슬람 세력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을 받고 붕괴되었다.

## 분산 왕국시대

840년 토번 및 카를룩, 키르키즈족의 침략에 의해 제국이 붕괴된 후, 이들은 여러 개의 씨족 연맹으로 분열되어 흩어졌는데, 일부는 서쪽으로 이동하여 몇 개의 소왕국을 건설하였다. 9세기 중엽에는 최소한 5개의 위구르 왕국들이 존재하였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세 왕국은 칸수(감주; 현재의 장야현), 사주(현재의 둔황), 과주(현재의 투루판) 부근에 중심을 두었다. 그 외에 몇 개의 소국들이 오늘날의 신장성 지방에 있었고, 더 서쪽으로는 수개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왕국 중, 서쪽으로 이주해 온 일부 위구르족과 서카를룩이 연합하여 카리칸조가 세워졌는데, 10세기 초에 이 왕국의 3대 카칸<sup>3)</sup>이었던 사투크 부그라칸이 이슬람을 받아들였으며, 그의 아들은 이슬람을 국교로 선포하여 20만 명의 투르크족들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이슬람은 위구르족을 통해서 중국에 전파되게 되었으며, 위구르족의 한자명 회골을 본따서 회교 혹은 회회교라 불리게 되었다.

위구르 왕국은 13세기 초에는 징기스칸의 몽골제국에 예속되었다가 몽골제국이 분할되었을 때 차카타이 칸국에 구획되어 독립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단순히 유목민이었던 몽골이 제국 체제로 전환할 때 질적, 양적으로 우세한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 오랜 국제 교역 경험과 고도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국제화된 위구르인들을 대거 기용하였다. 이들은 율법, 행정, 재정, 조세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많은 위구르인 행정 관료 및 상인들이 몽골제국의 건설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몽골제국 60년 동안의 고려 통치에도 실무적인 통치 행정관들은 위구르인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원을 지배했던 민족들은 신장 위구르 지역과 그곳 거주민들을 지배하려는 노력을 집요하게 계속해 왔다. 이는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국, 인도, 러시아, 이란, 서양제국 등 동서 문명 교류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완충지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1727년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카흐타조약'에 의해 신장지역이 분할되어 신장지역의 위구르족은 중국에 소수민족으로 흡수되었다.

2)토번- 티벳족의 선조

3)카칸- 지도자, 왕을 지칭하는 관직명

1862년 섬서와 감숙지방의 이슬람교도들의 반란이 신장지역으로 파급되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서투르크스탄의 야쿠브베크가 신장을 침입하였는데, 신장 진출을 노리고 있던 영국이 이를 지원하여 천산북로의 이리 지방으로 침입하려 하자,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를 명목 삼아 1881년 이리에 군대를 파견하여 이리를 점령하였다. 이것을 이른바 ‘이리사건’이라 한다.

청나라는 1881년 러시아와 이리조약을 맺고 다른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주고 이 땅을 되찾게 되었다. 중국은 이 사건 뒤 이 땅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1884년에는 이 변경의 땅에도 중국내지와 마찬가지로 성제를 실시하고, 새로운 영토라는 뜻의 신장성이라 이름하고 우루무치를 수도로 정하여 중앙의 직접 통치하에 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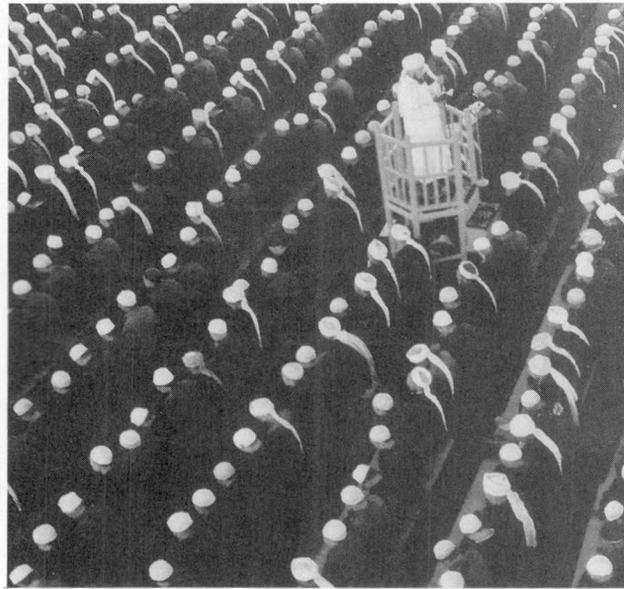
1910년 청나라의 몰락이후 동투르크스탄 위구르 공화국이란 명칭으로 이리 주변에 짧은 기간 나라가 세워졌으나, 1949년 공산주의에 의해 붕괴되었다. 1955년 이 곳은 중국에 의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선포되었다. 이 후에 중국 정부는 민족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한족 이주 정책을 추진하였다. 신장 지역에 대한 한족 이주 정책의 결과로 신장성 도시와 주요 간선 도로변은 한족이 장악하였고, 위구르족은 대부분 시골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1950년대에는 전체 주민의 76%를 차지하던 위구르족은 이제 46%일 뿐이고, 한족은 20만 명이던 것이 560만 명으로 늘어났다. 1980년대 말 동구권 해체, 구소련 내에 소수민족의 독립에 자극받은 위구르족은 오랫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민족 독립 염원을 다시 불사르고 있으나, 현 중국 정부의 강력한 탈 소수민족 억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실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위구르족의 종교와 종교 역사

신장은 다수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종교가 병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신장에는 이슬람교, 라마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 사만교 등 다수의 종교가 있다.

### 이슬람교

중국의 공산화나 현대화로 인하여,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의 여러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모슬렘의 왜해 조짐이 보였으나, 중국이 이 신장 지역을 위구르 자치구로 인정하면서 이슬람교를 이들의 종교로 인정하였다.



모스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슬렘들.

현재 중국에는 2만 3천여 군데의 모스크가 있으며, 그 곳에서 3만 명 이상의 아홍(또는 이맘)이 예배를 주재하고 있다. 그 사제들 중 일부는 1993년 북경에 문을 연 이슬람교 신학연구소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 8곳의 이슬람 대학이 문을 열었고, 수백 명의 사제 승 또는 종교 연구가들이 매년 훈련을 받고 있다. 전체 중국의 2만 3천개 모스크 중 1만 3천여 개의 모스크가 이 곳 신장에 있다. 그 중 중국에서 가장 큰 모스크는 바로 위구르족의 마음의 도시 ‘카쉬카르’에 있다. 신장에는 10여 개의 소수민족(위구르족, 카자크족, 회족, 키르키즈족, 타타르족, 우즈벱족, 타지크족, 둥샹족, 싸라족, 바오안족)이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그 인구는 760여 만에 이르고, 신장 인구의 59%를 차지한다.

이슬람교에는 여러 교파가 있으며, 그 중에 신장에 전파된 주요 교파는 순니파<sup>4)</sup>의 하니피파, 시아파<sup>5)</sup>의 이스마엘파 및 수피파 등이다. 위구르족, 카자크족, 회족, 우즈벱족의 일부가 순니파이고, 위구르족과 우즈벱족의 일부가 수피파이다. 타지크족, 키르키즈족 등은 시아파의 이스마엘파에 속한다.

위구르족은 원래 정령 숭배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몽골리아 고원을 거점으로 삼던 위구르 제국시대 때(74

4)순니파- 정통적인 이슬람교의 계율을 강조하고 처음네칼리프를 무하마드의 정통 후계자로 인정한다.

5)시아파- 처음 네칼리프를 무하마드의 정통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고 무하마드의 사위 알리만을 정통 후계자로 추앙한다. 1500년대부터 페르시아(이란)의 국교로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0~840)는 마니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그후 키르키즈족의 침공으로 인해 서쪽으로 쫓겨 타림분지로 이주한 뒤에는 불교와 접촉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종파는 AD631년 경 이 지역에 들어와 이미 교회를 세웠고, 많은 위구르인들이 이 신앙을 받아들여기도 했다.

840년 위구르 제국의 멸망시 키르키즈의 침공에 밀려 이주해 온 일부 위구르족과 서카를룩 연합하여 이썩쿨호(지금의 키르키즈 지역)부근 천산산맥에 북쪽에는 카라칸조가 수립되었다. 한편 8세기 말엽 서부 스텝(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지역은 사만조<sup>6)</sup>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카라칸조도 점점 세력을 넓혀 바이칼호 이남에서 신장 서부 지역을 통치하게 되어, 서쪽으로는 사만조(875~999)와 인접하고, 동쪽으로는 고창위구르칸국<sup>7)</sup>과 인접해 있었다. 카라칸조와 사만조와의 관계가 좋았으나 지하드(성전)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불교와 마니교를 신봉하는 카라칸조에 전쟁을 걸어옴으로써 서로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893년에는 사만조가 지하드를 발발하여 오고얼치어커<sup>8)</sup>는 수도를 지앙뿌얼에서 카쉬카르로 천도하게 되었다. 얼마후, 사만조의 나쓰얼 왕자가 정권을 잡으려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카쉬카르로 망명하게 되었는데, 오고얼치어커는 사만조의 내란을 이용하기 위해 나쓰얼을 환대하고 악투스 지방관리로 임명하였다. 나쓰얼이 악투스를 다스릴 때, 악투스는 중앙아시아 상인들의 집성지가 되었으며, 오고얼치어커의 조카인 사투크 부그라는 여기서 나쓰얼의 전도로 이슬람교를 믿게 되었다. 910년에는 중앙아시아 모슬렘의 도움으로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여 3대 칸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위구르역사상 최초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이슬람 왕조를 세우게 되었으며, 이슬람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개종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때부터 동카라칸조의 수도인 카쉬카르는 이슬람교 전파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의 아들들 계속해서 백성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고 국교로 선포하여, 960년대에는 20만의 투르크족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이

후 카라칸조는 불교를 신봉하는 위티엔왕조에 대해 정복전쟁을 발동하여 40년간의 싸움 끝에 1006년에 정복하였으며, 고창위구르칸국에도 지하드를 발동하여 투루판을 공격하였으나, 그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퇴각하였다. 카라칸조는 또 탕구트(西夏)에 대해서도 지하드를 발발했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이 때 이후로는 무력을 통한 이슬람 전파는 종결되고, 서서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파되었다.

1225년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은 말년에 자신이 정복한 지역을 네 아들에게 나누어주게 되는데, 이 때 둘째 아들인 차카타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분배받게 된다. 이름하여 차카타이칸국이라 하였는데, 서쪽으로 아무다리오 강, 동쪽으로 이리강 유역, 북쪽으로는 바이칼호 그리고 남쪽으로는 쿤룬산맥에 이르렀다. 투르크 티무얼의 통치 때에 그는 분열된 차카타이칸국의 통일과 중앙아시아의 통치권을 회복을 위하여 당시 그 지역의 가장 큰 종교 세력이었던 모슬렘들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1352년 이슬람에 입교하게 되었으며, 신장 땅을 다스린 몽골의 카칸 중 처음으로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다. 그 후 그의 신하들도 이슬람교를 믿도록 강요하였으며 각 지역에 이슬람 전파자들을 보내어 몽골인들로 하여금 이슬람교를 믿도록 강요하여 16만의 몽골인들이 모슬렘이 되었다.

14세기 초까지는 북쪽의 신장(북장)에는 이슬람교의 강하지 않았으며 투루판, 하미 등지에는 불교의 세력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차카타이칸국의 투르크 티무얼의 영향이래 15~16세기를 거쳐오면서 이 지역들도 이슬람교가 우세하게 되어 결국, 신장 전 지역이 기본적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기독교 선교역사

신장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처음으로 생긴 것은 6~7세기경 네스토리안<sup>9)</sup>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때이다. 11~12세기에는 카쉬카르에 12명의 주교를 갖는 교구가 형성되기도 했으며, 투루판과 마나스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동진에 따라 기독교의 성장은 멈추고, 결국 15세기에는 기독교의 흔

6)사만조- 사마니드 왕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875년에 세워진 최초 페르시아계 이슬람 왕조이다. 당시 사만조는 아랍계의 압바시드 왕조에게 종주권을 인정하였다.

7)고창위구르칸국- 몽골리아의 외트겐을 중심으로 흥성하던 오르곤 위구르왕국이 840년에 멸망을 당하면서 대다수가 서쪽으로 이주해 오면서 일부는 투루판을 중심으로 고창위구르칸국을 세웠다.

8)오고얼치어커- 동카라칸 왕국의 2대왕.

9)네스토리안- 기독교의 일파로서 5세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네스토리우스에 의해 창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별개의 것으로 내재한다고 믿어, 마리아는 성모가 아니라 단지 인격 그리스도의 어머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서기 431년 이후 비잔틴의 기독교회로부터 야교로 규정되어 동양으로 쫓겨나와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교세를 폈다. 중국에서도 당태종 9년(635년)에 전래되어 경교라는 이름으로 민간에 전파되었다.

적이 사라졌다.

1890년대에 새로운 선교의 노력이 다시 시작되었다. 신장의 북쪽 지역에서는 벨기에의 선교사들이 3개의 도시 이리, 마나스, 우루무치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내지선교회의 선교사들이 우루무치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신장의 남쪽 지역에서는 스웨덴 선교사들이 카쉬카르, 잉지사와 엘켄트의 도시로 이동해왔다. 그들은 이곳에서 진료소, 병원, 고아원 그리고 인쇄소를 시작하여 40여 년동안 그들의 사역으로 3백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이 주계로 돌아왔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성경을 위구르어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정치적인 혼란으로 스웨덴 선교사들은 신장을 떠나야 했고, 많은 회심자들은 죽음을 당했다. 북쪽의 선교사들도 1940년 감금되고 1941년에는 신장을 떠나게 되었다.

중국이 공산화 된 후 신장의 영혼들은 70여 년 동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으나 1980년대 중반 중국 서쪽의 부분적인 개방에 따라, 신장 사람들에 대한 선교의 기회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 먼저 들어와 사역을 시작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지금 위구르의 소수 사람들이 믿게 되었으며, 1998년 현재 우루무치에는 20여 명이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고, 카쉬카르와 호텐 등 학생 또는 사업가로서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 도시에 몇몇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있으며, 조심스럽게 성경

과 문서가 번역되고 있다.

### 성경번역

약 750만 명 이상의 위구르 민족을 위하여 성경이 아직 완전히 번역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890년대부터 스웨덴 선교사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경번역을 시작하였으나, 번역이 완료되기 전인 1940년에 추방을 당하고 어렵게나마 스웨덴에서 1950년경에 번역을 완료하였으나 문화대혁명때(1966~1967) 위구르인들이 전에 사용하던 아랍어 자모 문자가 라틴자모로 바뀌었다가, 1980년대 초 중국이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쓰면서 다시 아랍어 자모로 문자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스웨덴 사역자들이 번역한 성경은 위구르 고어로 되어 있고, 번역 상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여 위구르인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서양 사역자들의 노력으로 현재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 1, 2, 3서, 창세기 등이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계속적으로 번역과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글/ 중국어문선교회 편집부 편

편집자 주/ 필자의 사정으로 원난성의 소수민족을 연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해서 원난성의 소수민족을 실게 됩니다.



약 750만 명 이상의 위구르 민족을 위해 성경이 아직 완전히 번역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두 얼굴의 중국인

석은혜



“멘쯔(面子)는 번역할 수도 정의할 수도 없는 말이다. 그것은 명예와도 같은 것으로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돈을 날리기도 한다. 사나이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또 여인들은 그것 때문에 죽음도 불사한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공중 앞에 노출됨으로써 실제로는 뚜렷이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어떤 이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또한 소송을 일으키고 가산을 날리며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게 하는, 세속적인 어떤 재산보다 한결 소중한 여기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그것은 헌법보다 더 소중하고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도 하며 조정을 붕괴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인은 그것에 준하여 모든 처신을 한다.”

위 글은 임어당(林語堂)이 『나의 국토 나의 국민』에서 멘쯔에 대해 해석한 말이다. ‘멘쯔’라는 말은 한국어로는 면목, 체면으로 통한다. 인정을 중히 여기는 사회는 자연스럽게 체면을 소중히 생각한다.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그렇듯 한국인도 이 ‘체면’이라는 것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인처럼 그 정도는 아니다.

베이징(北京)에서 언어 연수를 할 때 아파트 하나를 언어 한국인 여자 유학생과 같이 살았다. 이 여학생은 나보다 2년 먼저 중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많은 중국인 친구가 있었다. 그 중에 한 남자 친구는 그녀가 이사할 때 이삿짐을 옮기는 일을 도와주었는데, 그 일 때문에 나도 그를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일 후 종종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놀러

오곤 했다. 베이징의 모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 젊은이는 베이징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나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그에게 받은 도움과 그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학교 근처에 있는 조선족 식당에서 한번 식사를 대접했다. 그러자 며칠 지나서 그는 나에게 그 조선족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자신이 대접을 받았으니 반드시 그 답례로 자신도 한번 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강권에 거절할 수 없어 부득불 식사 초대에 응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나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중국인으로서 좀 부담스

러운 큰 액수의 돈을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무리해(?) 가면서 썼다.

어느 날 그는 집에서 쉬고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나에게 중국어 개인교습을 시켜주겠다고 전화를 했다. 별로 달갑진 않았지만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때로 중국인인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정식으로 교습비를 내고 배우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친구 사이에 무슨 ‘돈’ 이냐며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체면 때문에 차마 돈을 달라고 말하지 못한 것 같다. 아무튼 그는 자신이 시간이 날 때 가끔씩 와서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중국어 공부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준비해 왔던 볼펜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는 웬 선물 이냐며 겸연쩍어 하면서 거절했다.

계속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두어 두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고 나서 중국어 공부할 때 사용했던 볼펜(친구에게 선물로 받았던 미제 파카 볼펜)을 그가 가져간 것을 발견하고 약간 의아했다. '실수였겠지. 다음에 만나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돌려주겠지.'

그러나 다음 만남에서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볼펜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그의 표정과 행동은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았다. 내가 먼저 말을 해볼까 몇 번 망설이다가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관계만 어색해질까봐 그냥 묵인해 버렸다. 그렇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 웬지 석연치 않음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다 중국어 공부는 흐지부지 끝이 났고, 그는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나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접근해 왔다. 달러를 인민폐로 환전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에게 부탁하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으나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환전하기 위해 그를 또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에게 환전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했다. 나의 부담스러움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술 더해 환전하기를 원하는 한국 친구들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조금씩 그가 부담스러워져 가기 시작했으나, 같이 살고 있는 여학생 때문에 그를 전적으로 외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체면상 딱 한 번만 환전을 해주어야겠다고 생

각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국 친구와 같이 그에게 환전하기 위해 식당에서 만났다. 그때 당시 환전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잘 모르던 나는, 전에 얼마에 바꾸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비쌀 리가 없다면서 확인하고 오겠다고 혼자서 환전하는 집으로 갔다. 잠시 후 돌아온 그는, 현재 환율이 이전과 동일하다면서 순순이 전에 바꾼 금액으로 친구 돈과 내 돈을 환전을 해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비교적 세상 물정에 밝은 친구는 자신이 직접 가서 다시 달러 환율을 확인해보고 오겠다고 말했다. 설마 그가 우리를 속였겠느냐며 만류하는 내 말을 뒤로하고 그는 혼자 가서 환율을 확인한 후, 얼굴이 벌겍게 되어 돌아왔다. 그 중국 젊은이가 우리를 속이고 현재 시가보다 낮은 예전의 금액으로 계산을 해 준 것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직접 가서 확인을 했다. '아, 이럴 수가...'

이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화가 났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 대접해 준 식사비는 그가 환전시 남긴 돈보다 더 큰 액수였다. 차라리 식사 대접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했더라면 그와 더 친해지고, 신뢰하게 되었을 텐데, 그는 왜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일까? 아, 이것이 중국인의 삶의 방식이란 말인가? 그의 그런 행동이 내 머리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삶

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자.'

그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우리 집을 왔다갔다 했다. 또 한 번은 여름 방학을 이용해 베이징에 여행 온 친구를 위해 전세택시를 한 대 예약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중국 젊은이는 내가 예약한 차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차를 빌릴 수 있다며 자신이 소개해 준 차를 이용하라고 설득했다. 어쩔 수 없이 예약한 택시를 취소하고 그가 소개해 준 차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소개한 차는 그의 친구 차로 너무 낡은 차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결국 별로 유쾌한 여행이 되지 못한 데다가 그의 친구인 기사의 식사비와 간식비 제공 등이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 결론적으로 전에 예약한 차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한 셈이 되고 말았다.

그 이후 그는 나에게 같이 동업으로 여행사를 차려보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한국 여행객을 상대로 돈을 벌어보자고... 이 제안에 난 침묵으로 대답했다. 여행사를 운영할 생각도 없지만 설사 운영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 청년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내 속의 말을 그가 알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더이상 묻지 않았다.

정말 중국인들은 재미(?)있는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는 식사 접대비와 선물비 등 무리하게 돈을 쓴다. 그런데 몇 푼의 돈을

남기기 위해 거리낌없이 양심을 팔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면을 위해 죽음도 불사한다는 중국인!

그러나 양심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중국인!

어느 것이 중국인의 참 모습일까? 중국에서 살다 왔거나 중국인과 교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두 얼굴이 다 중국인의 모습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모든 중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중국인을 말하는 것임을 밝혀 둔다.

중국에서 경험한 중국인들의 비양심적인 사건들은 이 외에도 많이 있다. 3대의 자전거를 잃어버린 일, 선양(瀋陽)가는 기차표를 옷돈까지 주고 샀는데 가짜였던 일, 백화점에서 스탠드를 사 집에 가져가서 사용하려고 보니 불량품이라 교환하러 갔는데 바꿔주지 않은 일, 가게에서 찻잔을 샀는데 집에 가서 포장을 풀러보니 깨진 컵이 들어있었던 일, 가짜 약, 가짜 필름, 시장에서 야채나 과일 살 때 근(무게) 속이는 일 등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중국에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해 보는 일이다. 조금씩 의심하는 버릇이 생기면서 중국에서는 뭘 사든지 신중해야 한다고 늘 자신에게 주시시키지만 결국 번번히 당했고, 당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또 한 번은 베이징에서 중국인 집에 방을 하나 세 얻어 살 때 일이다.

방세를 세 달치씩 미리 내도록 되어 있어 방세는 이미 지불되어 있었다. 그런데 귀국하기 전에 중국 여행을

해야 할 일이 있어 짐을 정리하고 방을 빼야만 했다. 평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중국 음식을 맛보라며 이것 저것 반찬을 챙겨주던 주인이 '방을 빼다'는 이 한 마디에 태도가 돌변하여 남은 방세를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주인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스스로 그 방에 거주할 사람을 찾아 그에게 방세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생각보다 쉽게 방을 구하는 한국 여학생을 만날 수 있었고, 주인에게 그 여학생을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주인은 여전히 나에게 남은 방세를 주지 못하겠다고면서 그 여학생에게는 들어오는 날부터 다시 방세를 계산해 달라는 것이었다. 또 한 번 중국인의 비양심적인 일처리 방법을 경험한 기회였다. 그렇다고 주인의 요구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긴 시간의 말씨름 끝에 소개해준 한국 여학생에게 남은 방세를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많은 한국인들이 비거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죄(?)로 공안에 쫓겨 거주지를 옮길 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미 지불된 집세를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양



심이 무디어지게 된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회주의가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아니면 문화대혁명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변한 것일까? 또 아니면 개혁·개방과 함께 알게된 '돈맛' 때문일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체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까지 갖게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무딘 양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그들의 세계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고,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노력이 없이는 양심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직하고 양심적인 중국인이 그립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중국인들의 '양심 회복'을 위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신으로 되느니라."(슥4:6)

석은혜/ 본지 편집장

# 奉獻禱告(봉헌 기도문)

Fèngxiàn daǎogào

耶和華以勒的神啊，我們深深感謝你，因你隨時供應我們的需要，使我們毫無缺乏。我們將從你那裏得來的金錢，奉獻給你，求你加上祝福並使用在聖工上。

(Yēhéhuá yǐlè de Shén a, wǒmen shēnshēn gǎnxiè nǐ, yīn nǐ suíshí gōngyīng wǒmen de xūyào, shǐ wǒmen háowú quēfá. Wǒmen jiāng cóng nǐ nàlǐ dé lái de jīnqián, fèngxiàn gěi nǐ, qiú nǐ jiāshàng zhǔfú bìng shǐyòng zài shènggōngshàng.)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때마다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으로부터 온 재물을 당신께 드리오니, 복을 더하시며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神啊，不但獻上金錢，我們也將自己獻給你，當作活祭，因為這是聖潔的，是你所悅納的。

神啊，我們當中若有缺乏的兄弟姐妹，懇求你祝福他們的工作順理，事業發達，好叫我們當中沒有一個人是空手來朝見你。我們如此感恩禱告是奉耶穌的名求的，阿們。(Shén a, búdàn xiànshàng jīnqián, wǒmen yě jiāng zìjǐ xiàngěi nǐ, dāngzuò huójì, yīnwèi zhè shì shèngjié de, shì suǒ yuànde.)

Shén a, wǒmen dāngzhōng ruò yǒu quēfá de dìxiōng jiěmèi, kěnjiú nǐ zhǔfú tāmen de gōngzuò shùnlǐ, shìyè fādá, hǎo jiào wǒmen dāngzhōng méi yǒu yíge rén shì kōngshǒu lái cháojiàn nǐ. Wǒmen rúcǐ gǎn'ēn dǎogào shì fèng Yēsū de míng qiú de, Amen.)

하나님, 단지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산제사로 드립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며 당신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부족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께서 그들의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사업이 번창하도록 복을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당신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 我活着基督

## 내 안에 사는 이

C G/B Am Am/G F G C G

我活着是基督 我死了就有益处  
 wǒ huó zhe shì jī dū wǒ sǐ le jiù yǒu yì chù  
 워 휘 저 스 지 두 워 스 러 지우 여우 이 추

C G/B Am Am/G F G C Fine

我活着是基督 我死就有益处  
 wǒ huó zhe shì jī dū wǒ sǐ jiù yǒu yì chù  
 워 휘 저 스 지 두 워 스 지우 여우 이 추

C<sup>7</sup> FM<sup>7</sup> G/F Em<sup>7</sup> Am<sup>7</sup> Dm<sup>7</sup> F/G CM<sup>7</sup>

是我王 我的歌 我生命 是我喜乐  
 shì wǒ wáng wǒ de gē wǒ shēng mìng shì wǒ xǐ lè  
 스 워 왕 워 디 거 워 성 밍 스 워 시 러

C<sup>7</sup> FM<sup>7</sup> G/F Em<sup>7</sup> Am<sup>7</sup> B<sup>b</sup> C/G G D.C.

我力量 我武器 我平安 我的主  
 wǒ lì liàng wǒ wǔ qì wǒ píng 'ān wǒ de zhǔ  
 워 리 량 워 우 치 워 평 안 워 디 주

### 우리말 가사

내 안에 사는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겐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사상(下鄉), 사하이(下海),  
사강(下崗)

지금 베이징(北京)의 향간에서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는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에는 '사하이', 그리고 장쩌민(江澤民) 시대에는 '사강'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반세기 동안 중국 사회의 무상한 변화를 매우 생동적으로 종합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의 뜻만 잘 터득해도 중국의 현재 정치 및 경제의 대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957년 중공당의 정풍(整風)운동 때, 허다한 지식인들이 소신을 제시했다가 '반당우파분자'라는 누명을 쓰고 농촌으로 쫓겨났다. 그로부터 인텔리 출신 간부들도 농촌에 내려가 사상 개조를 받아야 했다. 이것이 1958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사상'이다.

그 후 1968년부터 문혁(文革)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간부들과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거 '사상'됐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인 1977년에야 그것이 정지됐으니, '사상'의 역사는 무려 20년이나 되는 셈이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말부터 허다한 사람들이 공직을 버리고 돈벌이에 뛰어들었는데 이를 '사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사하이타오진'(下海淘金: 바다에 들어가 금을 캐다)의 준말로 돈벌이 판에 뛰어들었다는 뜻이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어언 20년이 흘렀다.

지난해 중공당 15기 당대회를 계기로 '사강'이 본격화됐다. 이는 국유기업 종업원들을 처리하는 일대 변혁을 역시 20년쯤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때 가면 아마 우편, 철도, 대형 광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유기업이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상은 반세기 동안에 걸친 중국 사회의 3대 인구 대이동의 줄거리다. 20년 간의 '사상' 인구가 1억 명이 넘을 것이다.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들어간 농민들을

합친 '사하이'인구 역시 1억은 넘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강' 인력도 1억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점진적 변혁'이라는 중국 정치의 노하우다. 수천 년의 중국 역사를 보면 무릇 점진적이면 그릇된 변혁이라도 최악

의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위에 든 '사상'의 경우 간부들은 대부분 공직을 유보한 채 사상됐으며, 사상한 학생들에게는 진학과 취직의 기회를 다소 주었다. 현재의 '사강'도 기대감을 다소 주어가며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이상의 인구 대이동 속에서도 커다란 혼란 상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수도를 비롯해 전국의 도시민을 농촌으로 내몰았던 것은 물론 마오쩌둥에게서 배운 것이겠지만, 너무나 급진적으로 단행했기 때문에 정권과 함께 자신도 멸망하고 말았다.

출처/ 베이징저널 제53호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찬양집: 찬미주(贊美主)  
값 5,000원

『중국을 주께로』 합정본

Ⅱ권(1993/1,2~1994/11,12)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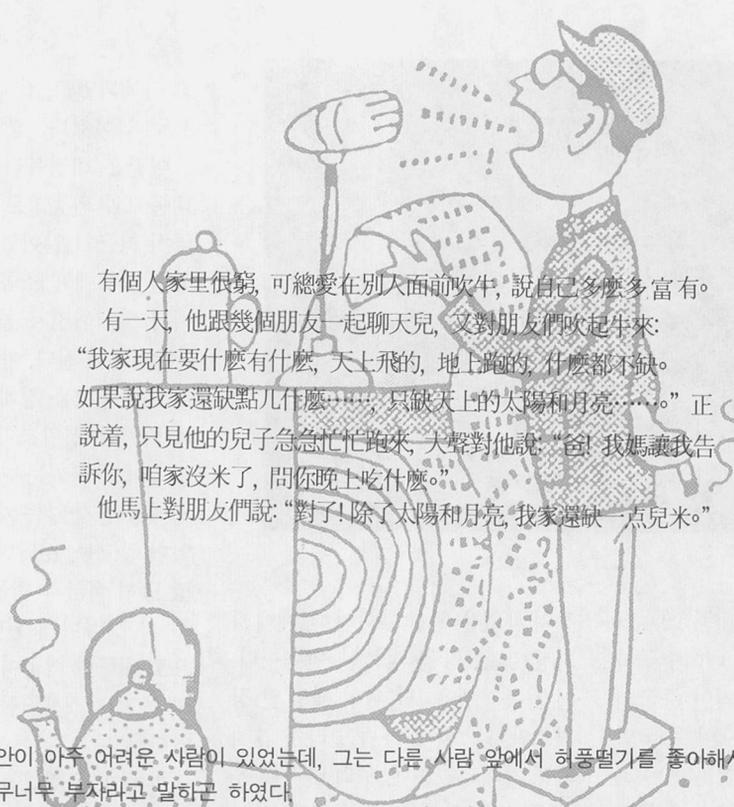
Ⅲ권(1995/1,2~1996/7,8) 30,000원

Ⅳ권(1996/9,10~1998/3,4) 35,000원

신청 및 문의: Tel 533-5497 (박정희 간사)



# 只缺太陽、月亮和米 (태양, 달 그리고 쌀이 없을 뿐)



有個人家里很窮，可總愛在別人面前吹牛，說自己多麼多富有。  
有一天，他跟幾個朋友一起聊天兒，又對朋友們吹起牛來：  
“我家現在要什麼有什麼，天上飛的，地上跑的，什麼都不缺。  
如果說我家還缺點兒什麼……，只缺天上的太陽和月亮……”正  
說着，只見他的兒子急急忙忙跑來，大聲對他說：“爸！我媽讓我告  
訴你，咱家沒米了，問你晚上吃什麼。”  
他馬上對朋友們說：“對了！除了太陽和月亮，我家還缺一點兒米。”

집안이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 앞에서 허풍떨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부자라고 말하곤 하였다.  
어느날, 몇 명의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던 그는, 또다시 친구들에게 허풍을 떨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집엔 필요한건 뭐든지 다 있어. 하늘에 나는 것, 땅 위에 달리는 것, 뭐든지 없는  
게 없지. 만일 그래도 없는게 있다면, 글썄... 하늘의 태양과 달만 없을까...”  
막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이 급히 뛰어와서는 큰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가 아버지한테 말하랬어요.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저녁에는 뭘 먹느냐고요.”  
그 사람은 즉시 친구들에게 말했다. “맞아, 우리집엔 태양과 달 외에 쌀도 없구먼.”

# 초원의 꿈, 네이멍구(內蒙古)

유재승



신장(新疆)과 위구르(維吾爾), 티벳에 이어 3번째로 큰 네이멍구 자치구는 광활한 초원지역인 중국의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의 색다른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곳이다. 비록 지금은 몽고인민공화국과 네이멍구로 나뉘어 있지만, 유목민족 으로서는 몽구인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내몽고와 외몽고를 굳이 나누려 하지 않는 중국인들의 심리가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하다.

멍구(蒙古)는 중국의 한족 이외에 최초의 이민국 왕조를 전국토에

걸쳐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민족이다. 이 정복전쟁은, ‘말 위의 제왕’인 징기스칸과 그의 손자 쿠빌라이 칸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우리 나라를 동쪽 끝으로 하여 동구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남방의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며, 명실공히 세계에서 유래없는 대정복 왕조를 건설했다. 그러나 1세기에 걸쳐 존재했던 원(元)나라는 한족과의 투쟁에서 너무 많은 힘을 소비한 데다 너무나 많은 땅을 정복하였지만 그 내부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

고 와해되었고, 결국 몽고의 대초원으로 돌아갔다.

이같은 대정복의 왕조인 몽고가 내몽고와 외몽고로 나뉘어진 때는 극히 최근의 일이었다. 한때 2백 년 동안 몽고에게 조공을 바쳤던 러시아가 강대해지자 몽고를 거쳐 남진(南進)하게 된다. 이 때 러시아와 청 왕조는 몽고를 경계로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청왕조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한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치구로 남아 있었던 몽고는,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 당시 적군과 백군과의 내전에서 두 파로 나뉘게 된다. 1924년 국경으로 내몰린 백군이 이 곳에서 당시의 몽고 지배세력들과 동맹하게 되었다(물론 내부에는 적군을 돕는 공화파가 존재했었다.)

이후 몽고가 더욱 구체적으로 분리된 실질적인 계기는 일본군의 침략이 중국 대륙에 본격화되면서 비롯되었다. 30년대 패전까지 내몽고를 장악하고 있었던 일본군은, 1945년 중국을 대표하던 장개석 정부와 스탈린은 대일 전쟁 종전을 위해 외몽고를 끌어들이나.



징기스칸 능.

한편 내몽고를 장악하고 있던 일본군은 홍군의 게릴라 전쟁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당시 대장정을 마치고 산시(陝西)성 연안에 머무르고 있었던 마오쩌둥(毛澤東)은 일본의 점령지인 내몽고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인정할 것을 약속했다. 1947년 5월 1일 이 약속은 지켜져 중국에서 첫 번째 자치구가 되었다. 그렇지만 외몽고는 사정이 달랐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외몽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자치구로 편입되지 않았다. 물론 사회주의 종주국

이던 소련의 영향을 인정하던 신생 중국 정부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중국인들의 심성에 외몽고 또한 중국의 일부란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

#### 기후

겨울의 몽고 여행은 시베리아 북풍을 맛보는 것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설원뿐이다. 봄, 가을의 경우는 천둥이 치는 대초원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일기가 불순하기는 마찬가지므로 두꺼운 옷과 우비 등이 필요하다. 중국 여행의 최대 매력 중의 하나는 여름철 베이징구 초

원 여행이며, 여행의 적기는 역시 여름이다.

#### 네이멍구로 가는 길

네이멍구의 여행은 호호트(呼和浩特市)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낫다. 만족할만한 교통시설이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비행기가 있어 북경과 호호트를 비롯해 전국 주요도시를 연결해준다. 북경은 1주일에 6편의 항공기가 있다. 열차는 베이징(北京)-란저우(蘭州)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 호호트까지는 12시간 정도. 버스편의 경우는 산시(山

西)성 따둥(大同)과 연결되어 있다. 만약 시내관광을 하려면 걷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호호트를 제외하고는 시내에서 볼 것이라고는 몇 군데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행자들은 오직 ‘초원’에만 관심이 있다.

### 호호트

호호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기 2년 전, 1947년에 성립된 내몽고 자치구의 수도이다. 몽고족은 ‘신의 부름을 받고 큰 호수를 건너 온 힘센 늑대’ 또는 상냥하고 아름다운 암사슴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초원의 봄과 여름은 거의 동시에 찾아드는데, 온통 푸르른 초원 위로 해바라기 밭이 노랗게 가득 차 있고, 양과 산양의 하얀색으로 산뜻한 모양을 만들어낸다.

호호트 역을 지나면 광장이 있는데, 차들이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다. 버스는 노선도 적고 버스 수도 많지 않아 불편하다.

### 시라무린(西拉木倫) 초원

호호트에서 북쪽으로 87km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1,700m로 구름이 기복을 이루고 방초가 무성하고 공기가 신선하여 완전한 초원

경치이다. 밤낮의 온도차가 비교적 커서 여름밤에도 가을처럼 신선하다. 파오여관에 위생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말이나 낙타를 타고 목민가정을 방문하여 ‘우란무치’(烏蘭牧騎, 몽고어로 붉은 가지란 뜻. 10여 명으로 조직된 문화선전대이다)의 공연을 구경하고 씨름, 경마, 낙타경주를 관람하고 우등불야회에 참가하는 등 활동내용이 무척 풍부하고 다채롭다. 이 외에 유제품, 양고기스프, 샤브샤브 등 전통 몽고요리를 만끽할 수 있다.

### 정기스칸능(成吉思汗陵)



몽고바오.

징기스칸 즉 원태조의 능원은 내몽고 서남부 이진훤러치(伊金霍洛旗, 지명) 간더리(甘德爾) 초원에 위치해 있다. 능원 부지가 55,000㎡이며, 세 동의 파오식 궁전이 일렬로 늘어섰고, 동서가 길게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궁전 지붕은 양산향으로 가장자리가 남색인 누른 유리기 외를 엮었고 붉은 기둥에 회색으로 화려하고 웅장하다. 궁전 앞에 81년의 계단이 있고 양측에 푸른 소나무와 결체들이 늘어서 있어 엄숙하고 고아하며 웅대하고 장중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 왕소군묘(王昭君墓)

호호트 남서 6km대흑하 남단에 있다. 왕소군은 서한 원제(기원전 33년) 흉노의 풍습에 다라 본처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다. 한족 비극의 미녀였는데, 화공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서 왕소군의 초상화가 추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장안의 왕에게 채택되지 못하고, 흉노와 한의 평화를 위해 황토대고원의 흉노에게 시집가 일생을 마쳤다.

실제 왕소군은 한족 문인들에게 비극의 주인공으로 묘사되었지만, 동이(東夷)의 시각에서 보자면 북방의 기마민족이 한나라에게 조공을 받을 만큼 강성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자료가 된다. 역전에서 장거리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 청진대사

1789년 신강에서 온 회족이 예배당으로 건립한 이슬람사원이다. 이국적 정서를 풍기는 문이 눈에 띈다. 정문 바른편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 뒷뜰에는 주단이 깔린 이슬람교식 독특한 강당으로 되어있으며 높이가 15m의 망월루가 세워져 있다.



우란무치(烏蘭牧騎)예술단의 공연모습

가운데 뜰 좌측은 이슬람교식 목욕실이 있는데, 유리창을 통해서 바라다 볼 수 있다. 역전에서 2번, 7번 버스로 갈 수 있다.

### 속박

나이멍구관텐(內蒙古飯店) 우란지뿌루(烏蘭祭布路) Tel 41183

샤오권따자우텐(昭君大酒店) 신화따제(新華大街 11號) Tel 663-2211

### 바오터우(包頭)

바오터우란 티벳어로 '영웅' 몽고어로는 '사슴이 있는 곳'이라는 뜻 지금은 초원의 거리지만 아주 옛날에는 수목이 많았고 샘이 솟았으며, 사슴의 무리가 노닐던 곳이었다는 설이다. 그 땅 사람들은 지금도 '사슴성'이라 부른다. 일찍 실크로드의

대상역으로 또는 황하운수의 기지로 번영했으며 현재는 바이윈어보(白雲鄂博)의 철산과 대청산(大青山)의 석탄을 이용한 철강 콤비나이트가 완성되어 공업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다. 인구 120만.

### 속박

둥허빈관(東河賓館) 東河區南門外大街14號 Tel 72266

런민뤄서(人民旅社) Tel 43371

바오터우빈관(包頭賓館) 銅鐵大街19號 Tel 56655

**편집자 주/** 지명, 국명中 역사적인 내용을 언급할 때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승/** 배재대학 교수 · 천지여행사 부사장

# 중국인의 소리, 중국인의 음악

이 민 선

## 공자는

전통음악을 사랑하여 음악을 교육과 정의 하나로 만들었으며, “시로써 사람의 마음을 흥겹게 하고, 예로써 사람의 행동을 바로 세우고,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완성시킨다(興於詩, 立於禮, 成於音)”고 하여 음악을 인간 수양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의 전통음악을 들어보면, 달빛이 흐르는 강물이 연상되기도 하고, 가을날의 슬픔을 가득담은 듯 애절함이 느껴진다. 어떤 것은 전장(戰場)에 뛰어든 씩씩한 군인들의 기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희희락락한 직접적인 표현이 간단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 음악이 이렇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펼쳐지는 변화무쌍한 상상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펼 수 있는 것은, 선율에 담은 내용이 그리 추상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다는 데 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단선율적이며 오음계에 입각하여 많은 선법을 수시로 섞어 강약법이 독특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한족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중국 음악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뛰어난 전통을 자랑하며 주위의 여러 민족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 동양 음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 중국 음악의 역사적 변천

중국은 그 면적이 매우 넓은 데다 다른 여러 민족이 섞여 살다보니, 역사적으로 주변 여러 민족들을 흡수하면서 그들의 다른 문화를 서로 주고 받게 되었다. 따라

서 음악이 매우 다양해졌으며, 악기와 음악 이론에 있어서도 매우 일찍부터 발전해 왔으므로, 음악 문화에서도 동아시아 최대 규모와 내용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 음악의 기원은 태고로부터 4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는 한족의 고유음악이 점차 발달하여 독자적인 형식을 만들어 내었다. 남북조시대에서 수당시대에는 서역을 통하여 인도, 이란, 그리스 등의 서양 음악 문화가 들어와 중국 고유의 문화와 결부되어 국제적인 성질을 띤 음악이 되었으며, 이른바 국제음악 융성시대로 접어들었다.

이후 전란(戰亂)이 계속되자, 송(宋)대에 겨우 그 일부만을 전수하였다가 원대에 이르러서는 그것마저도 파괴되어 버렸다. 명대에는 옛음악을 되살려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그 대신 근대 희곡이 일어나 청조까지 흥성하였다.

삼황오제(三黃五帝) 전설의 주인공인 복희씨, 신농씨가 금슬(琴瑟)이라 하는 거문고를 발명하고 음울을 정하였으며, 순(舜) 임금의 소곡을 만들었다는 신화가 전해질 뿐, 원시음악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한족 사이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대부터 원시 가무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시기의 한족 음악문화는, 천지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을 중심으로 가무와 더불어 경(磬), 태고(太鼓), 토적(土笛), 소(簫) 등의 악기가 나타났다.

공자는 음악을 문덕(文德)의 상징이며 선왕(先王)이 창제해준 ‘덕의 소리’라고 하여 귀히 여겼으며, 춘추시



다이족(傣族)의 자오구(脚鼓)

대(BC. 700-403) 당시에 불려지고 있던 가곡을 모아 시경(詩經)을 지었다.

또한 이 때 음계의 기본인 오성(五聲-궁상각치우) 및 7성, 12율(음의 고저)이 정해져 중국 음악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한대에는 아악(雅樂)을 담당하는 관청인 태악서(太樂署)가 설치되었고, 궁중의 제사에 쓰이는 중요악의 제도도 정해졌다.

남북조시대에는 북방민족이 화북을 제압하여 한민족은 양자강 남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때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중국의 아악과 속악이 전해지게 되었다. 당시 인도 및 이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서양의 음악과 무용이 중국 음악에 영향을 주었다.

송대에는 고취음악(鼓吹音樂)과 사곡음악(詞曲音樂)으로 나뉘어 발전했다. 사곡음악은 사의 곡명인 사패를 따라 노래하였고, 오늘날의 음계표에 해당하는 공척보(工尺輔)를 따라 반주하는 것인데, 여기에 박자를 치는 판안(板眼)을 발명하여, 청중은 노래에 맞추어 박자를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과 일체감을 즐겼다.

## 악기와 악률

고대로부터 악기를 만드는 주요 재료였던 금이나, 돌, 흙, 대나무, 비단(絲), 가죽(革), 조롱박(匏), 점토악기 등 재료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하여 8음(八音)이라 했다.



중국의 악기 중 아악기에 속하는 경(磬)악기로는 특경(特磬), 편경(編磬)이 있고, 금속악기인 종(鐘)과 목악기인 축(柷), 어(敔), 가죽악기인 고(鼓), 도고(鞀鼓) 등의 타악기와 금슬 등의 현악기가 있다. 그 외 민속악에 널리 쓰이는 현악기로는 금(琴: 칠현), 쟁(鍾), 비파(琵琶), 삼현(三絃), 호금(胡琴: 사현), 양금(洋琴) 등이며 대표적인 관악기로는 적(笛), 통소(簫), 생(笙) 등이 있다.

어떤 것은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도록 고안되었고, 어떤 것은 나무 사이에서 살랑거리는 바람소리, 산골짜기에서 급류치는 운울 등 자연의 소리를 재생하도록 고안되었다.

중국 악기는 관을 부는 것과 현을 당기는 것, 현을 뜯는 것 그리고 치는 것 등 네 종류가 있다. 그 가운데 적(笛)은 대나무관으로 만들어져, 음색이 매우 맑고 깨끗하다. 비소(排簫)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인데, 서양의 팬 플룻(Pan Flute)과 유사하다.



## 중국의 독특한 음계

중국의 음계는 옛부터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를 5성 또는 5음이라 하였는데, 현대 음악의 악보의 1(do), 2(re), 3(mi), 5(sol), 6(la)에 해당한다. 이 다섯 음에는 반음인 4(fa)와 7(si)은 없다. 이렇게 반음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후에 다시 변궁과 변치를 더하여 7음이라 불렀는데, 이 변궁과 변치는 대체로 현대 악보의 7(si)과 #4(fis)에 해당하므로 7성 음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중국 음조는 필요에 따라 자주 평탄해지거나 날카로와지지만 결코 4음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 중국인이 즐기는 소리, 중국인의 악기

중국의 여러 민족들이 애호하는 민간악기는 대부분 그들의 고유 절기 때 노래와 함께 쓰인다.

피리 종류인 적(笛)이라 해도 쓰촨성의 소수민족 중 창(羌)족의 고유한 민간악기인 창디(羌笛)를 비롯하여 소수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피리 종류에는 백여 종류가 있다. 대체로 닳은 듯한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연주방법도 다르다.

민속 악기를 연주하는 중국인들. 조상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소리를 되살려, 오늘도 즐기고 있다.

윈난성 지뉘(基諾)족의 북춤, 라후(拉祜)족의 전통악



간쑤(甘肅)성  
유목민들의 사랑을  
받는 전통악기로  
공연을 하는 악대의  
모습.

기 삼현과 루성(蘆笙) 등을 가지고 고유한 절기를 지내거나 고유한 춤을 추는 등의 풍습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소수민족 고유한 악기를 사용한 절기 가운데 악기를 중심으로 한 절기를 소개한다.

주로 쓰촨성에 살고 있는 마오(苗)족과 둥(侗)족에게서 볼 수 있는 이 절기는, '루성(蘆笙-갈대로 만든 생황)'을 소재로한 절기인 '루성제(蘆笙節)'를 연다. 루성은 마오족과 둥족이 가장 사랑하는 관악기인데, 크기가 다양하다. 관(管)이 하나인 것부터 시작해서 열 개나 달린 것도 있지만, 보통 관이 여섯 개 달린 것을 사용한다.

꾸이저우(貴州)의 검둥남묘족 자치주(黔東南苗族自治州)의 카이리(凱里), 황핑(黃平), 타이장(台江) 스빙(施秉) 일대의 마오족은 매년 지정된 곳에서 정월 16일 새벽, 몇 사람의 루성당(蘆笙堂)의 어른들이 제일 먼저 악기를 연주한다. 뒤를 이어 의상을 잘 차려 입은 처녀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어떤 곳에서는 체육 경기를 하기도 하는데, 악대가 연주하면서 경기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해방 후에 소수민족의 생활을 반영한 농민과 유목민족의 예술은, 빼어난 가무와 함께 희곡이 갖춰져 공연

예술로 발전하여, 전국의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초원의 신록을 즐기는 소수민족들은 악대들이 동원되어 춤과 함께 자연적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현대화 과정 속에 뛰어들어온 중국인들은, 오늘도 그들의 악기를 통해 전통 습속(習俗)이 깃든 음악으로 정서를 표출하는 것이다.

#### 참고자료

「中國少數民族地區畫集叢刊」, 聯編輯委員會 編著, 民族出版社  
中華傳統文化在臺灣「音樂」, 光華書報雜誌社  
「중국문화통론」, 이장우·노장시 共著, 중문출판사  
「중국문화 중국정신」, C.A.S. 윌리엄스 지음·이용찬 외 공역, 대원사

이민선/ 본지 편집기자



## 중국 대학생 학비 국비에서 자비로

김 동 하

94년 2월 베이징(北京)에 유학생의 신분으로 와 있으면서 대학 학비에 대해서 두 번 놀란 적이 있다. 첫째는 대학교 학비가 공짜인 것에 놀랐으며, 둘째는 하루 아침에 공짜학비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93년 이전에 이곳 대학의 학비는 무료로 가까운 실비였고, 국가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직장을 지정하여 주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의 대학들도 학비를 받기 시작했고, 국가에서 직장을 분배해주는 제도는 94년 9월 신입생부터 철폐되었다.

94년 9월에 베이징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매년 1,000원(15만 원)이라는 학비를 내야 한다(여기에 기숙사비가 포함된 것이다). 다만 이 학생들이 졸업할 4년간 이 학비는 인상되지 않으며, 학비 중의 40%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30%는 학생 생활개선 자금으로, 나머지 30%는 교수 및 교직원 생활개선 자금으로 쓰인다고 공개적으로 자비학생 모집요강을 발표하였다. 물론 이들이 졸업할 때는 국가가 직장을 배분하여 주는 제도는 없어지나, 현재 배양비는 그 존폐여부가 논란이다.

중국의 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크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국가에서 배정하는 국영기업에 취직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합자기업 같은 외국인회사에 취직하는 것이다. 다만 합자기업에 취직을 원할 경우 국가에서 거의 무료로 가까운 실비로 대학생할을 하게 해준다 하여, 배양비(培養費)라는 명목으로 약 1만 2천원(180만 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출신 지역별로 직장배치가 되기 때문에 랴오닝(遼寧)성 출신의 학생이 국가가 분배한 랴오닝성 소재의 직장을 마다하고 베이징이나 경제특구인 선전(深圳)에 있는 직장을 잡은 경우 역시 이 배양비를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일반 국영기업체의 대졸자 초임은 약 7백원(10만 5천 원) 안팎이나 컴퓨터회사 같이 장사가 잘되는 회사들은 초임이 1천5백원(22만 5천 원)을 웃돈다. 비록 자신의 원하는 직장일지라도 작은 규모의 사영기업이나 외국인 회사는 이 배양비를 회사에서 대신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졸업생들은 배양비도 대신 내주고 초봉이 1천5백원 이상인 기업을 선호한다.

94년에는 베이징따쎈(北京大學) 외에 칭화따쎈(靑華大學), 런민따쎈(人民大學), 베이징외국어따쎈(北京外國語大學), 베이징공업따쎈(北京工業大學) 등이 자비 학비를 받았으나, 95년에는 50개가 넘는 베이징시의 거의 모든 대학이 자비학생을 모집하였다.



명문대들의 경우 졸업생들이 평균 10개 이상의 회사 중에서 좋은 조건의 회사를 골라 국가의 분배를 받아 왔으므로 국가 직업분배 제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편이다. 그러나 이들이 졸업하는 해에는 이제 중국도 취업 경쟁시대에 접어들어 비명문대 혹은 비인기학과 출신들은 졸업시즌이 되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취업걱정'을 해야 할 지경이다. 즉 100% 직업이 보장되어 왔던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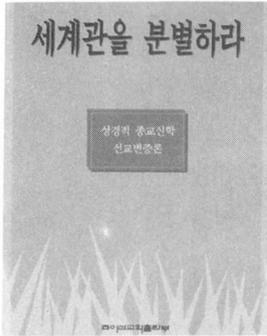
졸업생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내세우는 조건으로는 개인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있는가, 높은 경제수입이 보장되는가,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업무인가, 작업환경은 양호한가, 회사의 사회적 위치는 높은가, 직장을 다니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등등 끝이 없다.

졸업생들의 요구가 많은 임금과 적은 업무로 귀결되다 보니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범계열의 교원부족이다. 95년 북경시에서는 5천9백 명의 새로운 선생님이 필요했으나, 졸업생은 2천9백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모두 박봉에 고생만 하는 것으로 인식된 교사직을 기피하여서 어느 중학교 교장은 남부지방의 대학으로 신입교사 유치길에 나서기도 하였다.

출처/『한국 유학생, 중국 훑쳐보기』·매일경제신문사



# 세계관을 분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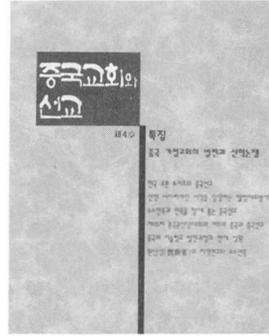
세계관이란 단순하게 말해서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은 마치 안경처럼 우리의 몸에 밀착되어 있어서, 안경을 끼는 사람이 렌즈에 색깔을 넣으면 온통 그 색깔대로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이나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전도한다' 혹은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관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세계관들에 역사하고 있는 악령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영적 전쟁은 곧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타종교와 타세계관을 성경적 관점에서 종교신학적 견해를 밝히고, 선교변증론을 다룬 이 책은, 현재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자나 준비하는 자에게 선교지의 세계관을 분별하는데 도움을 준다.

안점식 저, 조이선교회출판부, 344면 · 값 9,000원

# 중국 교회와 선교 (제4호)



현재 중국사회와 중국기독교 현황의 제반 연구를 통해 중국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 제시를 모색한 연구잡지이다. 특히 제3호 중국의 삼자교회에 이어서 제4호에서는 중국 가정교회의 발전 모델과 지도자 훈련과정 및 신학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며, 제15차 중국공산당대회 이후의 중국과 중국선교 및 중국의 이슬람교 발전과 운남성을 중심으로 한 소수민족 연구 등을 게재하였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 사역중이신 분들과 또 중국에 선교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실제적인 중국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추천하는 바이다.

참고로 1호 특집은 중국의 종교정책에 대해  
2호 특집은 중국의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318-6867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256면, 값 7,500원

# 신간도서

## 코카콜라 병에 빠진 중국

탄도 요시노리(丹藤佳紀)지음 · 김양수 편역 · 344쪽 · 8,500원 · 자작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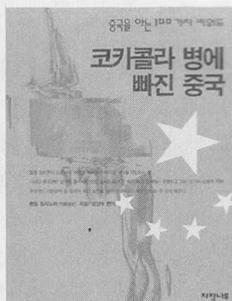
“중국이 눈을 뜨면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잠자는 사자’ 중국에 대하여 나폴레옹이 한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다.

이 책은 요미우리 신문사 베이징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을 오랫동안 관찰해 온 기자가 내놓은 일종의 현대 중국 보고서로서, 중국의 최근 실정을 매우 소상하고도 재미있게 전달해 주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를 통해 급속히 가까워진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양국의 교역 규모는 연평균 4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귀환됨에 따라 이를 포함시킨다면 단일 규모로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의 수출 시장으로 부각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에 1990년대 중국학의 과제는 중국이라는 실물을 사실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냉전 종결이후 급속히 자본주의 체제 속으로 편입되고 있는 중국 사회의 제반 모습을 속속들이 소개해 주고 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에 걸친 여러 모습을 기자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묘사하고 있어 중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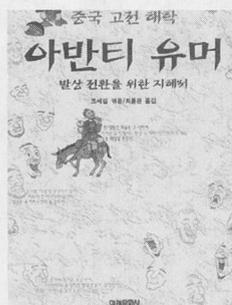


## 아반티 유머

조세걸 저 · 최룡관 역 · 366쪽 · 8,000원 · 미래문화사

<아반티 유머>는 중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 수백년 동안 구전으로 전수해 내려온 고전 중의 고전이다. 이야기 중에 아반티는 당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다니면서 못사람에게 웃음을 준다. 때론 어리석고 억살스러우며 유머와 위트를 연발하는가 하면 영리하고 총명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천재적인 화술을



구사하여 어려운 궁지에서 재치있게 빠져 나가는 비범함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중국 사람들의 내면적인 삶을 반영한 심리적 형태가 행동하는 인격체로 투영되어 아반티로 그려지고 있다. 때문에 아반티가 움짱일 때마다 그렇게 과묵하고 차갑던 사람들이 깔깔 웃고 좋아한다.

이 <아반티 유머>는 중원천지에 술하게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그 일부만 모아 엮은 것이다. 본서는 각박한 현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청량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중국이 보인다

중국학 연구회 편 · 344쪽 · 10,000원 · 일빛

‘중국학 교수 26인의 중국 제대로 읽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한 마디로 한국인들에게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의 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로부터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동경했던 까닭에 “고대 지상주의”의 발상을 해은 것은, 우리 스스로 그들의 중화사상을 인정하느라고 중국인들 앞에서 알아서 기가 죽은, 자긍심 없는 행위였다는 통렬한 비판도 일단 수긍할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보면 일본인이 보는 중국과 미국인이 보는 중국, 그 사이에서 한국인이 보는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안목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또한, 중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장구한 세월 앞에 실속 없이 의기소침했던 우리와 과거 영화로운 역사의 연속선에서 끊겨나온 공산화로 얼룩진 지금의 무질서한 중국인들의 실상을 보여준다.

전면적인 중국인들의 생활 속으로 진입하게 된 이방인으로서의 한국인의 위치를 자각하며, 중국인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中·美 정상회담의 성과

양청취(楊成緒)



지난 6월 27일 장쩌민(江澤民) 국가 주석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정식 회담을 마치고 각국 기자들과 공동 회견을 가졌다. 중(中)·미(美) 양국 수뇌는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하고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장쩌민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이래, 양국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쟁취했다. 쌍방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태(亞太)지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수호하는 데 유리함을 확인했다.

우선 쌍방이 핵무기로 상대방을 겨냥하던 것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요한 상징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같은 결정을 통해 중·미 양국은 상대방을 적수가 아니라, 합작 파트너로 간주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양국은 서남아시아 정세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 중·미 양국은 유엔안

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계속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중·미 양국의 공동 발의로 5개 상임이사국 외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이 문제를 토론했다. 이번에는 공동성명을 통해 서남아시아 정세의 악화를 방지할 것과 이 지구의 핵군비 경쟁 가열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는 서남아시아 지구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양국은 상호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클린

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중 양국은 31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수뇌는 동남아 금융위기와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 미국의 '뉴스위크'지는 중국이 이번 금융 위기에서 '방화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글을 발표했다. 사실 동남아 각국이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할 때 중국은 홍콩달러와 미달러의 고정환율을 고수하고 인민폐를 평가절하하지 않음으로써 이 지구의 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중·미 양국이 세계경제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국의 금융체제 개혁을 강화하도록 고무하는 것이 동남아가 조속히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체적으로 장쩌민 주석과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베이징(北京) 정상회담은 성과가 풍성하고 양국 관계의 진일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갖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출처/ <베이징저널> 제 56호  
楊成緒(중국국제문제연구소장)



#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 종교 · 선교

**중국 내 기독교인 1500만~3500만 명**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때를 맞춰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중국 교회에 대한 대형 기획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주로 난징(南京)의 교회를 중심으로 중국 교회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설명한 기사에서 뉴욕 타임스는 중국 내 기독교 인구가 1천5백만 명에서 3천5백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1만 2천여 명의 교역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만5천여 개의 처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 7천만 명에서 1억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서방선교전문가들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 98.6.27)

### 안개 속에 있는 중국 교회

중국을 방문 중이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가장 큰 중국공인 삼자 교회인 중원문(崇文門)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계기로 중국 교회 상황에 대한 서방언론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교회가 작지만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고 하면서 중국 기독교의 앞날은 밝지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과 정부관계자들은 “과연 종교와 공산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98.6.30)

### 선교활동 제한하는 종교법 제정

중국은 최근 지방행정조직 차원의 종교 조례를 발표, ‘종교사무조례’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부 인정 외의 외국인의 선교활동을 제한, 전면 금지했다. 특기할 것은 올해 실시된 광주시와 길림성 사무조례에는 조례를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명기돼 있다. 이 조례를 위반하고 선교활동을 진행했을 경우, 인민폐로 최저 500원(한화 8만 5000원)에서 최고 5만 원(한화 850만원)까지의 벌금을 내는 등 정부의 제지, 추방, 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게 된다. (기독교 98.7.1)

## 정치 · 군사 · 외교

### G7 亞州 10국 재무차관, 통화안정 국제 협력 합의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7개국은 도쿄(東京)에서 각국 재무차관급이 참석한 긴급 국제통화회의를 갖고 일본정부에 금융시스템 재구축, 내수주도 경제성장, 각종 규제완화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은 위안(元)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으며, 각국은 “중국이 아시아 금융시장 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국 98.6.21)

### 물부족, 세계 식량재앙 우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중국의 물공급 부족현상을 우려해 내놓은 분석결과, “중국의 물부족이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냉전시대 구소련의 미사일 움직임만큼이나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국의 물부족이야말로 세계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라고 보고 있다. (동아 98.6.22)

### 美-中 핵조준해제 협정타결

양국은 더이상 상대방을 향해 핵미사일을 겨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밝혔다. 이같은 핵미사일 조준해제협정 타결은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더이상 상대방을 전략 핵미사일의 공격 목표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향 98.6.27)

### 美-中 정상회담 결산 -21세기 동반자 확인

두 정상은 “평화증진과 긴장완화 및 제거에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룩해 양국이 동맹국 수준의 동반자임을 확인했다. 두 정상은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 경쟁방지, 생물무기와 대인피로문제 등에 관한 3개의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군사분야에서의 협력도 다짐했다. (중앙 98.6.28)

### 클린턴 베이징(北京)대에서 인권연설, TV로 전국 생중계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이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北京)대를 방문해 “인권은 모든 사람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자유는 진보를 위한 강력한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동아 98.6.29)

### 美 클린턴 대만 독립 지지 안할 것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의 독립이나 주권국가가 회원국이 되는 국제기구에의 가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동아 98.6.30)

## 티베트 재소자 시위대에 발표, 7명 사망 60명 부상

지난 5월 초 티베트 라사(拉薩) 지역의 한 감옥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죄수들에게 중국군이 사격을 가해 최소한 7명이 숨지고 60명이 크게 다쳤다고 티베트 망명정부가 밝혔다. 이들의 시위 이후 교도소의 모든 합법적인 활동이 중단됐으며 외부인들의 재소자 면회가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98.7.1)

## 홍콩, 아시아 국제 관문 새단장-홍콩 책잡콧 공항 개장

또 하나의 아시아 국제 관문이 문을 열었다. 부대공사비를 포함해 모두 200억 달러를 들여 7년 동안 공사 끝에 완공한 홍콩 책잡콧 공항의 민간항공기 이착륙이 시작됐다.

(한국 98.7.7)

## 대만, 중국에 '조기 경보체제' 설립 제의

대만은 중국에 대해 군사정보의 오판에 따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할 것과 이를 운영할 공동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의했다.

(한겨레 98.7.8)

## 반체제인사 6명 체포

중국경찰이 반체제 인사 6명을 체포했다고 홍콩에 본부를 둔 한 인권운동단체가 밝혔다. 중국 인권, 민주운동 정보센터는 동부 항저우(杭州)시 경찰이 지난 89년 민주화요구 시위를 주도한 왕여우카이 등 반정부단체인 중국민주당 회원 5명의 집을 수색한 뒤 이들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한국 98.7.12)

## 진(鎭) 단위 행정구역 직접선거 확대

중국은 향(鄉)단위 행정구역의 선거를 통제하는 관료제도의 구조조정을 시작해 이보다 규모가 큰 진단위 행정구역으로 직접선거를 확대하기 위한 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혁이 기층 민주주의 성숙을 향한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다.

(한겨레 98.7.13)

## 중국 대륙에 '사정 칼바람'

중국 당국이 부패판사와 세무공무원 등에게 철퇴를 내렸다. 주룽지 정부의 개혁을 향한 사정 불풍이 대륙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중국 법제일보는 현직 법원 간부의 신분으로 특정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 기업 정보를 알려준 광시(廣西) 장족(壯族) 자치구 인민법원 부원장에 대해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조선 98.7.16)

## 첫 유럽제 위성 성공 발사

중국은 첫 유럽제 통신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위성 발사체인 장정 3B 로켓은 쓰촨성(四川) 시창(西昌) 발사센터에서 프랑스 아에로스파시알사가 제작한 시노셋-1 위성을 성공적으로 정지궤도에 진입시켰다.

(국민 98.7.18)

## 달라이 라마, 중국의 대화제외에 화답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하며 티베트의 독립도 촉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등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제외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였다. 그는 "양안 관계에 대한 내 입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 "타이완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거나 격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 98.7.18)

## 국방백서, "대만 독립운동직임 보일 뎀 무력침공"

중국 국방부는 국방백서 '중국국방'에서 중국은 대만과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통일을 추구하겠지만 통일과정에서 무력사용가능성에 배제할 수 없다며 앞서의 무력침공 의사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국민 98.7.27)

## 초강국(超強國) 향한 정치개혁 시동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싱크탱크 몇 곳에 미국, 유럽 등의 정치개혁 모델을 다각도로 연구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경제개혁을 어떻게 단행할 것인지를 주목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장 주석이 앞으로 정치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깊은 관심을 기울

이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 98.7.28)

## 아태(亞太) 안전전략 3대 목표 제시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지역내의 안보, 안정, 평화 및 발전을 크게 중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등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3대亞太지역 안전전략목표의 하나라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자국의亞太지역 안전전략의 3대 목표로 ▲자국의 안전과 번영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역내 국가들과의 대화 및 협력 등을 제시했다.

(문화 98.7.28)

## 경제

## 국유 시중 은행 첫 폐쇄-금융개혁 본격화 예고

중국 국유 시중 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지불능력 부족을 이유로 폐쇄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하이난(海南)성에 있는 하이난 발전은행을 폐쇄하고 이 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총자산기준 중국내 최대 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이 떠맡는 방식으로 파산정산 절차를 밟도록 했다.

(동아 98.6.23)

## 성장부진으로 소요사태 우려

중국의 더딘 경제성장은 정치적 불안정과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 소속 연구소가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만일 중국 공산당이 추락하는 경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실업문제 등 사회적인 반발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장쩌민 국가주석의 지도부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회 불안정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98.6.23)

## "중국반환 1주년" 침체 겪는 홍콩경제

'홍콩을 상징하는 자형화(紫荊花)가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렸다'는 이 말은 주권반환 1년을 맞아 점차 번영의 신화가 꺾이고 있는 오늘날의 홍콩경제를 말해준다. '국제무역의 메카'였던 홍콩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은 주요 경제지표에서 잘 드러난다. 올 5월의 실업률은 4.2%로 1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1.4

분기 경제성장률은 13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 2%를 기록했다.  
(중앙 98.6.28)

### 주택시장 민영화-배정제 전면 폐지

오랜 관행이었던 공무원과 국유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의 주택배정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신규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가 아닌 판매방식으로 배분된다. 중국정부가 각종 제한을 완화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며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외국업체들은 올 하반기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팔목할 만한 진출을 할 전망이다.  
(경향 98.6.28)

### 이동전화 가입자 수 1천만 명 돌파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가입자 1천만 명 돌파는 지난 84년 차량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4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휴대폰 대중화 시대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동아 98.6.29)

### 통신시장 단계적 개방-우정(郵政)분야 우선 문열듯

중국의 새로 출범한 정보산업부(MII)는 국가통신시장을 점차적으로 개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산업부는 조 직을 13개부서로 나눠 그 기능을 통신산업 개방 확대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중앙 98.7.6)

### 중국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확대

중국중앙은행이 중국인민은행(PBOC)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통화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샹룽 행장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 8%를 달성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을 위해 재정 및 금융조치를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국유 부문과 금융자유화에 대한 전면개혁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98.7.15)

### 중국 위안화가 위태롭다

중국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없다'는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경제계서 평가절하 압력이 거세다. 경제계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국상품의

대외경쟁력이 하락, 기업 도산과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며 대외경쟁력 회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국민 98.7.21)

### 중국 5년 후엔 아시아 경제 맹주

홍콩에서 발행되는 경제전문지 '과이스턴 이코노믹 리뷰'가 최근 아시아 주요 10개국의 기업인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시아 지역 경제, 안보 분야 영향력 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앞으로 5년이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지역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역전드라마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화 98.7.22)

### 인민해방군 기업경영 금지

푸쥘안유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장쩌민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밝힌 인민해방군의 기업경영 참여 불가 방침 등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이 경영해 온 각종 기업들은 곧 민영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 98.7.24)

## 사회

### 홍콩 실업자 3분 20초당 1명꼴 증가

홍콩정부가 발표한 실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실업자 수는 12만 7,639명이며 3분 20초마다 1명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98년 들어 홍콩의 실제 실업율은 이미 4%를 넘어서 언제라도 사회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었다고 단언하고 획기적인 실업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민소요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앙 98.6.25)

### 중국 1자녀 가정 지출 많아

중국 도시 가정의 가계 지출 중, 국가의 1자녀 가족계획 정책으로 생겨난 '소황제(小皇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각 가정의 소황제(1자녀)에게 들어가는 한달 평균 지출은 81달러로 이들 도시의 1인당 월평균

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98.6.26)

### 중국 이재민 20만 명

중국과 미국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 중부 후난(湖南)성에서는 50년 만의 최악의 홍수가 발생, 창사(長沙)를 비롯한 2백 75개 지역에서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40억위안(약 6천8백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동아 98.6.30)

### 사상 첫 성희롱 입법화 검토

중국은 섹스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다는 오랜 금기를 깨고 사상 처음으로 성희롱 처벌 입법화를 검토 중이다. 신화통신은 음란언행으로 여성을 공격하거나 직위와 권력을 이용, 이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사실상 일종의 범죄라고 보도했다.  
(중앙 98.7.6)

### 베이징시는 여성 천국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는 각급 인민 정부 공무원의 거의 절반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최근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무원 40여만 명 가운데 여성이 46%로서 전국의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전문분야 관리직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3만 명이 나 많은 실정이다.  
(한겨레 98.7.8)

### 중국도 입시지옥

중국의 올해 대학입학 시험에 수험생 3백20만 명이 몰려 평균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중국에서도 입시지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문화혁명 후 부활된 중국의 대학입학 시험은,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져 올해도 수험생이 작년보다 34만 명이나 더 늘어났다.  
(동아 98.7.9)

### 사천성 최악 홍수-12명 실종 170명 사망

최근 수주일간 내린 폭우로 중국 서남부 쓰촨(四川)성에서 만 1백70명이 사망하고 3억1천2백만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쯔강 중류와 하류 대부분 지역의 수위가 위험한 상태



오는 9월 1일 중국 북경에 한국 학교가 개교된다.

인테다양쓰강지류의 물이 분류로 유입 되면 수위가 더 올라가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 98.7.10)

**공개재판시대 개막-저작권 침해사건 사상 첫 TV생중계**

중국의 국영 중앙텔레비전(CCTV)은 베이징 제 1중급 인민법원에서 열린 저작권 침해사건의 공판실황을 사상 최초로 전국에 생방송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4시간 반동안 생중계된 사건은 중국 내 20개 영화제작사가 베이징 텐두(天都)영화판권 대리센터의 텐진(天津)UCD발행센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분규사건이다.  
(동아 98.7.12)

**여성 10명 중 4명, 에이즈 존재 몰라**  
중국 여성들의 36%가 에이즈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남성들의 콘돔사용률은 4%에 불과하다고 중국 국가 계획위원회 조사보고서가 밝혔다. 중국에서는 지난 85년 처음으로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이 발견된 이후, 현재 12억 인구 중 20만 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 98.7.14)

**강, 호수 오염 극심**

각종 공해물질 배출로 중국의 양쯔강, 황하, 주강, 화이하등 주요한 강과 담수

호가 모두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기오염 역시 세계 최악의 대기 오염도시 10개 가운데 5개가 중국에 있을 정도로 중국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문제이다. 이에 따라 베이징은 유해 기술린 사용을 금지하고 배기가스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조선 98.7.16)

**“에이즈” 아시아 빈국에 급속 확산**

에이즈가 주민들의 무지, 마약거래, 정부의 무관심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 등 아시아의 빈국들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에이즈 확산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 속수무책의 상황이며 빈곤, 정치-사회불안, 공중보건체제의 부재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얀마로부터의 마약수송루트가 바뀌면서 에이즈 바이러스도 이 루트를 따라 인도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 98.7.17)

**멸종 막기 위해 팬더 복제 추진**

중국 과학 아카데미는 팬더곰을 멸종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앞으로 5년 안에 팬더곰을 복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팬더는 중국에만 사는 세계적인 희귀동물로, 쓰촨(四川), 산시(陝西), 간쑤(甘肅)성 등지에 흩어

져 살고 있다. 팬더는 밀렵과 삼림파괴로 점차 숫자가 줄어 현시 약 1천여 마리가 남아있다.  
(조선 98.7.20)

**히말라야에 자연공원 만든다**

중국은 미국 환경보호 단체의 도움을 받아 히말라야동부 경사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티베트 접경 지역에 위치한 공원 조성지는 각종 희귀 야생동물이 살고 있어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천혜의 관광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 98.7.20)

**홍콩 차이나 골칫거리, ‘벌집’**

홍콩 차이나 당국이 ‘벌집’ 거주자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그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벌집 거주자는 공식 집계로 2천 명 정도, 실제로는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개 구룡(九龍)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벌집 거주자 대부분은 실직자 아니면 임시직 종사자이다. 그 중에서는 ‘홍콩 차이나 드림’을 꿈꾸며 중국 남부 지방에서 건너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도 더러 있다.  
(한국 98.7.23)

**올들어 자연재해로 2천5백여 명 사망**  
중국에서 올들어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2천5백 명 이상이 숨지고 1백90억달러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중국 민정부가 밝혔다. 또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2억 8천만 명에 달했으며 3백85만 채의 가옥이 파괴됐다. 중국 당국은 현재 40년 이래 최악의 홍수사태를 빚고 있는 양쯔(揚子)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관리와 군민, 민간인 등 4백만 명을 동원해 놓고 있다.  
(문화 98.7.28)

### 장강(長江) 상류댐 파괴검토

중국 정부는 연 1주일 이상 이어진 폭우로 이미 위험수위 29m를 넘는 양쯔강의 범람을 막고 물길을 농촌지역으로 돌리기 위해 상류 일부 댐의 파괴를 고려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지가 보도했다.  
(동아 98.7.28)

### 중국 1백60여 개 대학 2개월 내 폐쇄할

중국은 구무원 기구 축소개편에 이어 2개월 안에 전국 1백60여 개 대학을 폐교하거나 종합대학으로 통합하는 등 대대적 교육부문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민 98.7.28)

## 한·중 관계

### 한·중 복수비자협상 타결

한국과 중국은 92년 수교 이후, 7년째 끌어오던 복수사증(비자)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고, 일정기간을 단위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중국 조선족 사기 피해사건 수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조선족 1천명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동아 98.6.20)

### 대入 재외국민 특별전형때 이중 국적자 지원 허용

교육부는 국적법의 개정으로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이중 국적이 허용됨에 따라 대학입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이중국적자의 지원을 허용키로 하고 각 대학에 이를 통보했다.  
(조선 98.6.22)

###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법무부는 9만 6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 문제 등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 사이에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범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범칙금 면제기간이 끝나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적발된 외국인은 전원 강제 출국시킨 뒤 재입국을 금지하고 불법 고용주들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국민 98.6.26)

### 신의주 역 중 단동-인천 카페리 운항

한중 합작선사인 단동국제항공은 유한공사는 1만1천급 카페리 동방명주(東方明珠)호를 인천~단동 항로에 투입하고 매주 2회 왕복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 항로가 개설되면 신히먼의 고향방문과 대북교역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동지역에서는 인천시가 '단동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고 남대문 및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1백50개 분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동아 98.6.28)

### "북경한국학교" 교민자녀대상 9월 개교

오는 9월 1일 중국 북경에 한국학교가 개교된다. 교육부는 북경에 상주하고 있는 8천7백여 명의 상사 주재원과 유학생, 교민 자녀를 위해 한국 학교 설립을 인가키로 했다며 현지 채용 교사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 북경시 조양구의 중국 학교를 임대해 개교할 이 학교는 교사 17명에 초등학생 1백58명, 중학생 55명이 다니게 된다.  
(문화 98.7.5)

### 中 정부, 삼성 선전공장-신리기업으로 선정

삼성전자는 중국 선전공장이 중국정부로부터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세관통과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간 80일 정도 줄어들고 수출품에 대한 검사가 종전보다 10%정도 축소되며 현장실시도 서류로 대체되는 등 세관통과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국 98.7.5)

### 한·중 외무, 김 대통령 연내 중국 국민 방문 합의

박정수 외교통상장관과 탕자췌엔 외교부장은 김대통령의 국민방문을 계기로 21세기를 앞둔 양국의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한중관계 발전방안을 양국정상이 문서를 통해 선언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 98.7.13)

### 차범근 씨 중국 프로축구 진출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중국 프로팀으로 진출했다. 차 감독은 7월 26일 리그를 시작하는 중국 프로축구 갑조(1부리그) 평안팀과 1년 동안 50만 달러(약 6억 5천만 원)를 받기로 하고 계약했다. 중국 심천특구를 연고로 지난해 창단한 평안팀은 지난해 곧바로 1부리그에 진출해 14개팀중 12위를 차지했는데 차감독은 승리수당과 함께 팀을 상위권에 올려 놓을 경우, 별도의 성과급을 받는다. 한편 한국 축구인의 중국 진출은 지난 시꺼까지 지린성 엔벤 오동팀을 이끌었던 최은택 감독(61)에 이어 4번째다.  
(국민 98.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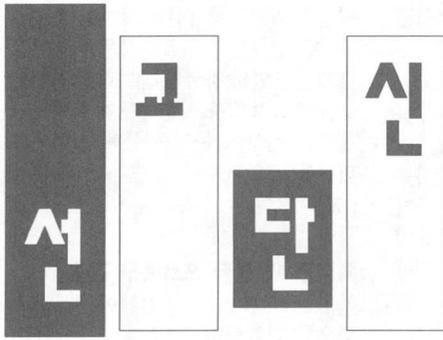
### 제주에 차이나타운 세운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에 차이나타운이 조성된다. 제주도는 중국인 무사증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 전략의 하나로 제주시 외곽지역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투자를 중소기업으로 시작하는 화교 자본의 특성을 감안, 한국 내 중소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경향 98.7.17)

### 방한 조선족 어린이 육사방문, 천선축구 등 추억쌓기

한민족 문화체육 교류협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 연지(延吉)시 연지공원소학교와 투먼(圖門)시 투먼소학교 학생 29명은 육군사관학교를 방문, 구경하고 순복음 노원교회 어린이들과 천선축구를 했다. 한, 중 어린이이 꿈나무 키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에 온 이들은 여름성경학교에서 성경공부도 하고 민박을 하면서 고교의 어린이들도 사귀었다.  
(국민 98.7.23)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 GWM 전임 간사 및 협력 간사 모집

갈릴릴세계선교회(GWM)에서는 미전도종족선교를 이루어갈 현신된 전임 간사와 협력 간사를 찾고 있다.

모집부문: 문서선교국, 제자훈련국, 국제선교국, 의료선교국 사무행정국 등

모집기간: 1998년 9월부터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 420-1450

### 한국 AAP 선교정탐훈련생 모집

한국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에서는 미전도종족선교를 위한 정탐훈련을 실시한다.

〈서울 제5기 선교정탐훈련〉

기간: 1998년 9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

훈련비: 15만 원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 402-4967

〈인천 제5기 선교정탐 훈련〉

기간: 1998년 9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훈련비: 15만 원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 863-8535

### 중국복음선교회 중국선교 세미나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에서는 9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 사회주의 중국과 종교문제

장소: 중화한성교회 소예배실(정동 경향신문사 앞)

일시: 1998년 9월 24일(목)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강사: 미민호(한동대학교 교수)

왕쓰웨(본 선교연구소 소장)

참가비: 오천 원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 318-6867

### 한국 연합선교훈련원 훈련생 모집

한국 연합선교훈련원(연합MTI)에서는 선교훈련을 받을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훈련기간: 1998년 9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훈련장소: 연합선교 훈련센터(송파구 문정동)

훈련비: 105만 원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 402-4009

### FIM 모슬렐을 품은 예배와 중보 모임

FIM 국제선교회에서는 예배와 중보기도 모임을 갖는다.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은석 교회(보라매공원 정문)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 847-5989

###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언어 강좌

한국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중국어 강좌를 실시한다.

〈중국어 기초반〉

기간: 1998년 9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매주 금)

〈중국어 초급반〉

기간: 1998년 9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매주 화)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 403-6797

###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훈련생 모집

한국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선교훈련을 받을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훈련기간: 1998년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훈련장소: 헤림교회(5호선 둔촌역 4번 출구)

훈련비: 12만 원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 403-6797

## 새 일꾼을 찾습니다

###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와 행정 간사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젊음을 불태우시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서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을 출판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중문과 혹은 국문과 전공자 환영)

문의: Tel. 533-5497 석은혜 간사

행정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행정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 Tel. 592-0132 정광숙 간사

###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간사를 찾습니다.

선교의 소명이 있는 분으로 중국어를 구사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역내용: 인천항 중국인 선원 전도사역, 중국어 성경반 협력·지원, 대내외 홍보,

제정 및 사무행정 등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임화평 간사 Tel. 032)872-0742 호출: 015-8483-6807

### 중·고등부 사역자와 찬양사역자를 찾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학생들을 지도할 중·고등부 사역자와 찬양사역자를 찾습니다.

문의: Tel. 533-5497 석은혜 간사

## 알려드립니다

### 베이징에서 중국어 전문사역언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과정: 1학기 6개월 과정(3개월 단위)

자격: 장기적으로 중국선교에 헌신하신 분

대상: 베이징 거주자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안상희간사(Tel.533-5497)

※강사들이 다양하며 감각적인 강의를 합니다!

### 북방선교방송이 드리는 '98년 가을의 큰 기쁨

“북방선교방송(TWR-korea) 창립 3주년 기념 행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일시: 1998년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내용: 감사예배, 사역보고, 기념공연

문의: Tel.3662-3972

찬조출연: 김성진 고에텐(크로스 로드), 김이섭(다드립선교단), 미스바 칸토라이,

박희봉(경희대가스펠), 왕성교회 어린이 중창단, 윤재노(호산나 경배와 찬양),

좋은 씨앗, 최성실(주찬양 선교단)등

※오후 6시부터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2층 그릴)

# 길림성 종교사무 조례

## (길림성 제8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제95호)

<길림성 종교사무 조례>가 1997년 12월 19일에 열린 길림성 제8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음을 공포하며,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12월 22일  
연변 조선족자치주 정부 종교사무국 편집

### 제 1 장 총 칙

제1조 국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하며 국가의 통일, 민족단결과 사회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헌법》과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고 본성의 실제와 결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란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와 기독교를 가리킨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사무란 종교와 국가, 사회, 군중기간의 각 항 사회공공사무를 가리킨다.

제4조 국민은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국민을 강박하여 종교를 믿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공민이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기시(歧視)하여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 그리고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공민기간에는 마땅히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종교활동은 반드시 헌법, 법률과 법규의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사회 질서와 생산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신체 건강을 해치며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헌법,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 종교활동 장소, 종교교직 인원과 종교를 믿는 국민의 합법적 권익 및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종교단체와 종교방면의 제반 사무는 마땅히 독립 자주하고 자체로 처리하여야 자전, 자치, 자양을 실행하고 국외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7조 본 성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문은 그 행정구역 내에서 종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주관부문이며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한다.

각급 종교사무행정주관부문은 본 조례의 관철, 시달을 검사, 지도, 협조하고 독촉해야 할 직책이 있다.

제8조 본 성 행정구역 내의 국가기관, 기업, 사업, 사회단체와 개인은 마땅히 본 조례를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제 2 장 종교단체

제9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단체란 법에 따라 성립한 전성(省)적 또는 시(市), 현(市), 구(市) 구역성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교협회, 천주교애국회와 천주교 교무위원회,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기독교협회 등 대중적인 종교조직이다.

제10조 종교단체는 반드시 국가의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관리 기관의 심사 기준을 거쳐야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법인 조건을 구비하면 법에 따라 법인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11조 종교단체는 마땅히 정부의 행정관리를 받아야 하며 정부에 협조하여 법률, 법규를 관철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종교교직원과 종교를 믿는 공민에 대한 애국주의, 사회주의와 법제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취지와 규약에 근거하여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전 성(省)적인 종교단체에서 꾸리는 종교 학원과 학

1) 경시하거나 차별대우 하는 것.





## 제 8 장 법률책임

제47조 허가를 거치지 않고 종교활동장소 내에 상업시설, 서비스 시설을 세우고 진열, 진람활동을 하거나 영화와 텔레비전을 찍었을 경우, 현이상 종교사무 행정주관 부문에서 책임지고 명령하여 활동을 정지시킨다.

제48조 제 마음대로 종교서적과 간행물, 종교인쇄품, 종교음향제품을 인쇄출판하고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종교사무 행정주관 부문과 해당 부문에서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9조 다음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현이상 종교사무 행정주관 부문에서 책임지고 명령하여 침권행위를 정지시키고, 손실을 배상하게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500원 내지 5,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공민의 종교신앙자유를 침해한 것.
- (2) 종교활동장소의 정상적인 활동을 교란한 것.
- (3) 종교 교직원인이 정상적인 교무활동 가운데서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한 것.
- (4) 공민을 선동하여 종교분쟁을 일으킨 것.
- (5) 종교활동장소의 종교시설을 못쓰게 만든 것.

제50조 아래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이상 종교사무 행정주관 부문에서 책임지고 명령을 내려 활동을 정지시키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00원 내지 10,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종교활동장소 밖에서 도를 전파하고 포교한 것.
- (2) 인정을 거치지 않고 기록에도 없이 종교 교직원인의 신분으로 종교활동을 주최한 것.
- (3) 허가없이 외성의 종교 교직원인을 본성에 초청하여 종교활동을 거행하거나 종교활동을 주최하게 한 것.
- (4) 종교활동을 몰래 양도하여 빌려주거나 종교 교직원인증서, 증건을 뜯어고치거나 위조한 것.
- (5) 외국 종교조직이나 또는 개인이 주는 교를 꾸리는 수당금을 받은 것.
- (6)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 종교조직과 개인의 기증을 받은 것.
- (7) 기준을 거치지 않고 종교단체를 세운 것.
- (8) 기준을 거치지 않고 종교학원이나 학교를 꾸리거나 종교 양성반을 조직한 것.
- (9) 대외왕래 및 교류시 종교조건이 부가된 것을 접수한 것.
- (10) 비종교활동 장소 혹은 비종교 단체에서 직접 혹은 변칙적인 보시, 니오편, 봉헌과 종교적 기증을 접수한 것.
- (11) 종교의 이름을 빌어 사기친다거나 타인의 심신건강에 손해를 준 것.

제51조 종교사무 행정주관 부문의 기준을 거치지 않고 사원

(寺院), 공관(宮觀), 청진사, 교회당 및 종교시설을 신축, 확장, 이전 건축하였거나 설치하였을 경우 현이상 종교사무 행정주관 부문에서 책임지고 명령을 내려 허물어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게함과 동시에 5,000원내지 50,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2조 국가사업 일군이 종교사무 관리사업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속단위 또는 상급 관련기관에서 책임지고 명령을 내려 시정하게 하거나 행정처분을 준다.

제53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의 해당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4조 외국인이 본 조례를 위반하고 종교활동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현 이상 종교사무 행정주관 부문에서 충고하여 못하게 하거나 제지시키며, 외국인 출입경 관리규정이나 치안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행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5조 행정부문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때에는 마땅히 행정처벌 결정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벌금 또는 몰수금을 받을 때에는 마땅히 성(省) 재정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 벌금 또는 몰수금 영수증을 주어야 하며 벌금 몰수금은 국가에 바친다.

제56조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넘을 때까지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에서 법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 9 장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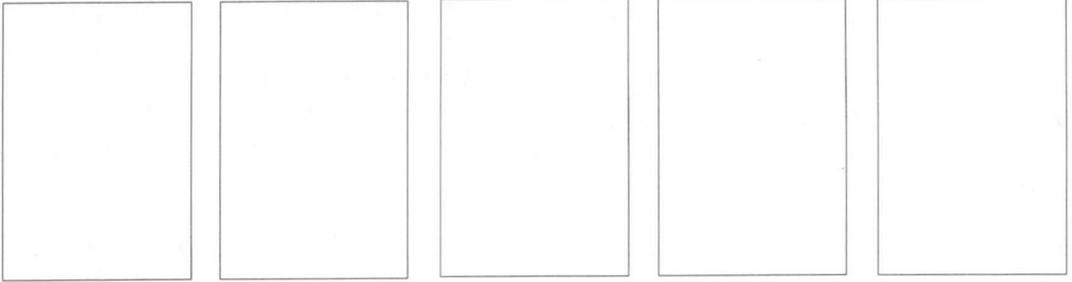
제57조 본 조례는 홍콩특별구, 마카오와 대만의 주민이 본성 행정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종교활동에도 적용된다.

제58조 본 조례는 성인대(省人大) 상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9조 성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0조 본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선교도서안내



## 중국선교 소책자 시리즈

- |                                      |        |
|--------------------------------------|--------|
| 1. 만남(중국성도 간증 소책자)/ 中國語文宣教會 번역       | 2,000원 |
| 2. 전도중국어/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역(Tape:1,000원) | 1,500원 |

## 중국어 학습 교재

- |                                    |         |
|------------------------------------|---------|
|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 2,000원  |
| 2. 經文背誦 (Tape:1,000원)              | 1,500원  |
| 3. 神愛世人 (Tape:1,000원)              | 2,000원  |
| 4. 我的第一本聖經 (Tape:1,000원)           | 2,500원  |
| 5. 信仰讀本                            | 5,000원  |
| 6. 구약성경 이야기 (Tape 25개)             | 25,000원 |
| 7. 中·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트 출판사) | 900원    |
| 8. 중국어 신구약 성경(번체자, 주음부호)           | 35,000원 |
| 9. 중조양어 대조와 오류분석                   | 18,000원 |
| 10. 중국어 찬양 Tape                    |         |
| ◆ 耶和華是我的牧者(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 4,000원  |
| ◆ 我的中國心(나의 중국 마음)                  | 4,000원  |
| ◆ 是愛(사랑은)                          | 3,000원  |
| ◆ 奉主耶穌的名                           | 3,000원  |
| 11. 종합선교중국어                        | 8,000원  |
| 12. 讚美歌                            | 5,000원  |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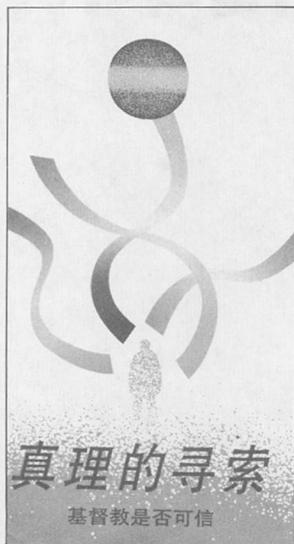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 소책자 소개

### 眞理的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 스토트(J.R.W. Stott-) 저/ 시에쯔위(謝志偉) 역/ CCL(복음증주협회)/  
간체자(簡體字)판



존 스토트는 중국 대륙 성도들의 총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해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CCL 협력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책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소책자와 양육·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갖고 가는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심영아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594-8038

#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아십니까?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개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혼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 교육목표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 교육기간

6개월(매년 3월·9월 개강, 주 5일)

## 교육내용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국문화 및 선교연구 세미나,  
중국어 공동훈련, 현지 언어연수 및 답사

## 교육대상

중국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  
훈련 후 선교지에 곧 나가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음

## 참가인원 및 선발기준

본 훈련원의 선발기준에 의함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TEL: 02) 535-4255, 594-8038  
FAX: 02) 599-2786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1999학년도

중국선교사  
훈련원  
훈련생모집

본 훈련원에서는 중국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을 위하여 현지 사역에서 필요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현지 훈련을 통한 적응능력을 함양하여 중국전문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비 중국선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대상**

1. 중국선교 소명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선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
2.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4년 이상 근무한 자

**교육기간**

1999년 3월 2일~2001년 2월 28일  
2년(평일 주간) - 국내교육, 해외실습

**훈련 및 교육내용**

영성 및 인격훈련  
공동체훈련  
은사 및 사역의 개발  
사역실습  
중국어: 기초에서 자유로운 언어 구사와 설교능력 배양  
중국선교사역학  
중국학  
일반선교사역학

**교육장소:** 본원(서울 중구 정동 25번지)

**전형방법:** 서류/필기시험/면접전형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연중교부/1998.11.30 마감

**모집인원:** 〇〇명

**제출서류:** 본원지원서 /신앙고백서 /최종학교졸업, 성적증명서  
사진 2매(3×4) /추천평가서 2통(담임목사,교우)

**시험일자:** 논술(1998년 12월 7일)  
면접(1998년 12월 8일~9일)

**합격자 발표:** 1998년 12월 21일

**개원일자:** 1999년 3월 2일

**특 전**

1. 본 훈련원 졸업시 홍콩의 중국선교신학원(China Mission Seminary)의 인준학위인 중국선교학 석사(Master of Christian Studies in China Ministries), 중국선교학 증서(Diploma of China Ministries)를 수여함.
2. 각종 장학생 혜택(성적, 애화, 생활, 근로) 장학제도 있음.

문 의: 전화 02)318-3956

팩스 02)773-6278

중국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8년 9·10월호(통권53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위원/ 강성광·김종선·김중하·김피득  
왕쓰웨이·지인성·한수아(가나다 순)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이민선·최귀례·곽숙·박정희  
편집디자인/ 안상희

**중국을 주제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8년 8월 20일  
인쇄처/ 친구인쇄 ☎ 02) 275-5963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 0344)906-9191~4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30,0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B01호  
전화: 032)872-0742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시시오

☆ 인터넷 홈페이지

www.Dadream.co.kr/~sinim

☆ 인터넷 홈페이지

sinim@chollian.net

☆ PC 통신 천리안, 하이텔

sinim

# 편집후기

온 세계 곳곳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지구 전역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재난으로 허덕이고, 먹이사슬처럼 얽힌 세계경제는 통째로 흔들거린다.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총성과,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기아의 대량발생 참상 등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마치 온 지구가 들끓고 있는 용광로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눈을 돌려 주님을 보자. 태풍 중심의 고요처럼, 우리가 주님 한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화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던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이 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묘목'을 심는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오'라고 고백하며, 영원히 헛되지 않을 열매를 위하여, 오늘도 저 중국에 복음의 묘목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 본다.



**국외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1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30,000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36,90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17,400원, 합계 41,40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30,000원, 우편료 19,200원, 합계 43,20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31,200원, 합계 55,2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제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중국을 주제로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잡지입니다.

##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8.4.1~2000.3.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보내는 사람

\_\_\_\_\_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8.4.1~2000.3.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보내는 사람

\_\_\_\_\_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 중국을 주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02-592-0132, 0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십시오

시중은행 99번 창구/ 지로번호 7602362(정기구독으로 표시)

국민은행/ 008-01-0454-178(예금주: 박성주)

### 독자카드 1998년 9·10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한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정기구독 신청서

1.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십시오.

신규구독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1년 30,000원(6권)    2년 60,000원(12권)    3년 90,000원(18권)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이름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우 - )		(통 반)	출석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			(통 반)

전화신청 및 문의 02) 533-5497, 02) 592-0132

# '중국을 주께로' 월례 중보기도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 3)

중국 선교의 문이 왜 열리지 않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로써 모든 닫힌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선교의 모든 문들이 닫힌 채로 있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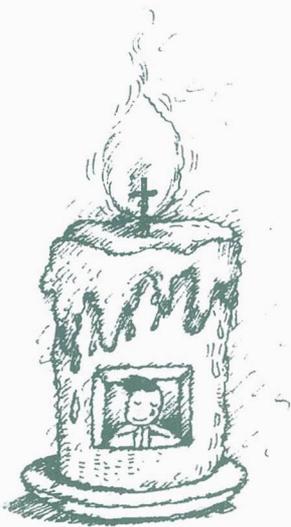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크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누가 이 세대에 기도의 큰 용사로, 이 영광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제,  
『중국을 주께로』 월례 중보기도가 98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양 팔을 붙들고,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팔을 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보기도로 후원하실 여러분들을 향해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저녁 7:00~9:00)**

**장소: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잠깐 !! 그 외,  
매주 첫째, 둘째, 넷째 월요일은 저녁 6:30~8:30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가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우137-069  
전화: 021592-0132, 594-8038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포레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 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답니 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 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함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 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 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320-0283, 0290)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성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익 익 이 - 영 육 구 원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시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